언론사: 국민일보-5-802.txt

제목: 경리의 일침 “남의 SNS에 얼굴평가 하시는 분들”  
날짜: 20170214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844001  
ID: 01100201.201702141748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걸그룹 나인뮤지스의 경리가 악플러를 향해 속시원한 일침을 가했다.  <br/> <br/>경리는 14일 트위터에 2장의 사진을 올리고 “같은 날 찍은 사진인데요. 한쪽은 혹펴을 받고 있네요. 본인 만의 기준으로 남의 SNS에 얼굴평가 하시는 분들, 전 이 얼굴로 충분히 행복합니다”라고 적었다. <br/> <br/>경리는 또 “참고로 상처는 안받아요. 예쁜 것 같아서 올린 거니까”라고 덧붙였다. <br/> <br/> <br/> <br/>경리가 “혹평을 받았다”고 언급한 사진은 초록색 수풀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이다. 전날 경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공개하자 “얼굴이 다르다” 등의 댓글이 줄지어 달렸다. 다른 각도로 카메라를 응시한 사진은 지난달 31일 인스타그램에 먼저 게시됐다. <br/> <br/> <br/> <br/>해당 트위터 글은 3시간 만에 3000회 이상 리트윗 됐다. 네티즌들은 경리의 대응이 속시원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span class='quot0'>이제는 악플러들에게도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span>”고 경리를 응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03.txt

제목: 특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방식 재협의 착수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2844001  
ID: 01100201.201702141728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과 방식을 다시 협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8일 대면조사 무산 이후 6일 만에 협의가 시작된 것이다. <br/> <br/> <br/>14일 특검팀과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과 방식을 다시 조율하기 시작했다. <br/> <br/>이규철 특검보는 “<span class='quot0'>대통령 대면조사는 현재 특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span>”고 말했다. 전날 “일체 접촉이 없다”는 말과 조금 달라졌다. <br/> <br/>이 특검보는 “<span class='quot1'>대면조사는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조율하느냐</span>”는 질문에 “<span class='quot1'>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하면 될 것</span>”이라며 조율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br/> <br/>하지만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조사 자체가 백지화된 것을 의식한 듯 구체적 발언은 삼갔다. <br/> <br/>이 특검보는 “<span class='quot1'>특별히 말할 내용이 있을 때 얘기하겠다</span>”며 “<span class='quot1'>지난번 사례에 비춰 보도에 신중하기 바란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04.txt

제목: 美 국토안보부, 불법체류자 680명 체포… 공포에 빠진 이민사회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65144001  
ID: 01100201.20170214165144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이뤄진 이민세관집행국(ICE) 불법체류자 체포 작전에서 680명이 붙잡혔다. <br/> <br/>13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WP)는 국토안보부(DHS) 발표를 인용해 산하기관인 ICE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역에서 지난주말 동시다발적 단속을 실시해 680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단속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r/> <br/>DHS는 체포한 불법체류자 대부분이 음주운전 등 경범죄부터 마약·무기 밀매, 살인, 성폭행 등 중범죄까지 전과가 있는 범죄자였다고 밝혔다. <br/> <br/>존 켈리 DHS 국장은 “<span class='quot0'>ICE가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일상적인 작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체포된 사람의 75%가 외국인 범죄자</span>”라고 말했다. <br/> <br/>하지만 이민자 단체들은 무분별한 체포가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단속대상 범위도 버락 오바마 정권 때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것이다. 또 공공장소에서 많은 이민자가 끌려가 이민사회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비판했다. <br/> <br/>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라도 전과가 없으면 즉각 추방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렸지만 이번에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곧바로 추방을 당한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05.txt

제목: 서울디지텍고 몰려간 보수단체… '교장 훈시' 논란에 발칵  
날짜: 20170214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60244001  
ID: 01100201.201702141602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서울디지텍고 곽일천 교장의 ‘탄핵 음모’ 훈시 논란이 학생과 학교로 번졌다. 보수단체들이 교장을 보호한다며 학교로 몰려와 시위를 벌여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다. <br/>곽 교장의 훈화가 일제히 보도된 다음날인 14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서울디지텍 앞은 곽 교장지지 집회 연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회원들로 소란스러웠다. 이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규탄하며 국정교과서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br/> <br/>보수단체 회원들은 이날 1시에 예정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의 교사들의 곽 교장 규탄 기자회견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집결했다. 양측의 충돌을 우려한 경찰은 인력 수십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곽 교장 규탄 기자회견은 취소됐다. <br/> <br/> <br/> <br/>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근혜 하야'라고 적힌 피켓을 든 한 시민이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br/> <br/>갑작스런 소란에 자율학습 중인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다. 한 학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실 안에서 촬영한 집회 사진을 올리고 “학교 가기가 무서워졌다”고 적었다.  <br/> <br/>곽 교장은 지난 7일 종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며 일장 훈시했다. 그는 “<span class='quot0'>탄핵 자체가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0'>90%이상의 언론이 정략적인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민들과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span>”고 강변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06.txt

제목: 김가연 "서인영 끝까지 인사 안 해" 인성 폭로 (영상)  
날짜: 20170214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53644001  
ID: 01100201.201702141536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김가연이 가수 서인영과의 과거 일화를 공개했다. <br/> <br/>13일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최근 불거진 서인영의 인성 논란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br/> <br/>이날 출연한 "하은정 기자는 "호불호가 있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저는 나쁘지 않았다"며 서인영의 첫 인상을 설명했다. 그러나 김가연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br/> <br/>김가연은 “예전에 서인영을 만난 적이 있다”며 “한 공간 안에 여러 명의 연예인이 있었는데 서인영은 아무에게도 인사를 안 했다. 반면 서인영 또래의 다른 여가수는 모두에게 인사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r/> <br/>이어 “일부러 서인영에게 가까이 가서 눈도 마주쳐보고 그랬는데 끝까지 인사를 안 했다”고 덧붙였다. <br/> <br/>영상보기 <br/> <br/> <br/> <br/>이에 대해 MC 이상민은 “서인영과 김가연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느냐”고 묻자 김가연은 “아주 많이 난다”고 답했다. <br/> <br/>또 김가연은 최근 논란이 된 서인영 욕설 동영상과 관련해 “나보다 후배고 어리지만 앞에 있다면 정확하게 한마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들이 “무슨 말을 할 것이냐?”고 묻자 김가연은 “비방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br/> <br/>이날 함께 패널로 출연한 곽정은은 "서인영에게 ‘센 언니’ ‘할 말 다 하는 언니’라는 캐릭터가 붙으니까 자신도 모르게 인성이 합쳐져서 점점 더 센 멘트, 무례하게 비칠 수 있는 멘트,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더해졌고 결국 선을 넘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선 것은 대중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 <br/>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JTBC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두바이 촬영 현장에서 서인영이 "너 빨리 나와 XX"라는 욕설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07.txt

제목: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역대 최다인 22만8368명 원서 접수  
날짜: 20170214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44144001  
ID: 01100201.20170214144144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역대 최다인 22만8000여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br/> <br/>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1〜6일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22만8368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 접수인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br/> <br/>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22만1853명)보다 65115명 많다. 그러나 선발예정인원이 4910명으로 지난해(4120명)보다 19.2% 증가해 경쟁률은 46.5대 1로 전년(53.8대 1)보다 다소 줄었다. <br/> <br/>모집직군별 경쟁률을 보면 행정직군은 4508명 모집에 20만596명이 지원해 44.5대 1, 기술직군은 402명 모집에 2만7772명이 지원해 69.1대 1로 나타났다. <br/> <br/>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곳은 기술직군 공업직(화공:일반)으로 7명 모집에 1713명이 지원해 24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br/> <br/>지원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로 지난해(28.5세)과 비슷했다. 20대가 14만6095명(64.0%)으로 가장 많고 30대는 6만7464명(29.5%)이었다. 50세 이상도 1100명(0.5%)이었다. <br/> <br/>여성 비율은 52.0%(11만8678명)로 2016년 53.6%(11만8934명)에 비해 소폭 줄었다. <br/> <br/>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4월 8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3월 3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공고된다. <br/>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08.txt

제목: 2월14일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 맞춰 추모영상 공개 (영상)  
날짜: 20170214  
기자: 최민우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42344001  
ID: 01100201.201702141423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발렌타인 데이인 2월 14일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 일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 전문 홍보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가 ‘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 영상을 공개했다. <br/> <br/>서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UCC 영상 ‘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과 함께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br/> <br/>서 교수는 “<span class='quot0'>2월 14일 안중근 사형 선고일을 맞아 뮤지컬 '영웅'에서 안중근 역을 맡은 안재욱 형님과 의기투합해 '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을 주제로 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span>”며 “<span class='quot0'>안중근 의사 가묘(假墓)가 있는 용산구 후원으로 제작한 이번 5분 분량의 영상은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제작됐다</span>”고 밝혔다.  <br/> <br/>영상의 주 내용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일제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받은 재판과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습, 뤼순 감옥 간수와의 일화, 안 의사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br/> <br/> <br/> <br/> 서 교수는 “<span class='quot0'>요즘 사람들이 오늘이 밸런타인데이라는 사실은 잘 알아도 안중근 사형 선고일이었다는 역사는 알지 못해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국내외로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우리의 영웅 이야기를 되새기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으면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어 “나라마다 대표하는 영웅들이 존재한다. 그런 영웅들이 그 나라의 이미지를 바꿔 놓듯이 전 세계 젊은층에게도 안중근을 소개하고자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미국·영국·중국 등 대륙별 주요 10개국을 선정해 각 나라마다 가장 유명한 포털 사이트 및 동영상 사이트에도 올려 전 세계 네티즌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br/> <br/>영상에서 내래이션을 맡은 안재욱은 “<span class='quot1'>마지막까지 집필했던 동양평화론의 가치와 세계 평화를 꿈꾸던 당당한 안중근의 정신이 우리에게 다시금 큰 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녹음에 임했다</span>”고 전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09.txt

제목: “누드는 문제 없다” 플레이보이, 다시 누드 사진 게재  
날짜: 20170214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42244002  
ID: 01100201.2017021414224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시대의 변화에 따라’ 누드 사진을 싣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플레이보이가 1년 만에 다시 누드 사진을 게재하기로 했다. <br/> <br/>플레이보이는 13일(현지시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3∼4월 호부터 지면에 여성 누드 사진을 게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신호 표지에는 모델 엘리자베스 엘람의 누드가 실렸고 ‘나체는 정상’(Naked is Normal)이라는 문구가 커다랗게 박혔다. <br/> <br/>2015년 10월 ‘노 누드’를 선언한 플레이보이는 2016년 3월호부터 누드 사진을 싣지 않았다. 인터넷 포르노가 범람하면서 종이로 인쇄된 누드가 독자를 끌어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r/> <br/> <br/> <br/>플레이보이 창업자 아들이자 최고운영책임자(CCO)인 쿠퍼 헤프너는 이러한 전략이 실패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며“이전에 플레이보이가 누드를 보여준 방식은 구식이었지만, 완전히 없앤 것은 실수였다. 누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br/> <br/> <br/>다만 헤프너는 표지에서 ‘남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그는 “플레이보이는 항상 남성의 관심사에 초점을 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지만 성 역할이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0.txt

제목: 박수진, 발렌타인 데이 초콜릿 인증샷 "배용준 향한♥"  
날짜: 20170214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31344001  
ID: 01100201.201702141313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박수진이 <span class='quot0'>발렌타인데이</span>를 맞이해 수제 초콜릿 인증샷을 공개했다. <br/> <br/>박수진은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span class='quot0'>발렌타인데이</span>"라는 글과 함께 직접 만든 초콜릿 사진을 게재했다. 남편 배용준을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br/> <br/>공개된 사진 속에서 박수진은 직접만든 하트모양 초콜릿을 손에 들고 눈을 감은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도 아름다운 미모가 눈길을 끈다. <br/> <br/> <br/> <br/>사진과 함께 박수진은 "왜 때문에 #모양 보다는 맛으로 좋은 재료, 마음이 최고..#재능없는걸로 #한숨 #복덩이잘때샤샤샥 #<span class='quot0'>발렌타인데이</span>"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웃음을 더했다. <br/> <br/>한편 배용준 박수진 부부는 지난 2015년 7월 웨딩마치를 울렸으며, 지난해 10월 아들을 출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1.txt

제목: 태극기 흔든 서석구, 애국심 강변 이동흡… 朴 변호인단의 면면  
날짜: 20170214  
기자: 정승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24544001  
ID: 01100201.201702141245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눈에 띄는 행동과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br/> <br/>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 태극기를 두르고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오려다가 경위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그는 대심판정 안에 들어온 후에도 다시 태극기를 꺼내 흔들다 직원에게 주의를 받았다. 일반 방청객이었다면 감치 명령을 받았을 만한 행동이다. <br/> <br/>그는 탄핵 음모론과 관련된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제목이 씌어진 책과 기사 등을 보라는 듯 꺼내 자리에 두고 앉아 변론을 준비했다. 태극기와 책을 들고 변론에 앞서 시위를 한 셈이다. <br/> <br/> <br/> <br/>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도 이날 처음으로 변론에 출석했다. 그는 약 15분간 변론하면서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중대한 법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br/> <br/>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고 평가하며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등 주변 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다”고 강조했다.  <br/> <br/> <br/> <br/>이 변호사는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은)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 있지 않나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0'>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누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히 나무라야 한다</span>”면서도 “<span class='quot0'>그런 과오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2.txt

제목: 일본에서 수입된 울산 돌고래, 5일 만에 폐사  
날짜: 20170214  
기자: 울산=조원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22444001  
ID: 01100201.20170214122444001  
카테고리: 국제>일본  
본문: 동물 학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수입한 돌고래 2마리중 1마리가 5일만에 돌연 폐사 했다. <br/> <br/> 14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9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수입된 돌고래 2마리 중 1마리가 13일 오후 9시 15분에 폐사했다. <br/> <br/> 이들 돌고래는 8일 오전 7시 일본 와카야마(和歌山)현 다이지(太地)정을 출발, 약 32시간 만에 울산에 도착했다. 당시 뱃길 700㎞, 육로 300㎞ 등 1000㎞를 이동했다.  <br/> <br/>수입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비인간 인격체인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는 것은 동물 학대”라며 “돌고래 수입을 철회하고, 현재 사육 중인 돌고래도 방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 남구는 폐사한 돌고래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br/> <br/> 한편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에서는 이미 5마리의 돌고래들이 폐사한 적 있어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br/> <br/>  지난 2009년과 2012년에도 각각 일본에서 들여온 돌고래가 전신성폐혈증과 돼지단독병에 걸려 죽었다. <br/> <br/> 2014년 3월 초에는 새끼 돌고래가 태어난지 65시간만에, 2015년 6월에도 또 다른 새끼 1마리가 태어난지 6일만에 각각 폐사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8월 30일 수컷 돌고래들이 싸우다 1마리가 폐사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3.txt

제목: ‘정유라 특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다시 구속 위기  
날짜: 20170214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12844001  
ID: 01100201.201702141128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입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다시 법원에 출석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br/> <br/> <br/>최 전 총장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심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가 학교에 나가지 않고 학점을 딴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최순실을 아직도 모르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r/> <br/> <br/> <br/>특검팀은 앞서 최 전 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최 전 총장은 2014년 10월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을 앞두고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초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은 후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정씨의 학점 특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br/> <br/>최 전 총장 측은 정씨에 대한 특혜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부탁으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4.txt

제목: 이동흡 “박근혜, 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조국과 민족에 헌신”  
날짜: 20170214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10444001  
ID: 01100201.201702141104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된 이동흡 변호사(전 헌법재판관)가 박 대통령에 대해 “<span class='quot0'>애국심 하나로 사심없이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span>”고 평가했다. <br/>이 변호사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3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약 15분간 변론을 펼치며 박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중대한 법위반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강변했다. <br/> <br/>그는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 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며 “<span class='quot0'>주변감독에 나름대로 엄정하게 대처했다</span>”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1000만명 이상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 취임한 대통령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 지위를 남용한다는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r/> <br/>이 변호사는 또 “<span class='quot0'>(박 대통령은) 부양해야 할 자식도 없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말 들으며 오로지 조국과 민족에 헌신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녀의 애국심을 존중해달라는 말은 못하더라도 조금은 따뜻한 시각에서 봐줄 필요 있지 않나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이어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이권을 누리며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히 나무라야 한다”면서도 “그런 과오는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r/> <br/>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불출석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5.txt

제목: 헌재에서 태극기 펼쳐든 서석구변호사  
날짜: 20170214  
기자: 2017. 1. 14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10144001  
ID: 01100201.201702141101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대통령측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앞서 가져온 태극기를 꺼내 취재진을 향해 흔들고 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2017. 1. 14 사진공동취재단

언론사: 국민일보-5-816.txt

제목: 여의교 9차로로 확장, 보도육교 신설한다…내년 5월 준공  
날짜: 20170214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5444001  
ID: 01100201.201702141054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서울시는 ‘여의교 확장공사 및 교차로 개선공사’를 착공해 내년 5월 완공한다고 14일 밝혔다. <br/> <br/>여의도 샛강을 건너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신길동을 연결하는 여의교를 기존 왕복 8차로에서 9차로로 확장하고 보도육교를 신설하는 공사다. <br/> <br/>여의교가 9차로로 확장되면 직진 차로의 교통량이 늘어나게 돼 출퇴근 시간대 발생했던 상습교통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br/> <br/>여의교는 1976년 10월 왕복 4차로 개통했으나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90년 9월 왕복 8차로로 확장됐다. <br/> <br/>시는 또 보행자를 위해 연장 240m의 보도육교를 우선 신설한 후 기존 여의교 보도를 차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br/> 신설되는 보도육교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아치형 트러스(truss)교로 설계됐다. <br/> <br/>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span class='quot0'>준공이 되면 대방역에서 여의도로 진입하는 교통량이 분산되고 여의교오거리 교차로의 교통 정체가 개선돼 여의도내로 접근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span>”고 말했다. <br/>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7.txt

제목: 담배 피는 청소년, 거식증 발병위험 높다  
날짜: 2017021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5044001  
ID: 01100201.201702141050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청소년보다 더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시도하게 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br/> <br/>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가정의학과 조영규( <br/>사진) 교수 연구팀이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참여자) 3만1090명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행동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br/> <br/>연구팀은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을 ‘극단적인 방법’과 ‘덜 극단적인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해 조사했다. <br/> <br/>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살 빼는 약 복용 △설사약·이뇨제 복용 △식사 후 구토이며 덜 극단적인 방법은 △원 푸드 다이어트 △단식 △다이어트 식품 섭취 △한약 복용이다.(복수응답) <br/> <br/>조사결과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을 시도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연구에서 전체 학생 중 흡연 학생은 남학생의 경우 13.3%, 여학생의 경우 3.8%로 조사됐다. <br/> <br/>특히 흡연 여학생의 경우 건강에 해로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15.1%가 사용했다. 이는 비흡연 여학생(5.2%)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다. <br/> <br/>식사 후 구토를 통해 다이어트 경험을 한 흡연 여학생이 7.9%로 비흡연 학생(2.4%)보다 5.5% 포인트 높았고, 처방 약을 복용한 경우 3.6%(비흡연자 1.3%), 처방받지 않은 약 복용 5.8%(비흡연자 1.9%), 이뇨제·설사약 복용 5.6%(비흡연자 1.9%)로 모든 항목에서 흡연 여학생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더 많이 선택했다. <br/> <br/>덜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중조절을 한 경우도 흡연 여학생이 38.2%로 비흡연 여학생(22.6%)보다 약 1.5배 높았다. <br/> <br/>원 푸드 다이어트도 흡연 여학생 14.7%(비흡연자 7.9%), 단식 22.0%(비흡연자 8.8%), 다이어트 식품 18.1%(비흡연자 11%), 한약 5.3%(비흡연자 3.4%)로 조사돼 역시 흡연 여학생이 더 많이 선택했다. <br/> <br/>반면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인 운동으로 체중조절을 시도한 여학생은 비흡연자가 70.4%로 흡연자 65.6%보다 더 많았다. <br/> <br/>남학생의 경우에도 흡연 학생이 비흡연 학생보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약 1.5배, 덜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약 1.2배 더 많이 시도했다. <br/> <br/>청소년기에는 음주, 흡연, 약물 사용, 폭력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군집해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인 다이어트 시도 또한 자극을 추구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의 청소년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행동 중 하나란 얘기다. <br/> <br/>조영규 교수는 “<span class='quot0'>흡연이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을 지속할 경우 거식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어 건강위험행동이 습관화되기 이전에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연구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판 학회지 ‘KJFM ’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8.txt

제목: 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날짜: 20170214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4744002  
ID: 01100201.20170214104744002  
카테고리: 정치>외교  
본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사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앞서 태극기를 펼쳐 보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서 변호사는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하다가 헌재 방호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br/> <br/>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변론에 앞서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대리인석에서 재판관석을 바라본 채로 가방에서 태극기를 꺼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잇달아 터지자 뒤로 돌아서 방청객석을 바라봤다. 태극기를 가슴 앞에 펼친 채로 웃으며 포즈를 취했다. 서 변호사는 약 10초 간 태극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던 도중 방호원으로부터 제지당했다. <br/> <br/>서 변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최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19.txt

제목: ‘블랙리스트’ 윤이상콩쿠르· 서울연극제 기사회생… 국비 지원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4744001  
ID: 01100201.201702141047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경남도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개최가 불투명했던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가 기사회생했다. <br/>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년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 사업 결과’에 따르면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 국비 1억6000만원이 지원된다. 서울연극제도 9000만원 지원이 확정됐다. <br/> <br/>‘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두 사업은 지난해 국비 지원에서 배제됐다. <br/> <br/>윤이상은 1967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독일로 돌아간 뒤 귀국하지 못했다. 2003년 출범한 한국의 첫 국제 콩쿠르인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홀대를 받았다. 윤이상평화재단은 2013년 이후 정부의 지원이 끊겼다. <br/> <br/>유럽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아 윤이상의 업적을 잇달아 기리는데 정작 고국에서는 홀대를 받는 셈이다. 다행히 올해 11월 콩쿠르를 이어갈 수 있는 예산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서 명예를 고국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br/> <br/>서울연극제를 운영하는 서울연극협회는 대표적인 블랙리스트 단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의 대관에서 지난 2년 연속 탈락했다. 지난해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국비 신청을 못했는데, 올해 지원을 받게 됐다. <br/> <br/>이에 따라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br/> <br/>문화예술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정부가 예년보다 문화예술 지원을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블랙리스트 관련 단체를 본격적으로 지원하는지는 남은 공모 심사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듯하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20.txt

제목: 채동욱 “특검 연장해 수사 1년은 해야”… ‘금반언의 원칙’ 거론  
날짜: 20170214  
기자: 정승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3044001  
ID: 01100201.201702141030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span class='quot0'>특검이 연장되지 않으면 정윤회 게이트 때처럼 대통령 가이드라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시 수사가 넘어간다</span>”며 “특검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채 전 총장은 14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span class='quot1'>특검이 종료되면 특검이 수사하고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다시 검찰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span>”며 이 같이 말했다.  <br/> <br/>그는 “<span class='quot1'>(특검보다) 먼저 이 사건을 수사했던 현재의 검찰은 재벌과 권력 간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했었고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우병우 등 관련 공무원들의 비호방조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못한 채 특검한테 사건을 전부 이관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채 전 총장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해서 모순되는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금반언의 원칙’을 거론하며 “<span class='quot1'>당초 직권남용을 이 사건에 적용했던 검찰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죄로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겠냐</span>”고 반문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특검은 수사 내용을 보고할 필요가 없어 보안이 유지되지만 사건이 검찰 손으로 넘어가면 (검찰 내부의)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1.txt

제목: [교회와 공간-가평 가락재영성원] 하나님 공간에서 에덴의 자유를 나누다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2855001  
ID: 01100201.20170214102855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의식이 지성화 되면 될 수록 물질은 점점 공간화 된다. 철학적 의미의 공간은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형식이다.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의 공간과 시간 안에 산다. 그 시·공간 안에서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원한다. 한데 정작 인간들은 삭막하고 복잡한 도시로만 몰린다. 크리스천은 영생과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복음을 받은 자의 이상세계는 도시공간이 아니다. 정원이다. 최초의 낙원이 에덴동산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도시는 곧 헤어질 사람과 만나는 곳이고, 나를 감추는 곳이다. 마음껏 자신을 과시해도 되고 악을 저질러도 잘 드러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숨으면 그 뿐이다. 도시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br/> <br/> <br/> <br/> 정광일(65) 목사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장신대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한남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학에서 유학했다. 이 무렵 떼제와 라브리공동체를 순례하며 영성훈련을 받았다. <br/> <br/> 1990년 그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위곡리 한 마을에 정착했다. 세 자녀와 함께 정원을 ‘가꾸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위탁받아 관리하며 자연 속의 나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돕기로 했다. 가락재영성원은 그렇게 시작됐다. <br/> <br/> 신학과 철학을 넘나들며 ‘현대인과 신앙’ ‘한국사회의 윤리적 위기와 기독교’ ‘기독교 유토피아의 가능성’ 등의 저술활동에도 열심인 정광일 목사를 지난 8일 만났다. <br/> <br/> -옛 경춘가도를 타고 왔는데 쭉쭉 뻗은 도로가 아닌 것이 되레 정겹습니다. <br/> <br/>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초가집도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없어지기 직전이었고요. 제 세 자녀가 다니면서 폐교를 면했습니다. 지금은 인구수가 늘고 있어요.” <br/> <br/> -도시의 삶에 익숙한 저로선 오지입니다. 무엇보다 심심할 것 같습니다. <br/> <br/> “많든 적든 산골을 찾아옵니다. 심심하게 사는데 심심하고자 오네요.” <br/> <br/> -한 유명 가수 매니저가 암 선고를 받고 이곳에 머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br/> <br/> “전도사 시절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입니다. 암 말기라 충격이 크셨죠. 선고 받은 직후 ‘목사님 생각이 가장 많이 났다’며 어려운 걸음 하셨어요. 기도하고 자연과 호흡하고 있습니다.” <br/> <br/> -우리는 정작 영성을 얘기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잡히면서 잡히지 않는다고 해야 하나. <br/> <br/> “나무와 집으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가 시간의 영성이라면, 집은 공간의 영성입니다. 나무는 저 자신을 시간으로 묻게 합니다. 나이테는 숨을 쉬는 생명체란 얘기죠. 나무의 뿌리가 중요한 까닭도 수명 때문입니다. 이에 비해 집은 우리로 공간을 묻게 합니다. 집의 크기와 넓이는 집 자체보다 그 안의 공간 구성을 말하죠. 사람의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의 내면성, 즉 몸집 크기가 아니라 마음과 인격 됨됨이의 공간 구성을 말하죠. 따라서 영성은 하나님에 뿌리를 둔 삶의 지향성을 말합니다.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전 3:11)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br/> <br/> -가락재의 나무와 집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br/> <br/>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랑 기쁨 자유를 원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자유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17)라고 했어요. 주의 영이 주어진 곳이 에덴, 곧 자연이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서도 파장이 일고 그 파장이 우리 육신에 들어와요. 저는 하나님의 공간에서 에덴의 자유를 택한 거죠.” <br/> <br/> -성스러움으로 포장된 유행상품이 되버릴 수도 있는데요. <br/> <br/> “32살 때 목사 안수를 준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렇게 살아보리라 다짐하며 성경책 앞장에 쓴 게 있어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영적 교감’ ‘작은 예수 마을’ ‘예수전 쓰기’. 가락재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 살았습니다.” <br/> <br/> -4개동으로 구성된 그리 크지 않은 공간인데 많은 순례객이 오네요. 성서적 의미를 담은 퀼트, 참나무 느티나무 적송 등이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br/> <br/> “쉼과 나눔의 공간입니다. 가정모임과 부부세미나, 신학심포지엄 등이 열리고 있긴 한데, 쉼을 깨뜨린다면 후순위가 됩니다. 자유를 깨닫고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적 재충전 공간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가 프로그램이랄까. 쉬어야 다시 서지요. 한국교회가 그간 공간 확보한답시고 쉼을 빼앗은 건 사실이죠.” <br/> <br/> -가장 기억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br/> <br/> “서울의 제법 큰 교회에서 온 목사초빙위원회 분들입니다. 20여명 가까이 됐는데 참 경건하더군요. 무엇보다 청년 등도 참여시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참 보기 좋았습니다. 지도자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 분을 세우시더군요.” <br/> <br/> -가락재의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가 리더십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쳤겠군요. <br/> <br/> “<span class='quot0'>하나님 뿌리의 소리니까 그렇겠지요.</span>” <br/> <br/> -한국 사회와 교회가 요동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득할 때가 있습니다. <br/> <br/>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를 위해선 믿는 이들이 공동체적 뿌리를 공유해야 합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내 피가 내 피가 아닌 예수의 몸과 피라고 고백해야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며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죠. 미숙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영성을 외쳤지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그쳤어요. 1970∼80년대 교회가 급성장했지만, 물질가치만 키운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제 자기 공간에서 ‘예수 심장의 영성’이라는 위치에너지를 찾아야 합니다. 위치에너지를 찾지 못한 분들이 ‘젊은이를 능가하는 노익장’이라며 과시합니다. 사회와 교회 곳곳에서요.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겸손한 위치에너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br/> <br/> -영성 실천을 위한 제일 조건이 뭘까요. <br/> <br/>“떼제공동체는 하루 세 번 예배 말고는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다만 딱 하나 수백 수천명의 순례자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공간 안에서의 침묵이었습니다. ‘오직 침묵.’ 침묵은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br/> <br/>가평=글·사진 전정희 논설위원 겸 선임기자 <br/> <br/>jhje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2.txt

제목: [속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또 불출석… ‘세월호 당일’ 증언 못 듣는다  
날짜: 20170214  
기자: 고승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01144001  
ID: 01100201.201702141011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br/> <br/>안 전 비서관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는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하지만 안 전 비서관이 지난 5일에 이어 다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헌재가 증인 채택을 철회할지,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로 또 연기할지 주목된다. <br/> <br/>국회 소추위원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에 대해 “<span class='quot0'>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지난 변론기일에서 합리적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취소하겠다고 단호한 방침을 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공언한대로 재판부에서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3.txt

제목: 국민은행, 창구거래 수수료 부과 검토  
날짜: 20170214  
기자: 고승욱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5244001  
ID: 01100201.20170214095244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KB국민은행이 창구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 <br/>국민은행은 14일 “<span class='quot0'>내부적으로 창구거래 수수료 신설을 논의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아직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br/> <br/>국민은행이 검토 중인 창구거래 수수료는 은행에서 입출금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부과하는 개념이다. 씨티은행이 다음달 도입하는 계좌유지 수수료와 비슷하지만 매달 부과하지 않고 창구를 이용할 때에 수수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br/> <br/>국민은행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나왔다</span>”며 “<span class='quot1'>면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국민은행은 이르면 연내 창구거래 수수료를 도입할 계획이다. 신설 수수료는 금융감독원 상품심사를 통과해야 하므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br/> <br/>금감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은행 약관이 구체적으로 제출되면 신설 수수료가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는 고치도록 하겠다</span>”고 전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고승욱 선임기자 swk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4.txt

제목: 우상호 “한국당 약칭 못 써, 자유당이라 쓰겠다”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4244001  
ID: 01100201.20170214094244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약칭으로 정한 것에 대해 “한국당 약칭을 못 쓰겠다. 앞으로 자유당이라 쓰겠다”고 반발했다. <br/> <br/>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span class='quot0'>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span>”면서 이같이 밝혔다. <br/> <br/>그는 “최순실 게이트를 감추기 위해 국호를 동원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온당한 일이냐”며 “아메리카당이 있냐, 니뽄당이 있냐, 영국당이 있냐. 어떻게 국호를 특정 정당 약칭으로 쓸수 있냐”고 비판했다. <br/> <br/>이어 “외국 사람이 뭐라 하겠냐. 대한민국은 한국당 밖에 없는 줄 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맞냐”며 “하다못해 신한국당은 ‘신’을 붙여 피해가는 양심이 있었다. 약칭으로 한국당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r/> <br/>그는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하겠다”며 “언론도 상의해야 한다. 그 당이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한국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코리아파티(korea party)가 돼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25.txt

제목: 게임위,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 포럼 개최  
날짜: 20170214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3944001  
ID: 01100201.201702140939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17일과 3월 10일, 31일 등 3회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다시쓰는 대한민국 게임강국 프로젝트’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br/>이번 포럼은 게임위가 주관하고 국회 김경진(국민의당),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협회장 강신철),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협회장 박성규)에서 후원한다. <br/> <br/>게임위는 이번 포럼을 통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기준 등을 명확히 해 게임산업의 독소를 제거하고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r/> <br/>포럼은 지난 10년간의 게임산업의 정책현안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며 게임분야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다. <br/> <br/>여명숙 위원장은 “<span class='quot0'>게임 내 불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게임의 본질을 흐리는 방해 요소들의 기준을 명확히 해 나쁜 것은 규제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계획</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게임산업이 성장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이용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 투명성을 높여 게임전문 정책 연구 기관으로 거듭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6.txt

제목: S&T그룹, ‘41차 해안누리 국토대장정’ 종주  
날짜: 20170214  
기자: 부산=윤봉학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3144001  
ID: 01100201.201702140931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T그룹은 대한민국 해안도로 종주 프로젝트인 ‘S&T 해안누리 국토대장정’ 마흔 한 번째 걷기를 부산 가덕도 선창마을~대항항 구간에서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br/> 이번 41차 국토대장정에서 S&T그룹 임직원 및 가족 등 500여명의 참가자들은 가덕도 선창마을부터 장항과 아랫마을, 천성항으로 이어지는 해안로를 따라 대항항까지 약 12㎞를 걸었다. <br/> <br/>참가자들은 거가대교가 펼쳐진 부산의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가덕도에서 동료 및 가족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보냈다. 또 팀별 사진 컨테스트 등 이벤트 진행으로 동료들과 함께 팀화합을 다지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열기가 높았다. <br/> <br/>S&T모티브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많은 임직원들이 해안누리 국토대장정을 통해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고, 도전과 소통의 기업문화로 현재의 위기를 돌파해가자는 의지를 공유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br/> <br/>한편 ‘S&T 해안누리 국토대장정’은 2013년 3월부터 시작돼 그동안 총 41차에 걸쳐 1만6300여명이 참가해 545㎞의 해안로를 종주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27.txt

제목: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오늘 두번째 영장심사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0944001  
ID: 01100201.201702140909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br/> <br/> <br/>최 전 총장은 오전 9시20분쯤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수사팀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br/> <br/>최 전 총장은 지난달 2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팀과 사실관계를 다퉜다.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br/> <br/>최 전 총장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김경숙(62·구속기소)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0'>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 없다</span>” “<span class='quot0'>정씨에게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하지 않았다</span>” “<span class='quot0'>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span>”고 진술했다. <br/> <br/>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했다. <br/> <br/>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이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건 최 전 총장이 처음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28.txt

제목: 트럼프 “북한은 큰 문제… 매우 강하게 다루겠다”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0444001  
ID: 01100201.201702140904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span class='quot0'>북한을 매우 강하게 디루겠다</span>”고 강조했다. <br/> <br/>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크고 큰 문제(a big, big problem)다. 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br/> <br/>북한은 지난 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극성-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br/> <br/>지난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다룰 구체적인 전략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안보 라인에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대북 강경파가 포진하고 있다. <br/> <br/>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방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성명을 내고 “<span class='quot1'>미국은 동맹국 일본과 100% 함께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29.txt

제목: “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0344001  
ID: 01100201.20170214090344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배우 유퉁이 오는 3월12일 33세 연하의 몽골 여성인 모이(27 잉크아물땅 뭉크자르갈)씨와 공개 결혼한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모이씨는 유퉁의 8번째 예비신부다.  <br/> <br/>더팩트는 13일 유퉁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는 3월12일 공개 결혼식을 한다고 보도했다. 유퉁은 더팩트에 “<span class='quot0'>말 그대로 그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span>”며 “<span class='quot0'>일구이언 없이 의리 하나로 살아온 나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결혼식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제 더 이상 방황하는 일 없이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겠다</span>”고 말했다. <br/> <br/>33세 연하의 신부이 모이씨와 유퉁은 사실혼 관계로 두 사람 사이에선 7살짜리 딸아이가 있다.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두 차례 결혼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7번째 부인과는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아직까지 법적인 철차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1977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유퉁은 1980년대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전원일기’ 등에 출연했다.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2’, ‘그들도 우리처럼’, ‘조폭마누라2’ 등에 출연했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0.txt

제목: ‘정유라 특혜 의혹’ 첫 재판… 소설가 이인화 법정 나올까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90044002  
ID: 01100201.20170214090044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장 류철균(51·사진) 교수의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br/> <br/>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 관련사건으로는 첫 재판이다. <br/> <br/>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오후 2시10분 류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거 신청을 듣고, 재판 절차를 조율할 방침이다. <br/> <br/>류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공판기일과는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올 의무가 없다. <br/> <br/>소설가로서 필명 ‘이인화’로 더 알려진 류 교수는 정씨가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으로 특혜를 받은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 담당 교수였다. <br/> <br/>류씨는 정씨가 지난해 6월 1학기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S’(합격) 성적을 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또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와 자체 감사, 교육부 특별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정씨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작성하게 하고 기말고사 출석부를 수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br/> <br/>류 교수는 위조한 정씨 명의의 기말고사 시험답안지를 교육부 감사 담당자에게 제출한 혐의도 있다. 감사 당시 조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31.txt

제목: 박근혜 대통령 헌재 출석 여부, 오늘 나온다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5344001  
ID: 01100201.201702140853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소추위원 측이 요구한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14일 열리는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에 내놓을지 주목된다. <br/> <br/> <br/>국회 측은 지난 9일 박 대통령 측에게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인지 이날까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해 출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br/> <br/>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은 최근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관측됐다. 다만 언제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 않아 심리 를 지연시키는 작전이라는 설에 무게가 실렸다. <br/> <br/>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을 열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면 헌재는 무시하기 곤란하고, 결국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하면 일정 차질은 불가피하다. <br/> <br/>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로 선고 시기가 늦춰지면 ‘7인 체제’ 심리로 진행돼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계산과 맞물려 있다. <br/> <br/>하지만 국회가 요구한 이날까지 대통령 측이 의견을 밝히면 돌발 카드 효과를 누릴 수 없다. 오는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계획한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입장을 검토한 뒤 변론기일을 지정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br/> <br/>때문에 박 대통령 측이 국회의 요구대로 14일까지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신 협의 중이라며 답변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 <br/> <br/>헌재는 오전 10시부터 ‘문고리 3인방’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br/> <br/>이어 오후 2시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오후 3시 이기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사장, 오후 4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32.txt

제목: 파키스탄서 밸런타인데이 금지령… “저속한 서구문화”  
날짜: 20170214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4444001  
ID: 01100201.20170214084444001  
카테고리: 국제>중동\_아프리카  
본문: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13일(현지시간) 밸런타인데이가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며 기념행사를 전면 금지했다. <br/> <br/>이슬라마바드 법원은 공공장소에서의 어떠한 밸런타인데이(14일) 기념행사도 금지하며, 언론도 관련 보도를 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판결은 이슬라마바드에서만 적용된다. <br/> <br/>밸런타인데이는 기독교 성인 발렌티노의 축일로 연인 사이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자리 잡았다. 이슬라마바드 법원은 지난해에도 밸런타인데이 금지령을 내렸다. <br/> <br/>이슬람 극우세력은 밸런타인데이를 서구권에서 수입된 저속한 문화라고 비판하지만 파키스탄을 비롯한 중동 전역에서 기념행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br/> <br/>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이슬람국가는 14일을 앞두고 종교 경찰을 배치하거나 선물가게에서 꽃, 붉은색 물건 등 밸런타인데이에 쓰이는 상품을 압수한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33.txt

제목: “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4244001  
ID: 01100201.201702140842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카이자 심복이었던 장시호씨가 자신의 차명회사로 알려진 스포츠 마케팅 회사 ‘더스포츠엠’의 실제 운영자가 최순실이라는 주장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진술서에 형관펜까지 동원해 도표까지 그리며 상세히 설명했다. <br/> <br/>TV조선은 평창동계 올림픽 이권을 겨냥해 설립한 더스포츠엠의 숨은 주인은 최순실이고, 자신은 그림자였다는 주장이 담긴 장시호씨의 자필 진술서를 입수했다며 13일 공개했다. <br/> <br/> <br/> <br/>A4용지 3장 분량의 자필 진술서엔 형광펜까지 이용해 ‘더스포츠엠’에 대한 조직도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장씨는 이모의 지시로 회사를 만들었고 스키단과 동계스포츠단 창단이 목적이었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br/> <br/>장씨는 “최씨가 삼성 때와 같이 어디선가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KT측에서 연락이왔다. 그러나 KT 측의 반대로 KT 스포츠단 창단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후 대표가 어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모 더스포츠엠 대표를 쫒아냈다”고 주장했다. <br/> <br/> <br/> <br/>최씨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기안서를 제출받은 것은 물론 집무실도 사용했다고 적은 장씨는 도표까지 그리며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기술했다. 최씨가 더 스포츠엠의 숨은 주인이고, 장씨는 그림자, 한씨는 바지사장으로 정리된 진술서엔 더 스포츠엠 돈으로 최씨가 독일 비행기표를 구매했다며 날짜까지 제시했다. <br/> <br/>지난달 17일 열린 최씨 등의 1차 공판에서 최씨 변호인 측은 "<span class='quot0'>영재센터 직원들이 장씨가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 운영을 했다고 진술했다</span>"며 장씨가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했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4.txt

제목: 성묘 간 빈집만 골라 털어온 30대 절도범 쇠고랑  
날짜: 20170214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4144001  
ID: 01100201.201702140841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설 명절 연휴기간에 고속버스를 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주로 버스터미널 주변 빈집을 골라 털어온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br/> <br/>광주 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임모(34)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임씨가 훔친 물건을 사들인 장물업자 4명을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버스터미널) 주변 김모(70)씨의 주택을 터는 등 지난 8일까지 광주·부산·전주·정읍의 빈집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귀금속 400만원어치 등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br/> <br/>임씨가 범행을 저지른 곳은 정읍 4건, 광주 2건, 전주 2건, 부산과 익산 각 1건이다. <br/> <br/>전북 정읍에 사는 임씨는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성묘를 떠난 버스터미널 주변 빈집 등을 주로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경찰은 성묘를 다녀온 후 방충망이 뜯겨 있고 옷장과 서랍이 다 열려 있는 등 도둑이 들었다는 피해자 김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br/> <br/>임씨는 지난 8일 오후에도 부산 해운대 주택에서 범행을 한 뒤 정읍으로 돌아오다가 20여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으로 추적에 나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br/> <br/>경찰은 임씨로부터 드라이버와 손망치 등 범행도구와 현금 100만원, 외환 50만우너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5.txt

제목: 카드·보험사 보유 총수들 첫 적격 심사 받는다  
날짜: 20170214  
기자: 김찬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2655001  
ID: 01100201.201702140826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금융 당국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제2금융권)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한다. 지난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삼성·현대차·SK·롯데그룹 등 재벌그룹의 총수들이 심사 대상에 오른다. <br/> <br/>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보험·금융투자회사들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적격성 심사를 받는 대주주가 누구인지 파악해 이달 말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오는 5월쯤 심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적격성 심사의 대상인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최대 5년간 의결권(10% 초과분) 제한 조치를 받는다. 적격성 심사는 2년마다 이뤄진다. <br/> <br/> 그동안 은행·저축은행에만 적용됐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3년 동양 사태를 계기로 ‘오너 리스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br/> <br/> 적격성 심사 대상이 법인일 경우 최대주주 법인의 최다 출자자(개인)가 대상이 된다. 순환출자로 대주주가 없으면 동일인(그룹 총수)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br/> <br/> 금융권에선 대부분 대주주가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부터 심사 대상인 데다 법원 판결로 위법 여부가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배임·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2019년에 이뤄질 적격성 심사에서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의결권 제한조치 등을 받는 대주주가 나올 수 있다. <br/> <br/> 한편 시민단체 등에선 민사소송으로 사회적 신뢰를 잃은 대주주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낸다는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6.txt

제목: “일반인보다 덜 떨어진 XX야” 지적장애인 학대 장면 생중계 한 유튜버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80344001  
ID: 01100201.201702140803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구독자 40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김모씨가 생방송에서 장애인에게 조롱과 욕설을 하는 장면을 생중계해 충격을 주고 있다 .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학대 수준"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br/> <br/>지난 13일 김씨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으로 알려진 이 모씨를 집으로 데려와 욕설을 하며 학대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생중계했다. <br/> <br/>김씨는 이씨에게 “<span class='quot0'>일반인보다 덜떨어진 장애인 XX다</span>”라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냈다. 김씨는 큰 소리로 ‘죄송합니다’를 외치게 하고 10초간 손을 들라며 벌을 주기도 했다. 겁에 질린 이씨는 김씨가 시키는 대로 했다. 심지어 김씨는 “<span class='quot0'>지적장애인인 이씨 때문에 부모님이 손가락질을 받는다</span>”는 인격모독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다. <br/> <br/> <br/> <br/>이씨는 김씨보다 9살이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br/> <br/>“<span class='quot1'>장애인이 잘못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 처벌하게 해야지 조롱과 협박, 비하 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하는 건 인권유린이다</span>” “<span class='quot1'>약자에게 한 없이 강한 유튜버의 모습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span>” 등의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br/> <br/>김씨의 동영상을 구독하는 시청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에서 비판가 더욱 거세다. 김씨는 ‘시키면 한다’, ‘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7.txt

제목: “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75344001  
ID: 01100201.201702140753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가수 이효리의 근황이 화제다. <br/> <br/>코스모폴리탄 코리아 측은 지난 1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건강미 넘치는 늘신한 튀재의 소유자는 누구?”라는 글과 함께 이효리의 화보를 공개했다. <br/> <br/>사진에는 한적한 거리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청바지 하나만 입은 이효리의 뒤태가 담겼다. 구릿빛 피부에 늘씬하고 탄력 있는 몸매가 눈기를 끌었다. <br/> <br/>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39살 맞아?” “감탄했다” “다이어트 자극 된다” 등의 찬사가 쏟아졌다. 지난해 말 키위미디어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은 이효리는 올해 컴백을 예고했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8.txt

제목: “고영태는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개념을 모른다” 반전 녹취록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73844001  
ID: 01100201.20170214073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고영태는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개념을 모른다</span>” <br/> <br/>유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에게 이 같이 말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최순실 대리인단이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국정 농단 사건을 조작했다는 주장과 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 <br/> <br/>JTBC는 지난해 5월3일 최순실씨 측근인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와 유상영 더블루 K부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취록의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br/> <br/>녹취록엔 유 부장이 “영태는 정황을 잘 모르고, 회장님의 푸시에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것 같다. (고씨가) 우리가 만든 매커니즘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br/> <br/> <br/> <br/>유씨는 또 박헌영 전 더블루K 과장에게 들은 말을 전하며 “영태 형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이런 사회적 이슈 같은 것에 개념도 없고 모르는 거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과 독일의 더블루K, 비덱스포츠 등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었다. <br/> <br/>앞서 고 전 이사는 측근들과 함께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려하고 36억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나눠가지려 했던 정황이 포착됀 녹음파일이 공개됐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과 최순실 측은 고씨가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span class='quot1'>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사건이다</span>” “<span class='quot1'>사건의 핵심이 다시 박근혜와 최순실 쪽으로 넘어왔다</span>” “<span class='quot1'>밝히면 밝힐수록 변호인단이 당혹스럽겠군</span>”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39.txt

제목: [손끝뉴스] 추위와 학대에 떠는 유기동물, 구할 방법 없나  
날짜: 20170214  
기자: 이석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70044001  
ID: 01100201.201702140700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석희 기자 shlee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0.txt

제목: 트럼프 "북한을 강력히 다룬다"…강경 대응 선언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61544001  
ID: 01100201.201702140615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다룰 것” 이라고 말했다. <br/> <br/>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span class='quot0'>분명히 북한은 매우 큰 문제</span>”라며 “<span class='quot0'>우리는 매우 강하게 다룰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주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북극성02’형 중장기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방미 중인 아베 일본 총리와 만찬 중이었다. 소식을 접한 두 사람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은 위대한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 한다”고 강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1.txt

제목: ICBM·핵실험… 고강도 추가 도발 주목  
날짜: 20170214  
기자: 김현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555002  
ID: 01100201.20170214050555002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이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올해 첫 도발을 감행하면서 추가 도발 수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북(對北) 선제타격론, 군사적 옵션 카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진행한 것을 볼 때 고강도 추가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br/> <br/> 북한은 13일 관영매체를 통해 전날 발사한 북극성-2형이 채택한 기술과 시험 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고체연료 사용, 콜드런치 방식 등 발사 전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요격회피 기동특성 점검 등 시험 내용도 설명했다. 선제타격론이나 사드(THAAD) 배치 등이 거론되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span class='quot0'>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 공개는 성공을 과시한다는 의미</span>”라며 “<span class='quot0'>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한 조롱의 의미도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 만만치 않은 도발 수단을 첫 번째 카드로 꺼내면서 추가 도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대해 “<span class='quot1'>계속 도발하겠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span>”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이나 공중 기폭 실험 등 기술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시험 발사를 지속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나 6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2'>다음달 한·미 연합훈련 규모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span>”고 밝혔다. <br/> <br/> 하지만 현 시점에선 북한이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span class='quot3'>ICBM은 북한이 쥘 수 있는 가장 영양가가 큰 카드지만 시험 발사가 실패했을 때는 그 자체가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또 김일성 탄생 105주년(4월 15일) 등 각종 기념일에 맞춰 추가 도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신문은 북극성-2형이 “<span class='quot4'>탄생 75돌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께 드리는 가장 깨끗한 애국충정의 선물</span>”이라고 평가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2.txt

제목: [생각해봅시다] ‘혼인세액공제’ 도입한다더니… 취업 조건 내세워 무직자는 대상서 빼  
날짜: 20170214  
기자: 세종=신준섭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555001  
ID: 01100201.20170214050555001  
카테고리: 경제>취업\_창업  
본문: 파견근무차 세종시에 내려와 있는 김모(39)씨는 오는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일하면서 신혼집 구하랴 식장 예약하랴 정신이 없다. 비용 문제로 고민하던 중 작으나마 희소식이 들렸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하는 이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소식이다. 신설되는 ‘혼인세액공제’ 제도가 주는 혜택이다. 하지만 사실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50만원뿐이다. 근로소득자인 김씨와 달리 배우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br/> <br/>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입안·도입할 계획인 ‘혼인세액공제’ 제도는 저조한 결혼 건수와 출산율이 낳은 산물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만 해도 연간 32만2807건이던 결혼 건수는 2년이 지난 2015년 30만2828건까지 줄었다. 2년간 2만건 정도 줄어든 셈이다. 우리나라 출산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출산율은 1.24명에 불과하다. <br/> <br/> 이러한 수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지만 제도의 세부사항을 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결혼할 경우 받을 수 있다. 1인당 50만원씩 세금을 감면해주는 식이다. 즉 ‘세금을 잘 내는’ 맞벌이라야 내년도 연말정산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1명이라도 대상자가 아니라면 김씨의 경우처럼 50만원 감면 혜택에 그친다. 지난해 실업자는 사상 최초로 101만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등을 합한 사실상 백수는 450만명이 넘는다. 직업을 못 구하는 것도 서러운데 결혼 때 국가에서 주는 혜택마저 차별당하는 형국이다. <br/> <br/> 사실혼 역시 논란 소지다.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결혼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이 혼인신고서 제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혼인신고를 종용하는 구조란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혼인신고 대신 결혼증빙서류 제출로 할지 고민했지만 혼인신고서만이 법적근거가 있다고 결론냈다</span>”며 “<span class='quot0'>기준이 엄격한 보조금보다는 정부가 주는 결혼 축의금으로 생각하면 된다</span>”고 해명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효과를 보기 힘든 전시 정책</span>”이라며 “<span class='quot1'>차라리 청년층에 대해 집값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43.txt

제목: 대선 주자는 대부분 등판했는데… 경선은 언제?  
날짜: 20170214  
기자: 정건희 이종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555003  
ID: 01100201.20170214050555003  
카테고리: 정치>선거  
본문: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링에 등판하고 있는데 대진 일정은 안갯속이다. 유력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 당의 경선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모든 경선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탄핵 심판 결과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결정 일정 역시 한동안은 ‘깜깜이’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r/> <br/> 그나마 대략적인 경선 로드맵을 확정한 것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뿐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당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의 ‘빅3’가 모두 전면에 등장했다. 후보 진영 간 경선룰 조율도 일찌감치 마무리했다. 지난달 당 당헌당규위원회에서 완전국민경선을 골자로 하는 ‘19대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을 확정했다. <br/> <br/> 1차 선거인단 모집은 15일 오전 10시 예비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시작돼 탄핵 심판 예정일 3일 전까지 진행된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결정될 경우 인용 다음 날부터 2차 선거인단 모집도 이뤄진다. 당 선관위는 탄핵 인용 이후 4개 지역별 순회경선을 진행한 뒤 전체 득표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4월 초 공식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br/> <br/> 다만 탄핵이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자칫 ‘대선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당과 후보 모두 수위 조절을 고심 중이다. 문 전 대표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3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span class='quot2'>한 손에는 촛불을, 다른 한 손에는 정권교체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계획서를 들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span>”고 밝혔다. <br/> <br/> 그간 ‘제3지대론’과 ‘빅텐트’ 등 다양한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당은 경선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김영환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켜 “<span class='quot0'>3월 13일 이전 경선룰을 마련하겠다</span>”는 큰 틀만 정했다. 최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 통합을 선언하며 당내에서 ‘안철수 대 천정배 대 손학규’의 삼파전이 형성됐다. 그러나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의 합류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당분간은 큰 진전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br/> <br/> 가장 고민이 깊은 것은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다. 대선 준비 자체가 박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만큼 탄핵심판 전 대선 체제를 공식화하기 어려운 처지다. 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아직 경선 방식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다</span>”고 말했다. <br/> <br/> 다만 조기대선에 대비해 경선이 압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준비 작업은 해둔다는 방침이다. 당은 대통령 궐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룰 등을 심의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이날 전국위에서 처리했다. 탄핵 심판일에 임박해 당내 대선준비단을 구성하고 경선룰 논의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br/> <br/> 바른정당은 경선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경선룰 마련에 착수했다. 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신생 정당이다 보니 선거인단 구성보다는 여론조사에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경선룰이 마련될 것</span>”이라고 말했다. 당은 완전국민경선제 방식으로 후보를 뽑기로 남경필 경기지사, 유승민 의원 측과 사전 조율을 마쳤다. 당은 오는 20일까지 경선룰을 확정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정건희 이종선 기자 moderato@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44.txt

제목: ‘순환출자 해소 특혜’ 조사… 뇌물혐의 집중 보강  
날짜: 20170214  
기자: 지호일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356001  
ID: 01100201.20170214050356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죄의 링 위에 다시 마주섰다. 특검은 지난달 1차 구속 실패 이후 20여일간 절치부심한 끝에 이 부회장을 재차 호출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힌 ‘대가 관계 소명 미흡’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br/> <br/>합병 後 순환출자 해소 청탁 주목 <br/> <br/>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의 핵심 사유는 뇌물죄 요건인 대가 관계 및 부정한 청탁 관련 조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특검은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이후 현안으로 부각된 순환출자 문제 해소 과정을 정조준했다. 1차 구속영장 때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합병에 찬성토록 한 과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조사는 합병 이후 후속 조치 관련 특혜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br/> <br/> 특검은 삼성이 청와대를 움직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년 9월 합병 완료로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이라는 순환출자 구조가 강화되자 공정위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1000만주(5.28%)를 매각해야 한다고 삼성 측에 통보했다. 그런데 공정위원장 결재까지 마친 이 사안이 같은 해 12월 500만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이 바뀌었다. <br/> <br/> 특검은 지난 3일 공정위 압수수색에 이어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 정재찬 공정위원장 등을 조사하며 특혜의 배후를 추적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통해 공정위 측에 처분 주식 축소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span class='quot0'>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한 어떤 청탁도, 특혜도 없었다</span>”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br/> <br/>“빈틈 메웠다”…영장 재청구 무게 <br/> <br/> 특검은 지난 9일 최씨를 불러 뇌물 혐의를 추궁했다. ‘관련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였다.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으나 특검은 그를 조사실에 앉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자체에 의미를 둔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아직 성사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의 조사 비협조 행태는 특검에 명분이 될 수 있다. <br/> <br/>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낸 삼성 계열사 6곳의 자금 담당자를 불러 조사하고, 그간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던 공정위 금융위원회 등 금융 당국도 조사했다. 법원이 지적했던 ‘자금지원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보완’ 차원이다. 특검이 추가로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서도 청와대와 삼성 간의 거래를 보여주는 단서가 다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 특검은 이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시의 빈틈을 상당부분 메웠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삼성 측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재계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퇴짜를 맞을 경우 특검으로서도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 등이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지호일 나성원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45.txt

제목: [& And 건강] GMO 제품 아세요?… ‘표시 그물’ 숭숭  
날짜: 20170214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355001  
ID: 01100201.201702140503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pan class='quot0'>유전자변형식품(GMO)을 표시하는 제품도 있어요?</span>” 12일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34·여)씨는 생명과학을 전공했지만 식품을 살 때 GMO 표기를 전혀 살펴보지 않는다며 이렇게 기자에게 반문했다. 그는 “<span class='quot0'>국가에서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줄도 몰랐다</span>”고 너스레를 떨었다. GMO표시제는 엄연히 있지만, 도저히 GMO 표기가 된 식품을 찾을 수 없다. 그물이 헐거워 물고기가 빠져나가듯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표시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기업은 별로 긴장하지 않는다. 여전히 빠져나갈 구멍이 크다. <br/> <br/>김모(56·여)씨는 튀김 요리에 쓸 식용유를 진열대에서 집었다. ‘GMO 원재료가 사용된 줄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몰랐다. 알았으면 고민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콩기름에는 GMO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유전자변형 DNA가 정제되며 남아 있지 않아 GMO 표시에서 제외됐다고 기자가 설명해주었다. 김씨는 “<span class='quot1'>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건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주느냐</span>”고 반문했다. <br/> <b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 등은 2013년부터 3년간 시중에 유통 중인 과자 두부 두유 라면 식용유 장류 당류 빵 건강기능식품 시리얼 팝콘과 각종 통조림 등 681종을 조사했다. GMO 표기가 된 제품은 독일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 하나뿐이었다. 마트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입 과자나 빵 등 가공식품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도 10종의 식품에서만 GMO 표시를 찾을 수 있었다. <br/> <br/>GMO표시제 강화한다 해도 <br/> <b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가공식품에 유전자 변형 DNA나 단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GMO 식품이라고 표시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1∼5순위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들어 있으면 GMO를 표시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사용된 전체 원재료에 표시해야 한다. <br/> <br/> 다만 열처리나 발효 추출 여과 등 고도의 정제 과정으로 유전자 변형 DNA가 남아 있지 않은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지금과 같이 GMO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인 GMO 식품인 수입산 콩과 옥수수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거 제외됐다. 체감상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span class='quot2'>GMO표시제 확대라는 착시를 보이며 국민의 알권리는 더 침해되는 역효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이르면 1주일, 늦어도 상반기 안으로는 새로운 GMO 고시가 적용된 식품을 일반 식료품점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3'>적용되는 식품이 많지 않다는 우려도 있지만 앞으로 수입·제조될 식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수입 GMO 대부분 정제 식품에 <br/> <br/>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식용 GMO는 214만1000t이다. 대두가 98만2000t이고 옥수수는 113만2000t이다. 대두나 옥수수 대부분은 식용유나 간장, 액상과당 등의 가공용 원료로 사용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용 GMO는 없으므로 수입되는 2만7000t 가공식품 등에만 새로운 GMO 표시 제도가 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br/> <br/> 경실련 윤철한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span class='quot4'>GMO 표기에서 정제된 식품을 뺀다는 것은 GMO 표기를 영원히 안 하겠다는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4'>실제로 먹는 제품에 GMO가 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는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고시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span>”라고 주장했다. <br/> <br/> 식약처는 “<span class='quot5'>정제된 식품은 GMO 자체가 파괴돼 안전하다</span>”며 “<span class='quot5'>검사가 불가능한 식품까지 GMO 표시를 의무화하면 비GMO 원료를 사용함에 따라 제품 가격 상승 등의 우려가 있어 소비계층 양극화가 예견된다</span>”는 입장을 보였다. <br/> <br/>GMO 안전성 논란 <br/> <br/> 2012년 프랑스 칸대학 세라리니 교수팀은 실험용 쥐들에게 2년 동안 GMO 옥수수를 먹였다. 그 결과 간, 신장이 손상됐고 종양이 생기는 비율도 높아졌다. 러시아의 예르마코바 박사는 GMO 콩을 실험용 쥐에게 먹인 결과를 2005년 발표했다. 쥐가 임신하기 2주 전부터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동안 GMO 콩가루를 먹였다. 그러자 새끼 중 36%가 저체중이 됐고 55.6%가 3주 만에 죽었다. 보통 콩을 먹고 낳은 새끼 쥐의 사망률 9%, 아무 콩도 먹이지 않고 낳은 새끼 쥐의 사망률 6.8%보다 높은 결과였다. <br/> <br/>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앞선 논문에 대해 “세라리니 교수팀 논문의 경우 유럽식품안전국에서 두 차례 검토했는데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됐다”며 “예르마코바 박사의 연구 역시 실험에 사용한 쥐의 개체수가 적어 의미 있는 결론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부정했다. <br/> <br/> 식약처 관계자는 “<span class='quot3'>식용유나 간장처럼 정제된 GMO 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논문은 없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GMO 원재료에 대한 안전성 심사는 사전에 이뤄진다</span>”며 “<span class='quot3'>GMO 안전성 연구는 현재 과학 수준에서 최선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나마도 대부분 정제해서 섭취하기에 이마저 불안하다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span>”고 말했다. <br/> <br/>모든 식품 완전표시제… ‘비의도적 혼입’ 놓고도 갑론을박 <br/> <br/>유럽연합(EU)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GMO 식품의 본산지이며 자율표시제를 운영하던 미국도 지난해 7월 완전표시제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br/> <br/> 야당과 시민단체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GMO 안전성 논란 등 예외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완전표시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가공식품도 원재료에 GMO 식품이 활용됐다면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br/> <br/> GMO를 독으로 여기는 사회 풍조를 고려해 완전표시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대 여론도 있다. 또 식용유와 전분당 등에는 당과 지방질에 남아 있지 않아 유전자변형 DNA로부터 안전하다는 논리도 있다. 식품업계의 비GMO 사용을 부추겨 가공식품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br/> <br/> 지난해 8월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완전표시제와 더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규정했다. 비유전자변형식품(비GMO) 표시를 하고 싶은 경우 유전자 변형 기술을 사용한 원재료의 혼입률이 1000분의 9를 넘지 않아야 한다. <br/> <br/> 식약처가 지난 4일 발표한 고시에는 비GMO 표시를 하려면 비의도적 혼입도 아예 없어야 한다. 시민단체는 “<span class='quot6'>비GMO 표시를 사용하고 싶어도 비의도적 혼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어길 것이 겁나 표시하지 않는 현상이 우려된다</span>”고 반대했다. <br/> <br/> 유럽은 비의도적 혼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비의도적 혼입치를 0.9%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span class='quot5'>국내에서는 GMO 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해줄 필요가 없다</span>”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은 이 같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따로 병기하자는 안을 발의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46.txt

제목: [친절한 쿡캐스터] 안중근 의사 추모하기 좋은 날…서울 낮 기온 5도  
날짜: 20170214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244001  
ID: 01100201.20170214050244001  
카테고리: 사회>날씨  
본문: 평소 짝사랑하던 이성에게 고백하는 날인 밸런타인데이이자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기도 한 2월14일인 화요일은 비교적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날 하늘에 잔뜩 끼었던 눈구름도 걷혀 쾌청해 졌습니다. 다만 봄의 불청객인 황사가 몰려와 중서부와 호남지방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br/> <br/>기상청이 오전 4시20분 발표한 기상정보에 따르면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br/> <br/>일부 내륙지역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습니다. 오전 4시를 기점으로 주요 지점 가시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이천이 80m, 안성이 140m, 여주가 220m, 충청 세종 연서는 50m, 대전 60m, 공주 80m, 경남 거창은 70m, 전북 완준 70m 등으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 편입니다. <br/> <br/> <br/> <br/>기온은 평년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전 4시30분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2.3도, 강원도 춘천이 영하 6.6도, 강릉이 영하 1.9도. 대전이 영하 1.1도, 전주는 1.3도 부산이 3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br/> <br/> <br/> <br/>여기에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는데요. 서울이 영하 6.3도까지 떨어졌고, 강릉이 영하 4.4도로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춥지 않습니다. 서울이 5도, 강원도 춘천이 6도, 청주가 6도, 대구가 9도, 부산이 11도를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더불어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기에도 제격입니다. <br/> <br/> <br/> <br/>동해안과 경상도, 전라도 일부 지역엔 건조특보도 발효된 만큼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br/> <br/>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치솟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됐지만, 호남권·영남권·제주권은 새벽까지, 경기북부·강원영서·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다 16일 밤부터 차차 흐려져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br/> <br/>◆주의사항◆ <br/>출근길 : 마스크 챙기세요. <br/>등굣길 : 마스크 챙기세요. 얇은 옷 겹쳐 입어요. <br/>산책길 : ★★★☆☆ <br/> <br/>◇국내 최초 모바일 전용 날씨 정보 콘텐츠 [친절한 쿡캐스터]는 매일 아침 국민일보 독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커밍 쑤운~~~!!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7.txt

제목: “계좌 빌려 주면 200만원”… 대포통장 미끼 문자 전담수사관에 덜미  
날짜: 20170214  
기자: 이가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6002  
ID: 01100201.20170214050156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서울 성북경찰서는 대포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무작위로 미끼 문자를 보내다 경찰관에게까지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하루 만에 덜미를 잡혔다고 13일 밝혔다. 문자를 받은 경찰관은 하필이면 보이스피싱 수사만 5년을 전담해온 베테랑 경찰관이었다. <br/> <br/>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4시50분쯤 이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보이스피싱 전담수사관인 오청교 경위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br/> <br/> ‘주류회사 H기업’ 이름으로 발송된 메시지에는 “주류세가 80%를 넘다보니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문자를 보낸다”고 쓰여 있었다. 계좌를 빌려주면 임대비 명목으로 계좌당 매월 200만∼2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모은 계좌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예정이었다. <br/> <br/> 오 경위는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수법임을 눈치 채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오 경위가 어수룩한 말투로 연기하며 “통장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는 얘기냐”고 묻자 상담원은 임대 조건과 근로계약서 등을 언급하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했다. <br/> <br/> 이튿날 오 경위는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주택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전달책 김모(34)씨를 검거했다. <br/> <br/>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달 3일부터 열흘간 총 26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계좌에는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600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었다.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경찰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고 계좌를 빌려준 김모(22)씨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통장을 건네받은 공범과 총책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중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8.txt

제목: [월드 화제] “로또가 인생 망쳤다” 10대 때 복권 당첨자, 유럽 로또 상대 소송  
날짜: 20170214  
기자: 권준협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6003  
ID: 01100201.20170214050156003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10대 때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로또 당첨으로 일확천금의 꿈을 이룬 10대 여성이 의외의 답변을 내놓았다. <br/> <br/> 영국 인디펜던트는 12일(현지시간) 유럽판 로또 ‘유로밀리언’의 영국인 최연소 당첨자가 로또 회사를 과실 혐의로 고소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br/> <br/> 제인 파크(21)는 17세이던 2013년 로또에 당첨돼 100만 파운드(약 14억4000만원)를 받았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은 “로또로 인생을 망쳤다”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털어놨다. <br/> <br/> 파크는 선데이피플과의 인터뷰에서 “<span class='quot0'>로또 당첨으로 인생은 바뀌었지만 행복하지 않다</span>”고 고백했다. 파크는 임시직으로 시급 8파운드(약 1만원)를 벌다가 하루아침에 거액이 생긴 뒤 한동안 돈 쓰는 재미를 누렸다. 가슴 성형과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명품 가방과 옷을 마음껏 사들였다.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다가 일순간에 대형 저택 2채를 보유한 부자가 됐다. 그러나 동시에 불행의 싹도 피어났다. 제인은 “<span class='quot1'>삶이 10배는 더 좋아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돈이 없었다면 인생이 훨씬 더 쉬웠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가장 큰 불행은 극심한 스트레스였다. 제인은 “당첨 뒤 삶이 공허해졌다”며 “<span class='quot1'>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다</span>”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삶이 너무 달라 무섭다”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또래 친구가 없다. 40대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소외감을 드러냈다. 파크는 자동차를 샀지만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인기는 많아졌지만 전부터 사귀던 남자친구와는 헤어졌다. 또 주위에는 돈을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뿐이라고 말했다. <br/> <br/> 파크는 로또를 구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이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16세는 너무 어리다”면서 “<span class='quot1'>최소 18세 이상은 돼야 한다</span>”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재무상담사에 붙잡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상담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로밀리언 측은 “연령 조정은 의회의 몫이고 당첨자들에게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49.txt

제목: [WBC] 여기는 오키나와… 던지고 치고 ‘벌써부터 야구열기 후끈’  
날짜: 20170214  
기자: 오키나와=모규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6001  
ID: 01100201.20170214050156001  
카테고리: 스포츠>야구>한국프로야구  
본문: 한국은 맹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따뜻한 남쪽 일본 오키나와에선 벌써부터 야구 열기가 뜨겁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 대표팀이 전지훈련을 시작했고, 프로야구 각 구단들은 앞다퉈 스프링캠프를 차리고 있다. 오키나와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올 시즌 한국 프로야구의 인기가 달린 셈이다. <br/> <br/> 김인식 감독이 지휘하는 WBC 한국 대표팀은 13일 첫 훈련을 시작했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SK 와이번스가 오키나와 전지훈련 때 홈구장으로 쓰던 구시카와 구장에서 투수조와 타자조로 나뉘어 몸을 풀었다. 투수조는 선동열 투수코치, 타자조는 이순철 타격코치가 선수들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br/> <br/> 대표팀은 3일 훈련, 하루 휴식에 이어 연습경기를 갖는 일정으로 전지훈련 계획을 짰다. 18일까지 구시카와 구장에서 훈련하며 손발을 맞춘 뒤 19일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21일 LG 트윈스 퓨처스팀, 22일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스와 총 3차례 평가전을 갖는다. 대표팀은 23일 귀국한다. 이어 쿠바와 호주, 상무, 경찰청과의 평가전을 차례로 치른 뒤 3월 6일 이스라엘과 서울 고척돔에서 대망의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김 감독은 투수 보직에 대해 “<span class='quot0'>대회 바로 전에 결정이 될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선발과 중간, 마무리가 바뀔 일은 없고 순서나 역할 등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span>”고 소개했다. <br/> <br/> WBC 대회는 프로야구 흥행에 아주 중요한 요소다. 실제 2009년 한국이 제2회 WBC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프로야구는 황금기를 맞았다. 그해 593만명을 동원, 1995년 이후 역대 최다관중 기록을 14년 만에 갈아 치웠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이번 대회는 1라운드를 한국에서 치르는 만큼 국위선양과 프로야구 흥행 지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으면 좋겠다</span>”고 말했다. <br/> <br/> 오키나와는 전통적으로 많은 프로야구 구단들이 전지훈련 장소로 택하고 있다. 10개 구단 중 6개 팀이 이곳을 찾아 구슬땀을 흘린다. 한화 이글스와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가 베이스캠프를 이미 차렸다. 넥센 히어로즈, SK, 롯데 자이언츠는 이달 말 2차 전지훈련 장소로 오키나와를 찾는다. 6개 팀이 맞대결을 펼치는 ‘오키나와 리그’도 예정돼 있다. <br/> <br/> 한화는 이날 우라소에구장에서 열린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 3대 6으로 졌다. 전날 1대 18로 대패한 주니치 드래건스전에 이어 연습경기 2연패를 당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오키나와=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0.txt

제목: 네이버 vs 카카오, 이제 AI서 한판  
날짜: 20170214  
기자: 김준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5001  
ID: 01100201.20170214050155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국내 대표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공지능(AI)에서 진검승부를 벌인다. <br/> <br/> 카카오는 최근 AI 개발을 전담하는 자회사 ‘카카오브레인’을 출범했다. 자본금은 200억원 규모이며, 김범수 의장이 진두지휘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다음과 카카오 합병 이후 뚜렷한 대외활동 없이 ‘운둔’해왔다. IT업계에서는 김 의장이 카카오의 경영은 임지훈 대표에게 맡기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왔다. 김 의장은 전 세계 IT기업의 경연장으로 떠오른 AI를 카카오의 미래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br/> <br/> 카카오는 카카오브레인이 개발한 AI 관련 기술을 카카오톡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인만큼 카카오톡에 AI 기반의 챗봇(대화형 로봇), 쇼핑, 맞춤형 검색 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카카오톡을 AI 기반의 개인 비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브레인의 구체적 활동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br/> <br/> 앞서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프로젝트 J’란 이름의 AI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의 지시로 꾸려진 이 조직은 신중호 라인 글로벌 총괄책임자(CGO)가 이끈다. 따라서 AI 관련 서비스를 네이버와 라인 모두에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네이버는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AI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상반기 중에 AI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고, AI 기반의 번역을 적용한 웹브라우저 ‘웨일’도 공개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번역 앱 ‘파파고’에 AI 기반의 인공신경망 번역(NMT) 기술을 사용 중이다. 또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네이버가 준비 중인 차세대 먹거리 사업에도 AI를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처음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한 네이버는 올해 3월 한성숙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기술 플랫폼’ 회사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준엽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51.txt

제목: 공적자금 ‘묻지마 투입’ 차단 ‘베일 인 제도’ 도입 검토  
날짜: 20170214  
기자: 홍석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5002  
ID: 01100201.20170214050155002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대마불사(大馬不死).’ 이 말엔 대기업, 대형 은행 등이 파산하면 임직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망하는 쪽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손실을 사회 전체가 떠안는 부작용이 있다. 금융 당국이 ‘공적자금 투입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br/> <br/>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올 상반기 중으로 회생·정리계획(RRP) 도입과 관련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핵심은 ‘채권자 손실분담(베일 인·Bail-in)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br/> <br/> 베일 인 제도는 은행에 돈을 맡긴 이들도 피해를 나누자는 게 기본 원리다. 긴급 구제(Bail-out)의 반대 개념이다. 대형 은행이 지급불능 상황에 빠졌을 때 채권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을 상각(장부에서 지워버림) 또는 출자전환(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손실 분담을 강제한다.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br/> <b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논의가 시작됐고 유럽연합(EU) 일부와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도입했다. 미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고 한 ‘도드-프랭크법’으로 변제 우선순위를 정해 베일 인 제도와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br/> <br/> 문제는 범위다.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거나 빌려준 이들 가운데 어떤 채권자까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은행의 무담보 부채 전체를 베일 인 제도에 포함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 금융 당국은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선순위 채권의 베일 인 대상 포함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br/> <br/> 베일 인 제도를 도입하면 정부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시중은행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진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베일 인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의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바깥에 위치한 고액 예금자는 높아진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더 높은 예금 금리를 요구하거나 안전한 은행으로 돈을 옮기게 된다. 심한 경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이 벌어지는 등 금융 시스템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br/> <br/> 베일 인 제도를 국내 금융시장에 도입하기 위해선 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자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 비율이 높은 은행일수록 손실 흡수 능력도 크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비이자 부문 사업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홍석호 기자 will@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52.txt

제목: 홈쇼핑은 판매업? 제조업? 자체상품으로 불황 넘는다  
날짜: 20170214  
기자: 김혜림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155003  
ID: 01100201.20170214050155003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홈쇼핑 업계가 상품 기획 제작 판매까지 직접 하는 자체 브랜드(PB)와 단독상품 육성으로 장기 불황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지난해 홈쇼핑 4사 중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CJ오쇼핑은 그 비결로 PB 상품을 중심으로 한 단독상품을 꼽았다. <br/> <br/> CJ오쇼핑 관계자는 “<span class='quot0'>2016년 ‘글로벌 상품 사업자’로 진화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이후 PB와 단독상품을 기획해 상품 차별화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3분기부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로 전환했으며 영업이익도 크게 개선됐다</span>”고 13일 밝혔다. CJ오쇼핑은 언더웨어 브랜드 ‘피델리아’, 프리미엄 테이블웨어 ‘오덴세’, 화장품 브랜드 ‘SEP’, 다이어트 식품 ‘시크릿’ 등 다양한 PB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베라왕(패션), CNP(화장품), 내셔널지오그래픽(가방) 등 단독상품 매출이 패션·생활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br/> <br/> 다른 홈쇼핑에서도 PB와 단독상품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GS샵의 패션 PB 브랜드 ‘쏘울’은 2012년 첫선을 보인 이후 지난 5년간 누적 주문 2700억원을 달성했다. 이탈리아 유명 쇼룸 ‘스튜디오 제타’를 통해 유럽 유명 편집숍 등에도 입점하는 등 글로벌 브랜드로 발돋움하고 있다. 손정완 디자이너(‘SJ와니’)를 시작으로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 단독상품을 개발해오고 있다. 프랑스 패션 그룹 ‘보마누아’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선보인 ‘모르간’과 ‘브리엘’ 등도 단독상품 브랜드다. <br/> <br/> 현대홈쇼핑은 현대그룹의 패션 브랜드 한섬과 공동 기획한 ‘모덴’과 ‘모덴옴므’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모덴은 지난해 500억원의 매출(총 45만 세트)을 기록하며 현대홈쇼핑 히트 상품 3위에 올랐다. 이밖에 미슐랭2스타 윤미월 명인의 전통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고급 김치 ‘숭침채’, 고농축 제형의 영양 성분이 있는 크림을 단단한 스틱 형태로 만든 ‘써마지 리프팅스틱’ 등을 단독 판매하고 있다. <br/> <br/>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9월 프리미엄 패션 PB 브랜드 ‘LBL’을 첫 방송에서 3시간 동안 110억원어치를 팔아치워 화제가 됐다. 최고급 소재와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LBL’은 지난해 단 4개월 동안 7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밖에 ‘조르쥬 레쉬’ ‘샹티’ ‘다니엘에스떼’ ‘케네스콜’ ‘페스포우’ 등 상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한 단독 해외 라이선스 브랜드들도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br/> <br/> 홈쇼핑이 PB와 단독상품 개발에 공을 들이는 것은 1995년 첫선을 보인 이후 급성장하던 홈쇼핑 시장이 장기 불황으로 수직 성장세가 꺾인 데다 홈쇼핑 채널이 17개로 늘어나 무한 경쟁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br/> <br/> 홈쇼핑 관계자는 “<span class='quot1'>홈쇼핑 노하우가 접목된 자체 브랜드와 단독상품은 홈쇼핑에는 매출 증대를, 소비자들에게는 가성비 높은 상품 구입 기회를 준다</span>”고 말했다. 그러나 유통 채널이 없는 일반 제조업 브랜드들 입장에선 홈쇼핑 입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3.txt

제목: AI 탑재 스마트폰 대전 막 올라  
날짜: 20170214  
기자: 심희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055002  
ID: 01100201.20170214050055002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인공지능(AI) 비서가 손 안으로 들어올 날이 멀지 않았다. 상반기 잇달아 출시되는 갤럭시 S8, LG G6에는 음성인식 기반의 AI 기술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모델에서 LG전자는 Q보이스, 삼성전자는 S보이스를 각각 선보였지만 단순한 음성인식 기능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이용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상호 대화가 가능한 AI 기술이 가시화되고 있다. <br/> <br/>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공개하는 갤럭시 S8에 자체 개발한 AI 기술인 ‘빅스비(Bixby)’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유럽 상표·디자인 네트워크에 빅스비의 상표권 등록 신청서를 냈다. 빅스비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7∼8개 언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이미지에서 갤럭시 S8은 측면에 버튼이 하나 더 있어 빅스비 전용 버튼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br/> <br/> 다만 기대했던 만큼의 AI 기술이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빅스비가 삼성전자의 기존 S보이스 기술 기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수한 AI 플랫폼 업체 ‘비브 랩스’의 기술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S보이스 기반이라는 설명이다. 갤럭시 S3부터 탑재돼 온 S보이스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br/> <br/> 오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공개되는 LG G6에는 구글이 개발한 ‘구글 어시스턴트’가 적용될 전망이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처음 적용된 픽셀폰은 영어와 독일어만 지원한다. 한국어는 아직 지원 대상이 아니다. LG전자가 구글과 손잡고 출시한 스마트워치에도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됐지만 영어와 독일어만 사용할 수 있다. 이외 언어는 간단한 음성 명령만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국내에 G6가 출시되더라도 AI 서비스는 완벽히 활용할 수 없는 셈이다. <br/> <br/> 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0'>G6가 출시된 뒤 3∼4달 있어야 한국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span>”며 “<span class='quot0'>구글 측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한국어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한편 LG전자는 G6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쿼드 DAC(디지털-아날로그 변환기)를 탑재한다. 신형 쿼드 DAC는 좌우 음향을 각각 세밀하게 제어해 사운드의 균형감을 높이고 잡음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쿼드 DAC를 내장한 V20를 출시한 데 이어 G6로 명품 스마트폰 사운드 시장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4.txt

제목: 도입 두달째 ‘스튜어드십 코드’ 찬밥 “국민연금 때문에…”  
날짜: 20170214  
기자: 조효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055004  
ID: 01100201.20170214050055004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논란 끝에 지난해 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몸이 단 금융 당국은 직접 지원 의사까지 내비쳤다. 하지만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나서지 않는 이상 당장 기대만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br/> <br/>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span class='quot0'>스튜어드십 코드 채택과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span>”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를 검토 중인 8곳을 포함해 9개 자산운용사가 함께했다. <br/> <br/>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필요성이 제기돼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이후 캐나다 네덜란드 일본 등 12개 국가로 확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율지침인 만큼 강제성은 없다. 다만 고객들이 기관투자가를 고르는 데 주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관투자가가 기업 지배구조에서 경영진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국내에선 기관투자가들이 기업 주주총회에서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 도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다. 2013년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의결권 행사에 관한 충실 의무’가 명시됐는데도 주총에서 ‘반대 실적’이 아예 없는 자산운용사는 전체의 절반(2015년 기준)에 이른다. <br/> <br/>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논의 단계부터 극렬히 반대했다. 기업경영에 부당 간섭하거나 기관투자가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영국의 경우 실질적인 준수율이 10% 수준에 그친다는 점도 반박의 근거가 됐다. <br/> <br/>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정국으로 급물살을 탔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결국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12월 19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공표됐다. <br/> <br/> 국민연금 덕분에 도입됐지만 발목을 잡는 것도 국민연금이다. 문형표 이사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결정하기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망설이자 다른 기관투자가도 눈치만 보고 있다. 한 금융 당국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당연히 국민연금이 곧장 참여할 걸로 알았다가 일이 벌어진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1'>국민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span>”고 했다. <br/> <br/>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연기금이 주요 동력인 건 맞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기관투자가 참여는 최소 3분기 이후에 가능할 것</span>”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span class='quot2'>기관투자가 입장에서는 ‘고객’인 기업에 싫은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span>”면서 “<span class='quot2'>자본시장법과 함께 적용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지원방안을 검토 중</span>”이라고 덧붙였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55.txt

제목: 순백의 유혹에서 색다른 유혹으로  
날짜: 20170214  
기자: 심희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055001  
ID: 01100201.2017021405005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지난달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열린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베스트바이 매장에는 유독 검은색 가전들이 눈에 띄었다. 특히 주방가전이 모여 있는 공간이 그랬다. 냉장고, 오븐, 쿡탑 등 전시돼 있는 제품들은 대부분 검은색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 내에서 전자제품 유통 1위 사업자다. 베스트바이 매장 관계자는 당시 “<span class='quot0'>블랙 스테인리스 색상은 이미 미국 가전시장에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고급스럽고 차분한 느낌을 줘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span>”고 말했다. <br/> <br/> ‘블랙 가전’ 바람이 미국을 넘어 국내에도 불고 있다. ‘백색 가전’으로 대표되던 생활가전들이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추세다. 흰색 가전에서 스테인리스로 한 차례 흐름이 바뀌었다면 최근에는 블랙 스테인리스가 떠오르고 있다. 이들 색상은 공통적으로 어떤 색상과도 잘 어울리고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같은 블랙 색상도 소재, 질감 표현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프리미엄 제품의 무게감, 고급감을 배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점차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br/> <br/> 프리미엄 제품에서 시작되는 ‘블랙’ 바람 <br/> <br/>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출시한 패밀리허브 냉장고에 ‘블랙캐비어’ 색상을 적용했다. 블랙캐비어 메탈은 삼성전자가 나노 단위의 가공을 통해 개발한 신개념 소재다. 블랙 색상의 냉장고를 원하는 인도 지역의 소비자 요청에 따라 연구가 시작됐다. 당시 디자이너들은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고민한 끝에 이 소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br/> <br/> 은은한 광택이 나는 블랙 색상의 선호도가 높아지자 삼성전자는 액티브워시, 애드워시 세탁기 제품에도 블랙캐비어 색상을 채택했다. 액티브워시는 애벌빨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세탁조 커버에 마련돼 있고, 애드워시는 세탁 중간에도 세탁물을 넣을 수 있는 작은 창문이 나 있다. 제품 사용의 편리함에 더해 소비자가 색상을 고르는 범위를 다변화한 결과 기존 제품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을 준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br/> <br/> 프리미엄 가전에서 블랙 열풍은 특히 두드러진다. LG전자가 프리미엄 브랜드로 내세운 ‘LG 시그니처’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 제품들은 블랙 색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LG 시그니처 냉장고에는 표면에 블랙 다이아몬드 코팅이 적용됐다. 스테인리스 소재와 난방향 공법으로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은은한 광택이 느껴진다. 긁히기 쉬운 냉장고 표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LG 시그니처 세탁기 역시 제품 전체가 블랙 색상으로 마감됐고, 세탁기 도어도 검은색의 강화 유리가 채택됐다. 상단의 21㎏ 드럼세탁기와 하단의 3.5㎏ 미니워시가 결합됐다. <br/> <br/> <br/> <br/> 빌트인도 블랙이 대세…편의성도 호평 <br/> <br/> 빌트인 가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북미 지역은 블랙 색상의 패키지 제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북미형 프리미엄 주방가전 패키지를 메탈과 블랙 스테인리스 두 가지 색상으로 구성했다. 북미 지역은 빌트인 가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조리기기와 식기세척기 등 전체 패키지의 디자인이 블랙 색상으로 통일됐다. LG전자는 미국의 유명 실내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네이트 버커스와 협업한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LG 스튜디오’ 제품들에 블랙 코팅을 더했다. 블랙 스테인리스 스틸 시리즈는 빌트인 냉장고, 더블 월 오븐, 가스·전기 쿡탑,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으로 구성됐다. <br/> <br/> 블랙 가전은 외관뿐 아니라 지문이 잘 묻지 않는 등 편의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다. 기존 스테인리스 가전은 지문이나 얼룩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광택이 나는 소재로 지문이 더 부각되기도 했다. 반면 블랙 스테인리스 소재는 색상이 어둡고 반사가 적어 지문이나 얼룩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주방에서는 소스나 오일 등 이물질도 쉽게 닦여 관리하기도 간편하다. LG전자는 기존 스테인리스 제품에 블랙 색상의 보호 코팅을 더해 이 같은 특징을 더욱 강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6.txt

제목: 요람에서 大卒까지… 자식농사에 허리 휜다  
날짜: 20170214  
기자: 김동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50055003  
ID: 01100201.20170214050055003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중소기업 직원 이모(30)씨의 부인 김모(31)씨는 지난해 3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14개월 된 아들의 육아를 위해서다. 보모를 둘까도 생각했지만 월 200만원 가까운 비용도 부담됐고 믿을 만한 보모를 만날 확률도 뽑기에 가까워 자신이 안 섰다. <br/> <br/> 최대한 적게 쓴다고 노력했지만 이유식과 기저귀 비용으로만 한 달에 20만원을 썼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정서 개발 교육 프로그램에도 20만원을 쓴다. 부인 김씨가 직장을 그만두며 포기한 기회비용은 300만원 정도다. 그는 “매달 15만원가량 나오는 육아보조금이라도 증액해줬으면 좋겠다”며 “혼자 벌어 전세금 대출 갚고 육아비용 내고 나면 6000원 점심 사 먹기도 버겁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이씨는 육아비용과 주택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회사에 요청해 지방으로 내려갔다. <br/> <br/> 대한민국 가계 지출의 31%가 육아에 들어간다. 지난해 대학 등록금은 1인 평균 667만원에 육박했다. 자녀교육을 위해 십수년 돈을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건 최악의 청년 취업난이다. ‘요람에서 대졸’까지 부모의 허리가 휜다. <br/> <br/> 여성가족부는 출산 계획이 있거나 임신 중인 예비모와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육아문화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액 345만8000원 중 육아 비용은 107만2000원이었다. 33.3%가 육아비용이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고, 56.7%는 조금 부담된다고 답해 90% 이상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하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회조사 통계에 따르면 “<span class='quot0'>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span>”고 응답한 가구주는 65.3%였다. 교육비 지출 중 학원비 등 보충 교육비가 62.1%였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30대와 40대는 보충 교육비 부담이 각각 92.8%, 74.2%였다. <br/> <br/> 참교육학부모회 나명주 수석부회장은 “<span class='quot1'>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체험학습비 등 학교에 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보통 고등학생은 70만∼80만원, 중학생은 40만∼50만원이 든다</span>”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1'>교복도 메이커에 따라 질이 다르고 천차만별인데 아이는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고 학부모는 그렇게 못할 때 자괴감이 들어 부담감이 크다</span>”며 “<span class='quot1'>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이기에 국가가 나서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span>”고 덧붙였다. <br/> <br/> 권모(58·여)씨는 퇴직 후에도 서울에 보낸 아들의 등록금과 하숙비를 마련하고 있다. 아직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퇴직금으로 1학기 360만원 하는 등록금을 마련해야 했다. 학자금대출도 800만원 받았지만 아들이 졸업을 미뤄 9학기째 등록금을 내는 바람에 여전히 힘겹다. 그럼에도 남들처럼 용돈을 챙겨주지 못해 안쓰러울 따름이다. <br/> <br/> 교육부는 지난해 180개 대학교 1년 평균 등록금이 667만5000원이라고 조사했다. 지난해 대학생 58.0%는 부모 도움으로 등록금을 마련했다. 10.7%는 대출, 6.4%는 스스로 벌어서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은 24.7%에 그쳤다. <br/> <br/>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은 2년(2015∼2016년) 연속 22%를 기록했다. 실질실업률은 이미 2014년에 30%를 넘었고, 청년실업자는 2015년 50만명을 넘어섰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57.txt

제목: 이재용 15시간 고강도 조사… 귀가 않고 서초동 집무실로  
날짜: 20170214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15544001  
ID: 01100201.20170214015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검에 재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15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14일 새벽 새벽 1시 5분께 특검 사무실을 나선 이 부회장은 귀가하지 않고 서초동 집무실로 향했다. <br/>이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나' '박근혜 대통령 독대에서 순환출자 관련 이야기를 나눴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대기 중인 차량에 올랐다. <br/> <br/>이 부회장은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초사옥에 마련된 집무실로 즉시 출근했다. 이른 새벽시간이지만 출근 이후에는 주요 임원들과 특검에 대한 대비와 향후 계획에 대한 회의도 열 것으로 알려졌다. <br/> <br/>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을 비롯해 대부분 임직원은 서초사옥에서 대기했고, 일부 임직원들은 특검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웠다. <br/> <br/> <br/> <br/>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 기각 후 새롭게 포착한 뇌물죄 혐의와 관련된 단서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삼성그룹은 공정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뒤 신규 순환출자고리 문제에 대해 조사에 나서자 청와대가 이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span class='quot0'>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span>"고 부인했다. <br/> <br/> <br/> <br/>'삼성 국정농단 터진 이후에도 30억원 명마 지원', '말 중개상을 통해 우회지원했다'는 등 보도와 관련, "삼성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순실에 대해 추가 우회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 구입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br/> <br/>특검은 이 부회장만 신병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백지화하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 사장, 황 전무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삼성 임원들 신병처리는 이번 주 중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이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8.txt

제목: 안희정 "100% 승리 확신"… 김대중·노무현보다 나은 점은  
날짜: 20170214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13044001  
ID: 01100201.20170214013044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span class='quot0'>야권의 DNA는 도전과 역전</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승리에 대한 나의 확신은 100%</span>”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br/> <br/>안 지사는 14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이 자리에 서니 마음이 떨린다. 국민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r/> <br/>안 지사는 고(故)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 나은 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대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보면서 결심한 것이 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답했다. <br/> <br/>이어 안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은 외로운 후보였고, 후보 지위까지 흔들리면서 어렵게 됐던 분”이라며 “(당시) 내각을 꾸릴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했다. 민주적인 10년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을 지나면서 좀 더 많이 훈련받은 분들이 곳곳에 있다"며 시대적 차이점을 설명했다. <br/> <br/> <br/> <br/>사드배치로 인한 국내외 논란에 대해 안 지사는 "<span class='quot0'>안보체계가 전략적 한미동맹의 틀내에 짜여 있는 만큼 동맹체제 내에서 논의해야해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국제정세에서 찬반논리로 얘기하기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안보와 안전, 이익에 유리하게 정부를 이끌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안 지사는 만연한 갈등을 해소할 해법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들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풀 수 있다”며 “만약 민주주의 지도자 자격증이 있었다면, 나는 특급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br/> <br/>그러면서 "평범한 시민의 상식으로 충분히 이해되는 지도자로 기억되고 싶다"며 "평범한 우리의 상식을 배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59.txt

제목: [여자프로농구]PO 티켓 전쟁, 끝나봐야 안다  
날짜: 20170214  
기자: 박구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4855001  
ID: 01100201.20170214004855001  
카테고리: 스포츠>농구\_배구  
본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br/> <br/> 여자프로농구(WKBL) 아산 우리은행이 올 시즌 정규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했고 용인 삼성생명이 2위 굳히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머지 팀들이 치열한 ‘3위 싸움’을 펼치고 있다. 3위와 공동4위 세 팀의 승차는 불과 0.5경기여서 마지막 플레이오프 티켓인 3위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 피를 말리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br/> <br/> 2위 삼성생명은 16승 13패로 3위인 구리 KDB생명을 4.5게임차로 여유있게 따돌리고 있어 남은 6경기에서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한 2위 확보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외국인 선수 엘리사 토마스와 나타샤 하워드, 고아라, 박하나, 배혜윤 등 주전 선수 전력이 타 팀보다 한발 앞선다. 박하나는 최근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으로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하워드가 최근 옆구리 부상을 당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게 불안요소다. <br/> <br/> 중하위 팀들의 승부가 흥미진진해진 것은 꼴찌가 확정적으로 보였던 청주 KB 스타즈의 뒤늦은 분발 때문이다. <br/> <br/> KB는 13일 구리시체육관에서 74대 67로 KDB생명을 이겼다. 플레넷 피어슨이 23득점, 강아점이 21점으로 활약했다. KB는 11승 18패를 기록해 인천 신한은행, 부천 KEB하나은행과 공동 4위로 올라섰다. 1월까지 8승 17패로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물가물했지만 2월 이후 3승1패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로써 팀별 5∼6경기씩을 남겨둔 상황에서 3위 싸움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br/> <br/> KB 상승세의 중심에는 ‘거물 신인’ 박지수(19)가 있었다. 박지수는 부상 탓에 복귀전이 늦었지만 13일 경기에서 9점 13리바운드를 기록하는 등 16경기에서 평균 10.3점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리바운드(11.2개)와 블록슛(2.26개)은 국내 선수 중 1위다. 특히 지난 3일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국내선수로는 사상 두 번째로 ‘30득점, 20리바운드 이상’(30-21)을 기록하며 최강팀을 격침, 농구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br/> <br/> KB는 또 초반 혼선을 겪은 박지수 활용법을 어느정도 찾으면서 팀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더블포스트인 박지수와 외국인 선수 피어슨의 활약이 갈수록 빛을 발하는데다 이를 통한 주포 강아정의 득점도 원활해지고 있다. ‘땅콩 가드’ 심성영이 임의탈퇴한 가드 홍아란의 공백까지 완벽하게 메우고 있다. 다만 고질적인 실책이 문제다. KB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평균 15.17개(444개)의 실책을 기록 중이다. <br/> <br/> 5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KDB생명은 12승 18패로 3위다. 외국인 선수 카리마 크리스마스가 제몫을 해내고 이경은 한채진 등 베테랑 선수들이 노련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강점이다. 다만 3, 4쿼터 승부처에서 집중력 부족으로 주저앉는 경우가 종종 나온다. <br/> <br/> 신한은행은 최근 4연패로 하락세다. 경기당 14.72점으로 국내 선수 중 득점 1위인 김단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지난 9일 외국인 선수 알렉시즈 바이올레타마를 기량미달로 퇴출하는 승부수를 띄웠다. 하지만 아직 대체 선수를 검토 중이어서 당분간 홀로 뛰는 데스티니 윌리엄즈의 체력이 관건이다. <br/> <br/> 하나은행도 주포 강이슬이 평균 35분 30초를 소화하며 팀을 이끌고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많아 승부처에서 경기력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60.txt

제목: 문재인, 전직 장차관급 60명‘매머드 자문기구’ 띄웠다  
날짜: 20170214  
기자: 최승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4355001  
ID: 01100201.20170214004355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직 장차관급 인사 60여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자문기구’를 띄웠다. 대세론 굳히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br/> <br/> 문 전 대표는 13일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장관과 차관을 지낸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10년의 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4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br/> <br/> 공동위원장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이 맡기로 했다. 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김성진 전 여성부 차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이름을 올렸다. <br/> <br/> 문 전 대표 측은 “<span class='quot0'>민주정부 10년의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인 조언과 자문활동을 통해 문 전 대표의 집권비전과 성공적 국정운영에 필요한 지원 활동을 해 나갈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야권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 경험을 가진 문 전 대표가 안정적 수권비전을 제시하는 데 일조한다는 취지</span>”라고 설명했다. <br/> <br/> 문 전 대표는 앞서 교수 900여명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국민성장’과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호남 인사가 대거 포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발표했다. 이번 대규모 자문그룹 발표는 학계와 호남은 물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을 이어받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br/> <br/> 문 전 대표는 ‘호남 총리’ 임명도 시사했다. 그는 전날 방송 출연에서 “<span class='quot0'>내가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지역적으로 탕평과 국민통합을 이루는 분이었으면 한다</span>”고 말한 데 이어 13일에도 “<span class='quot0'>총리 인선부터 탕평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다</span>”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15일 사흘 만에 다시 호남을 방문한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61.txt

제목: 尹외교 “방위비 협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될 듯”  
날짜: 20170214  
기자: 조성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3755001  
ID: 01100201.20170214003755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3일 미국 행정부가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개시 시기에 대해 “<span class='quot0'>빠르면 올해 말, 통상적이라면 내년 초가 될 것 같다</span>”고 밝혔다. <br/> <br/> 윤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span class='quot0'>(협상 시작 시기가) 조금 당겨질지 모르지만 현시점에서는 (미국의) 구체적인 논의 제의는 없었다</span>”고 말했다. 2014년부터 적용된 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2018년까지 적용되며, 2019년부터는 새로운 협정에 따라 분담금이 결정된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62.txt

제목: '신상 유포한 장애인'에 욕설한 유명 유튜버… 사과했지만  
날짜: 20170214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3144001  
ID: 01100201.20170214003144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구독자 4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 유명 유튜버가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분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r/>13일 유튜버 김 모씨는 자신의 신상을 유포한 범인을 잡았다며 직접 대면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씨는 부모까지 언급하며 욕설을 쏟아냈다. 이 장면은 신상유포자의 이모부도 옆에서 지켜봤다. <br/> <br/>이 영상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다. 네티즌들은 김씨가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br/> <br/> <br/> <br/>이에 김씨는 해명 방송과 글을 통해 “<span class='quot0'>정신지체를 앓는 장애인이 내 계좌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해 주민번호와 집 주소 등을 퍼트렸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고통을 받았다</span>”며 “<span class='quot0'>신상 유포자의 아버지가 연락해 사과 방송을 하게 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못할 말을 했다. 똑같이 당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부터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겠다”고 사과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63.txt

제목: 특검이 삼성 화력 집중 이유… ‘삼성 수사=재벌 수사’  
날짜: 20170214  
기자: 정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555001  
ID: 01100201.201702140005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뇌물혐의 수사는 향후 다른 대기업 수사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 수사에서 ‘대기업=피해자’라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프레임을 뒤집어야 나머지 기업에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 뇌물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다. <br/> <br/> 특검은 지난해 12월 현판식 이후 기업 분야 수사에서는 모든 화력을 삼성에 집중하고 있다. 애초 수사대상으로 거론됐던 다른 대기업들은 특검의 수사대상 순위에서 뒤로 밀려 있다. 총수 사면을 대가로 최순실씨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SK와 CJ,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추가 출연금을 돌려받은 롯데 등이 주요 타깃으로 언급됐다. 그러나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특검 수사대상에 오르내리지 않고 있다. <br/> <br/> 삼성은 다른 대기업에 비해 최씨 일가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도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으며 직접 최씨의 독일 비덱스포츠를 지원하기도 했다. <br/> <br/> 당시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였다. 이를 최씨 일가 지원과 동전의 양면으로 붙여서 보면 대기업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깰 수 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의 이런 판단을 법원이 인정해 이 부회장이 구속된다면, 다른 기업에는 같은 판단을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br/> <br/> 특검의 계획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어그러졌다. 다른 대기업 사안에 투입했어야 할 수사력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수사에 투입됐다. 이 부회장은 물론 박상진 사장 등 핵심 임원까지 다시 불러 혐의의 공백을 메우는 데 매달렸다. <br/> <br/> 특검이 이 부회장 재소환에서 뇌물죄 혐의 입증에 성공할 경우, 나머지 대기업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수사기간 중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기업 수사는 검찰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64.txt

제목: 서울시, 비정규직·알바생 등 ‘乙’위한 정책 확대  
날짜: 20170214  
기자: 라동철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555002  
ID: 01100201.201702140005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 인근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가 문을 연다. 7월부터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적정임금제가 전면 시행되고 자영업근로자나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융자가 실시된다. <br/> <br/> 서울시는 경제적 약자인 ‘을(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br/> <br/>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2년차를 맞아 올해 7개 과제를 추가해 총 23개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7일 서교동 서교예술실험센터에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의 문을 연다. 센터에서는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 법률 상담 및 조정, 서식 작성 등을 지원하고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br/> <br/>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 상품이 오는 3월 출시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할 계획이다. <br/> <br/>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도 지난달부터 온(albaright.com)·오프라인(120다산콜 등) 1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br/> <br/> 지난해 전국 시·도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던 성과공유제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 확산된다. 성과공유제는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위탁기관 상생경제모델이다. <br/> <br/> 지난달 국내 최초로 서울연구원에서 도입한 근로자이사제는 올해는 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체로 확대된다. <br/> <br/> 창업·중소기업의 기술 유출·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단도 운영한다. 7월부터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를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서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br/> <br/> 지난해 추진한 16개 과제는 성과를 강화하고 한계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경영 전문컨설턴트가 골목상권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새로 도입하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오후 8시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br/> <br/>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span class='quot0'>올해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있는 을(乙)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65.txt

제목: 안철수 “내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안 도와줬다는 주장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날짜: 20170214  
기자: 백상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455002  
ID: 01100201.20170214000455002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3일 호남을 방문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안 전 대표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돕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span class='quot0'>그런 말은 짐승만도 못한 것</span>”이라고 말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도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향해 “<span class='quot3'>언제부터 중도였느냐</span>”고 몰아세웠다. <br/> <br/> 안 전 대표는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광주·전남언론포럼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2012년 대선 때) 전국유세를 비롯해 선거 전날까지 최선을 다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 ‘표현이 세다’는 질문에 “갈수록 세진다”고 답변해 의도적인 발언임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안 전 대표의 ‘짐승’ 발언에 대해 “그냥 넘어가죠”라며 말을 아꼈다. <br/> <br/> 안 전 대표 발언은 야권 텃밭인 호남 민심을 두고 문 전 대표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지율 10%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 전 대표에게 호남은 최후의 보루와 같다.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가 12일 전북에서 “<span class='quot1'>호남 홀대나 호남 소외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겠다</span>”고 약속하자 안 전 대표가 맞불작전을 펼친 셈이다. <br/> <br/> 국민의당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안 전 대표 성격상 ‘짐승’이란 표현을 꺼내기는 어려웠을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2'>문 전 대표와 쌓이고 쌓인 게 폭발했다</span>”고 설명했다. 지난달 문 전 대표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span class='quot1'>안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때 함께 선거운동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span>”고 하자 안 전 대표는 “<span class='quot1'>인류 역사상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span>”고 쏘아붙였다. 안 전 대표는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도 “<span class='quot0'>참여정부의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핵심세력 간 적통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span>”며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를 함께 비판했다. <br/> <br/> 손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 지사를 향해 “‘노무현·문재인 키즈’의 대표적 사람이지 <span class='quot3'>언제부터 중도였느냐</span>”고 비판했다. 대연정론 등을 제기하며 중도적 이미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안 지사의 정체성 문제를 꺼내든 것이다. 안 지사가 자신을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손 의장은 또 “<span class='quot3'>(안 지사는)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의 홍위병으로 시작하지 않았느냐</span>”고도 했다. 손 의장은 오는 17일 국민의당에 공식 입당할 예정이다. <br/>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66.txt

제목: [헬스 파일] 하지정맥류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356001  
ID: 01100201.20170214000356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하지정맥류는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인 정맥 내 판막(밸브)기능에 이상이 생겨 푸른 핏줄이 힘줄처럼 불거지는 일종의 혈관기형이다. 판막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혈액과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만나 특정 혈관 내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정맥이 부풀어 오르게 된다. <br/> <br/> 물론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모두 육안으로 보일 만큼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아니다. 혈관이 구불구불 튀어나오는 증상이 없는 하지정맥류도 있다. 특히 관통(貫通)정맥의 판막에 이상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부 가까이 위치한 표재(表在)정맥 역시 판막기능에만 문제가 있을 뿐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관통정맥은 심부(深部)정맥과 표재정맥을 연결하는 혈관이다. <br/> <br/>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계속 이어지거나, 발바닥이 후끈거리는 경우, 쥐가 자주 나고 저림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단순히 피로가 누적된 탓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혈관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이다. <br/> <br/> 태생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이 약한 경우 하지정맥류 발병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정맥류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경우 자신도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br/> <br/> 특히 직업적으로 오래 서있거나 심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비만한 사람은 하지정맥류 발생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임신도 하지정맥류를 부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신 초기 분비되는 호르몬이 정맥의 수축을 방해하며 하지정맥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br/> <br/> 하지정맥류는 초기엔 굳이 수술을 하지 않고 압박스타킹을 착용하거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쉽게 개선할 수 있다. 까치발 운동은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 까치발을 함으로써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일 때 다리 근육이 정맥의 피를 심장 쪽으로 밀어 올려주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빨리 걷기도 하지정맥류 예방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 <br/> <br/> 날씬해 보이기 위한 보정 속옷을 착용하거나 허리띠를 꽉 조이는 경우 복압 상승으로 인해 정맥순환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복압을 높이는 옷은 되도록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최영수 서울부민병원 외과 과장, 삽화=전진이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67.txt

제목: 당뇨 환자들, ‘신생혈관 녹내장’ 조심하세요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356002  
ID: 01100201.20170214000356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당뇨망막증이 ‘신생혈관 녹내장’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당뇨 환자는 평소 망막뿐만 아니라 안압 이상과 시신경 손상 여부도 정기검진을 통해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br/> <br/> 김안과병원은 녹내장센터 황영훈 교수팀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4개월간 신생혈관 녹내장 진단을 받은 안질환자 533명을 대상으로 발병 원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조사결과 신생혈관 녹내장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질환으로는 당뇨망막증과 망막정맥폐쇄증, 안구허혈, 망막박리, 포도막염 등이 꼽혔다. 이중 가장 흔한 원인은 신생혈관 녹내장 환자 전체의 63%에서 발견된 당뇨망막증이었다. 이는 신생혈관 녹내장 환자의 약 33%만이 당뇨망막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양인보다 배가량 높은 발생빈도다. 속칭 눈 중풍으로 불리는 망막정맥폐쇄증은 19%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br/> <br/> 황 교수팀은 한국인 신생혈관 녹내장의 주원인인 당뇨망막증과 망막정맥폐쇄증 등의 임상적 특징도 비교했다. 그 결과 당뇨망막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망막정맥폐쇄증 등 다른 질환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신생혈관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뇨가 있으면 당뇨망막증에 이어 신생혈관 녹내장을 합병, 실명할 위험이 배가된다는 뜻이다. <br/> <br/> 녹내장으로 시신경이 손상되면 회복할 수 없게 되므로 가능한 한 발병 초기에 발견, 진행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당뇨 환자가 어떻게든 당뇨망막증과 신생혈관 녹내장을 막아야 하는 이유다. <br/> <br/> 황 교수는 “신생혈관이 발생했지만 아직 안압은 그리 높지 않은 초기 단계엔 시야협착 등 녹내장 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당뇨 환자들은 시력보호를 위해 평소 특이한 눈 이상 증상 발생과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신생혈관 녹내장 발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도서관이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68.txt

제목: 병원 안가도 뇌 건강 인지기능검사 가능하다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355002  
ID: 01100201.201702140003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굳이 대학병원을 찾지 않고도 뇌 신경계와 인지기능에 무슨 이상이 생긴 게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br/> <br/> 더봄 뇌건강 신경심리센터(대표 이혜미·사진 왼쪽) & 인지재활연구소(소장 안이서)는 13일, 고령화시대에 계속 증가하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등 뇌질환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인지기능평가와 재활훈련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br/> <br/> ‘더봄’은 임상 또는 인지심리학을 전공하고 국내 대학병원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에서 다년간 임상경험을 쌓은 심리분석 전문가들이 신경심리 검사와 인지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곳이다. <br/> <br/> 신경심리평가와 인지재활훈련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 의료기관을 벗어나 독립적으로 문을 열기는 이곳이 처음이다. 더봄의 비전과 목표는 ‘더 건강한 뇌, 더 평안한 마음, 더 행복한 삶’이다. <br/> <br/> 이혜미 더봄 대표는 “<span class='quot0'>고령화시대 현대인이 나이 들어서도 뇌 기능을 좀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뇌 건강을 보살피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span>”고 말했다. <br/> <br/> 이 대표는 안이서 인지재활연구소장과 더불어 나덕렬, 서상원 교수팀이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신경심리검사실서 각종 뇌질환 환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며 진단, 치료하는지를 겪으며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은 신경심리 분석 전문가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69.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100) 중앙대병원 신경과 뇌졸중예방클리닉] ‘비타민D -뇌졸중 관계’ 첫 규명  
날짜: 2017021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355001  
ID: 01100201.201702140003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중앙대학교병원 뇌졸중예방클리닉은 보건복지부 선정 6회 연속 뇌졸중 치료 1등급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된 곳이다. 이 병원은 지금 뇌졸중 전문 박광열(47), 김정민(39) 신경과 교수팀과 전문 간호사 4명, 연구 간호사 1명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신경학적 변화와 심전도, 혈압, 부정맥 등을 지속적으로 보살펴주는 집중치료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br/> <br/>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뇌졸중에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두 종류가 있다. 어느 것이든 반신마비, 언어장애, 혈관성 치매를 후유증으로 남길 수 있다. 또한 환절기 돌연사를 유발하는 주원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고 발병 즉시 곧바로 가까운 병원의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를 찾아 뇌혈관질환 전문가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다. <br/> <br/> 박광열 교수는 13일, “<span class='quot0'>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기능이 저하되는 뇌졸중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다 해도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병</span>”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r/> <br/> 발병 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 움직이기가 어렵게 되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 한쪽 눈 또는 양쪽 눈이 흐리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증상,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남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증상, 갑자기 망치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심하게 아픈 증상, 어지럽거나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 증상 등이다. <br/> <br/> 현재 박 교수팀을 찾아 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8세다. 박 교수팀은 고령화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뇌졸중 환자의 연령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br/> <br/> 중앙대병원 뇌졸중예방클리닉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대뇌 소(小)혈관 질환 치료를 특화했다는 것이다. 소혈관 질환이란 지름이 0.1∼0.4㎜ 정도밖에 안 되는 소혈관에 생긴 병을 가리킨다. <br/> <br/> 박 교수는 “우리가 경계하는 뇌졸중의 상당수도 소(小)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대뇌 소혈관질환이 고혈압성 뇌출혈과 ‘열공(裂孔)경색’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열공경색은 뇌경색증의 한 유형으로 한국인 뇌경색증 환자의 약 30%에서 발견된다. <br/> <br/> 박 교수팀은 10여 년 전부터 한국인에게 왜 이렇게 대뇌 소혈관 질환이 많은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해왔다. 그 결과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함에 따라 소혈관이 터져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됐다. <br/> <br/> 그렇다면 왜 뇌혈관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비타민D 부족에 있었다. 박 교수는 김정민 교수와 함께 2015년 대뇌 소혈관질환을 가진 환자의 경우 비타민D 수치가 저하돼 있고, 비타민D 수치가 저하된 뇌경색 환자는 뇌 기능 회복 정도가 좋지 않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규명, 뇌졸중 전문 국제 학술지 ‘스트로크(Stroke)’와 ‘세레브로바스큘러 디지즈’에 잇따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br/> <br/> 이 연구는 중앙대병원 뇌졸중예방클리닉에서 치료를 받은 뇌졸중 환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뇌졸중 환자의 84%는 혈중 비타민D 수치가 20ng/㎖ 이하로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약 37%는 10ng/㎖ 이하로 결핍 상태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뇌졸중 예방을 위해선 적당량의 비타민D 섭취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br/> <br/> 중앙대병원 뇌졸중예방클리닉의 또 다른 특징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이 필요할 때 뇌졸중 특화 진료팀이 유기적으로 협력,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이 협진에는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뇌졸중 진단 및 치료와 관련이 있는 교수들이 모두 참여한다.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이는 반면 합병증 및 후유증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다. <br/> <br/>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은 혈관을 가로막아 피돌기를 방해하는 혈전을 녹이거나 제거하는 치료를 말한다. 박 교수팀은 뇌경색 발생 2시간 이내의 초급성기 환자 모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혈전용해술을 받은 환자는 그만큼 뇌세포 손상을 막을 수 있어 그렇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후유장애도 적게 겪는다는 것을 몸소 확인했기 때문이다. <br/> <br/> 박 교수팀은 신규 뇌졸중 환자를 만나면 일단 혈압과 체온, 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원인 규명에 필요한 뇌 사진을 찍는다. 치료에 앞서 시행하는 뇌 사진 촬영은 CT, MRI, 혈관조영술(혈관에 조영제를 투입해 방사선으로 촬영하는 검사), 뇌혈류초음파(뇌혈관의 혈류 흐름 및 속도 검사) 등으로 한다. <br/> <br/> 뇌졸중은 ‘침묵의 저격수’란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급작스레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리 위험요소를 파악해 관리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박 교수팀은 뇌졸중에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다음 8가지 사항을 실천하도록 뇌졸중예방클리닉 방문자에게 권하고 있다. <br/> <br/> 첫째는 금연 실천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졸중의 발생률이 2배 높다. 둘째는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 셋째는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것이다. <br/> <br/> 넷째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다섯째는 적정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정기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이 있을 경우 꾸준히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다. <br/> <br/> 마지막으로 여덟째는 뇌졸중 발병이 의심될 때는 즉시 뇌혈관질환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특히 뇌졸중 위험요인(고령, 당뇨, 고혈압, 부정맥, 고지혈증, 비만, 음주, 흡연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하찮아 보이는 증상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병원을 방문, 정확한 원인을 가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도 후유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70.txt

제목: 사드 효과 찬반논란에 기름 끼얹은 ‘북극성-2형’  
날짜: 20170214  
기자: 조성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157001  
ID: 01100201.20170214000157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북한이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전격 공개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효용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북한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만큼 사드 배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사드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이 사드를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종의 심리전을 펴는 상황이다. <br/> <br/> 북한은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고각(高角) 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을 수직에 가깝게 쏘아올려 사거리를 줄였다는 얘기다. 좁은 한반도에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고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방식이다. 이런 방법으로 발사에 성공한다면 중거리미사일을 우주 공간으로 날려보낼 수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실험이라거나 ICBM 개발 직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br/> <br/> 사드 배치 찬반 양론은 이 지점에서 부딪친다. 북한이 실제 공격 목적으로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사드의 최대 요격고도(150㎞) 훨씬 위에서 미사일을 고속으로 낙하시키거나 아예 사드 기지 상공을 지나쳐 남부 지방을 노린다면 미사일 요격을 장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이 들어오는 부산과 울산이 1차 핵 타격 목표라고 공언한 상태다. <br/> <br/> 찬성론자들은 사드 배치가 더욱 시급해졌다고 주장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이 ‘북극성-2형’을 쏘더라도 일단 사드가 있어야 요격이 되느냐, 마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신형 미사일을 막을 사드조차 이 땅에 없으니 배치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 또 북한이 이 미사일로만 공격을 해올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br/> <br/>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고각 발사 위협 논란과 별개로 사드의 효용성은 크지 않다고 반박한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span class='quot0'>북한은 이 외에도 단거리미사일, 다연장포 등 무수한 자산으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으며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정확성을 요구한다. 수도권 방어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더 있으면 좋다’는 정서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안보정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br/> <br/> 미국과 사드 배치를 협의 중인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1'>고각 발사를 예단해 요격이 가능한지를 확답할 수는 없다</span>”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북한 미사일이 사드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요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r/> <br/> 북한은 신형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요격회피 기동특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사드를 한 축으로 하는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도 뚫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군과 전문가들의 평가다. 사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는 것이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1.txt

제목: 플린·프리버스, 트럼프호 출범 3주 만에 축출 위기  
날짜: 20170214  
기자: 김미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156001  
ID: 01100201.20170214000156001  
카테고리: 국제>미국\_북미  
본문: 취임 3주를 갓 넘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참모들이 벌써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의혹으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해임 요구까지 나왔다. <br/> <br/>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정책고문은 12일(현지시간) ABC방송에 출연해 플린의 러시아 연계설을 거론하며 “전해줄 뉴스가 없다”고 답을 피했다. NBC방송에선 “트럼프가 플린을 신임하는가”란 질문을 받고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사실상 플린을 변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플린은 지난달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대사와 접촉한 정황이 드러나 뭇매를 맞고 있다. <br/> <br/> 전날 미 중앙정보국(CIA)은 플린의 측근인 로빈 타운리 부보좌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에 대한 기밀취급권 인가요청을 거부했다. 플린의 교체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플린을 압박했다. <br/> <br/> 프리버스 또한 ‘반(反)이민 행정명령’ 사태 이후 코너에 몰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최측근인 크리스토퍼 러디 뉴스맥스 미디어 최고경영자가 지난 10일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를 만나 프리버스의 해임을 권유했다고 보도했다. <br/> <br/> 러디는 반이민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프리버스에게 있다면서 “<span class='quot0'>트럼프도 변화를 줘야 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span>”고 언급했다. 또 “프리버스는 능력 밖의 일을 떠안았다.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 현직 장관에게서 잘했다는 문자메시지를 3통이나 받았다”고 덧붙였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2.txt

제목: 북한-탄도미사일, 남한-순항미사일 ‘우위’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155002  
ID: 01100201.20170214000155002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도 북한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거리에서는 북한 미사일보다 훨씬 짧지만 굳이 한반도를 넘어서 날아가는 미사일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또 탄도미사일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북한과 달리 우리 군은 순항미사일(유도가 가능한 제트엔진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며 미사일 요격 능력도 훨씬 높다. <br/> <br/>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은 1000여발로 추정된다. 1970년대부터 구소련이 개발한 스커드 탄도미사일을 들여와 복제하면서 기술을 축적해 왔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에는 사거리가 1만㎞에 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까지 공언할 정도가 됐다. 북한이 미사일 개발에 유달리 공을 들이는 것은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는 남한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br/> <br/> 우리 군의 미사일 전력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북한에 필적하거나 약간 상회할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10분의 1 수준인 500㎞(현무-2B)에 묶여 있었다. 이 지침은 2012년 800㎞로 늘어남에 따라 사거리 연장 작업이 진행 중이다. <br/> <br/> 순항미사일 전력에서는 남한이 크게 앞선다. 우리 군은 이미 사거리 1500㎞급 현무-3을 배치해 놓고 있다. 순항미사일은 정확도가 훨씬 높아 북한 지휘부 타격 등 ‘참수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다. 미사일 요격 능력 역시 남한이 우위를 점한다. 현재 사거리 30여㎞인 패트리엇(PAC-2)과 40여㎞인 PAC-3가 저고도 방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내 사드(THAAD)가 배치되면 최대 150㎞까지 방어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15㎞급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50여㎞급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하고 있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3.txt

제목: 자유한국당 횃불 로고가 '김일성 봉화탑'이라는 변희재  
날짜: 20170214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144001  
ID: 01100201.20170214000144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새누리당이 5년 만에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13일 새 당명과 함께 채택한 횃불 모양 로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수의 기치인 자유시장경제와 지향점인 자유통일을 강조했다고 밝혔지만 온라인에서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br/> <br/>자유한국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span class='quot0'>자유한국당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span>”라며 당명 교체 사실을 알렸다. 팔로어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 팔로어는 “심벌, 로고 안정성, 디자인성, 글체의 유연성 또는 진취성, 컬러 등이 잘 매치가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br/> <br/>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는 이어졌다. 특히 횃불 모양의 로고가 입방아에 올랐다. “위쪽 동네 같은 이미지” “낫만 추가하면 북조선”이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네티즌은 북한 조선중앙방송 로고와 비슷하다며 두 로고를 비교하기도 했다. <br/> <br/> <br/> <br/>‘보수 논객’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는 페이스북에 “<span class='quot1'>인명진, 태극기 로고 쓴다고 눈속임하더니 재빠르게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기념하는 봉화탑 횃불을 채택했다</span>”며 자유한국당 로고를 북한 김일성 횃불에 비유했다. <br/> <br/> <br/> <br/>변 전 대표는 “<span class='quot2'>봉화탑 이외에도 김정일이 김일성 생일 70세를 기념하여 세운 평양 주체탑 역시 횃불을 얹었듯이, 북한에서 횃불은 곧 김일성을 상징한다</span>”고 부연했다. <br/> <br/>그러면서 “북한 퍼주기 단체 우리민족돕기운동본부 대표 출신 인명진이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4.txt

제목: 수천만원 날리기 직전 경찰이 문자로 막아  
날짜: 20170214  
기자: 이가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000055002  
ID: 01100201.20170214000055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경찰이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원을 날릴 뻔한 20대 여성을 문자메시지로 설득해 범죄를 예방했다. 지난 10일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로 가출신고가 접수됐다. 딸인 이모(28)씨가 갑자기 돈 6500여만원을 인출하고는 연락이 안 된다는 아버지의 다급한 신고전화였다. <br/> <br/>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오후 5시45분쯤 이씨가 대학로 일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대학로 파출소에 공조를 요청했다. <br/> <br/>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게 거듭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경찰관입니다, 전화받아주세요. 보이스피싱 주의하시고요’라고 문자를 보냈다. <br/> <br/> 그러자 3분 뒤 이씨로부터 ‘상대가 계속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한다’는 답장이 날아왔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이니 끊어도 된다’고 설득하자 그제야 이씨는 전화를 끊었다. <br/> <br/> 이씨는 “<span class='quot0'>중앙지검 지능범죄 검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도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대학로 일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수사관이 올 것이라고 했다</span>”고 털어놨다. <br/> <br/> 경찰은 “<span class='quot1'>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사기관을 사칭해 직접 피해자에게 돈을 건네받는 수법이 많다</span>”며 “<span class='quot1'>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우선 끊고 반드시 112 등에 확인하라</span>”고 당부했다. <br/>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이가현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75.txt

제목: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19대 대선 선수명단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213655001  
ID: 01100201.2017021421365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 <br/> <br/>서민호 min3018@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6.txt

제목: [단독-김수현 녹취록]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스트바 다닌다’고 협박해라”  
날짜: 20170214  
기자: 이경원 양민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212555002  
ID: 01100201.20170214212555002  
카테고리: 국제>아시아  
본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12일 국민일보를 만나 그간 공개되지 않은 국정농단 사태 뒷얘기를 털어놨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해 9월부터 최순실씨가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를 희생양 삼아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최근 김수현(37) 전 고원기획 대표의 녹취파일들을 근거로 고씨를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지목하려는 시도 역시 최씨 측의 ‘고영태 죽이기’ 전략이라고 노씨는 강변했다. <br/> <br/> “부모 찾아가 소문 전해라” <br/> <br/> 노씨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조금씩 흘러나오던 지난해 9월 류상영 더운트 부장의 휴대전화로 노씨에게 지시를 내렸다. 최씨는 노씨에게 “(고씨) 부모님한테 가서 ‘아들이 마약도 했고, 호스트바도 다녔고, 도박도 했다. 만약에 고영태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니면 이런 소문이 다 세상에 밝혀질 것’이라고 전하라”고 말했다. 잔인한 지시라 여긴 노씨는 “알겠다”고만 답했는데, 통화 자리에 함께 있던 김씨가 “언제 갈 것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br/> <br/> 결국 노씨는 같은 달 10일 김씨와 함께 고속버스로 고씨 본가인 광주로 이동, 고씨의 아버지와 친형을 만났다. 김씨는 이동경로마다 최씨에게 ‘노 부장을 만났습니다’ ‘휴게소에 들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노씨는 고씨 아버지를 만나 “출장 왔다가 들렀다”며 선물만 드리고 나왔다. 그런 노씨에게 김씨는 “회장님 지시”라며 “<span class='quot0'>고씨 형도 만나 전해야 한다</span>”고 했다. 김씨는 광주까지는 함께 갔지만 노씨가 고씨 아버지 등을 만나는 장소에는 동행하지 않았다. <br/> <br/> 필리핀 간다며 태국으로 <br/> <br/> 최씨는 지난해 10월 고씨가 “<span class='quot1'>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고치기를 제일 좋아한다</span>”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부리나케 노씨를 찾았다. 당시 최씨는 “고 상무가 연락이 되느냐. 얘가 사고를 쳤다.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 외국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노씨가 도피처로 필리핀, 베트남, 자신이 머물던 독일 등을 거론하자 최씨는 “필리핀이 좋겠다”고 했다. 베트남을 거부한 이유는 장시호씨 오빠 승호씨가 체류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노씨는 추측했다. <br/> <br/> 노씨는 3일간 집에도 못 가고 고씨를 찾다 결국 10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에서 고씨를 만날 수 있었다. 노씨는 고씨 집으로 가서 자료들을 차에 싣고 자신의 본가인 경기도 오산으로 이동, 보관했다. 곧바로 고씨를 태우고 인천공항으로 다시 이동하며 필리핀행 항공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br/> <br/> 이때 고씨는 “<span class='quot1'>홍콩을 경유해 태국으로 가겠다</span>”고 했다. 고씨가 필리핀이 아닌 태국으로 간 사실은 고씨와 노씨 둘만의 비밀이었다. 노씨는 최씨에게는 애초 지시대로 “필리핀으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 <br/> <br/> 그 후 10월 26일부터 지인의 말을 빌려 고씨가 필리핀에서 신변 위협을 호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br/> <br/> “보따리 풀었다. 사실대로 진술하자” <br/> <br/> 노씨는 처음 검찰 수사 때는 최씨 지시대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25일 검사의 수사 의지를 확인하고는 4시간30분 동안 최씨와 K스포츠재단, 더블루케이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최씨의 국정개입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 날이었다. <br/> <br/> 노씨는 26일 새벽 귀가하며 태국에 있던 고씨에게 전화해 “나는 보따리를 풀었다. 너도 들어와서 사실대로 진술하자”고 설득했다. 고씨는 27일 바로 입국했다. 노씨가 고씨를 인천공항에서 맞았고, 오산으로 이동해 옮겨 두었던 방대한 자료를 차에 싣고 서울로 돌아왔다. <br/> <br/> 온 나라가 국정농단 사태로 들끓고 있었다. 노씨는 당시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자동차 문이 잠겨 있느냐”고 가족에게 여러 차례 확인할 정도였다. 고씨의 자료들 중에는 비어 있는 태블릿PC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때 검찰에 제출했다. <br/> <br/>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승마 훈련일지에 ‘Soong Il’이라는 사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노씨는 한동안 ‘노숭일’로 불렸다. 사태 초반 최씨의 최측근 독일 집사로 묘사됐지만 지금은 내부고발자로 불린다. 그는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서 “<span class='quot2'>양심적 내부고발자가 무슨 의미냐</span>”고 묻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span class='quot2'>최순실과 일해 부끄럽고, 처벌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span>”고 답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서석구, 헌재 대심판정서 태극기 퍼포먼스 <br/>▶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못한다… 변협이 신고서 반려한 이유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 <br/>이경원 양민철 기자 neosar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77.txt

제목: [겨자씨] 당신의 화장실은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203955001  
ID: 01100201.20170214203955001  
카테고리: 문화>출판  
본문: 청소년사역자 이재욱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평생 꿈이 집 장만이었다고 합니다. <br/> <br/> 집을 갖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입주하고 몇 년이 흘렀을까요.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br/> <br/> 아주머니는 또다시 악착같이 일해 화장실이 집안에 있는 새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자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br/> <br/> 다음 목표는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이었습니다. 또 수년을 고생한 끝에 화장실이 2개인 집에 들어갑니다. ‘이만하면 됐다’ 하고 뿌듯해 하던 아주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말기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보니 자기 인생이 딱 세 글자로 표현되더랍니다. “화장실.” <br/> <br/> 우리는 늙고 약해져 결국 죽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문득 죽음을 코앞에 두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인생이 허망해지고 심지어 ‘내 인생이 그저 화장실을 위해 존재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결국 화장실 수를 늘려 가는 동안 죽음이 자신의 인생을 가져가고 있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무엇입니까. <br/> <br/><글=박성규 부산 부전교회 목사, 삽화=이영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78.txt

제목: 노승열 시즌 두 번째 톱10  
날짜: 20170214  
기자: 김태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5155001  
ID: 01100201.20170214175155001  
카테고리: 스포츠>골프  
본문: 한국 남자 골프 기대주 노승열(26·나이키골프)이 시즌 두 번째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톱10을 달성했다. <br/> <br/> 노승열은 1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 페블비치 골프링크스(파72)에서 열린 AT&T 페블비치 프로암(총상금 720만 달러)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4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9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노승열은 공동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br/> <br/> 노승열은 전반에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후반 들어 4개의 버디와 2개의 보기를 맞바꾸며 활약했다. <br/> <br/> 노승열은 지난 10월 샌더슨 팜 챔피언십 이후 시즌 두 번째 톱10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 선전으로 노승열은 지난주 384위에서 이번 주 294위로 90계단이나 뛰어올랐다. <br/> <br/> 한편 조던 스피스(24·미국)는 최종 합계 19언더파 268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5월 딘 앤 델루카 인비테이셔널 이후 9개월 만에 정상에 오른 스피스는 투어 통산 9승째를 달성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김태현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79.txt

제목: 다시 특검 앞에 선 이재용  
날짜: 20170214  
기자: 노용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455001  
ID: 01100201.201702141744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이재용(49·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다. 지난달 12일 특검에 1차로 소환됐던 이 부회장은 32일 만에 다시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서야 했다. <br/> <br/> 오전 9시30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span class='quot0'>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하겠다</span>”고 했다.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에 청탁한 사실이 있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씨 일가를 지원한 의혹이 사실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br/> <br/> 특검은 지난달 19일 최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법원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이 부회장에게는 횡령·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특검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와 금융위, 삼성 관계자들도 줄소환했다. <br/> <br/> 특검은 공정위가 순환출자 해소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잠정 결론내렸다가 처분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했는데, 이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삼성 측은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 정부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r/> <br/>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30억원 상당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최씨 측에 지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br/> <br/>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만 신병처리하겠다던 입장을 백지화하고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박 사장, 황 전무를 모두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및 삼성 임원들 신병처리는 이번 주 중 한꺼번에 결정할 방침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0.txt

제목: 李,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날짜: 20170214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355001  
ID: 01100201.201702141743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2일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진실을 말하겠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던 1차 소환 때와 비교하면 자신감이 엿보이는 발언이었다. 지난달 12일 특검에서 22시간 밤샘조사를 받았던 이 부회장은 이번에도 늦은 밤까지 조사를 받았다. <br/> <br/> 이 부회장은 오전 9시26분 서울 대치동 대치빌딩에 검은색 체어맨을 타고 들어섰다. 다소 지친 기색이었다. 오른쪽 뺨에 작은 뾰루지가 눈에 띄었다. 취재진 포토라인에 선 이 부회장은 “<span class='quot0'>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심껏 말씀드리겠다</span>”고 말했다. 취재진이 “지금까지 성실히 임했다는 거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주식매각 특혜 제공 의혹 등을 묻는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r/> <br/> 이 부회장은 앞서 1차 소환에서는 “<span class='quot1'>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 드린 점, 국민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span>”고 말했다. 최순실씨 의혹에 연루돼 소환조사까지 받게 된 점에는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br/> <br/> 재소환에 임하는 발언에는 사과가 없었다. 대신 “오늘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1차 조사에서도 진실을 소명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이 특검의 법리공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br/> <br/> 특검은 1차 소환 때 이 부회장을 강도 높게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인치됐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풀려났다. <br/> <br/> 특검 사무실 주변엔 1차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200명 넘는 취재진이 몰렸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법대로 엄벌’ ‘삼성전자는 삼마(三馬) 전자로 개명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한 1인 시위자는 “앞을 가로막지 말라”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는 시민단체의 외침이 사무실 주변에 울려 퍼졌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81.txt

제목: 작년 건축 연면적 3.9%↑  
날짜: 20170214  
기자: 세종=서윤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155002  
ID: 01100201.20170214174155002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연면적이 35억7362만5000㎡으로 전년보다 1억3571만3000㎡(3.9%)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서울 여의도 63빌딩 연면적(23만8429㎡)의 569배 늘어난 것과 같다. 건축물 동수는 705만4733동으로 전년보다 6만7820동(1.0%)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11만2000㎡(4.1%) 증가한 16억1190만5000㎡, 지방은 7260만1000㎡(3.8%) 증가한 19억6172만㎡이었다. 용도별 면적을 보면 주거용이 2.7% 증가한 16억9931만4000㎡로 전제의 47.6%를 차지했다. 준공 후 30년을 넘긴 노후 건축물도 254만3217동으로 전체 36.0%를 차지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 <br/>세종=서윤경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82.txt

제목: “가계빚 근본 문제는 상환능력 약화”  
날짜: 20170214  
기자: 우성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155001  
ID: 01100201.20170214174155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1300조원 돌파라는 가계부채 총량보다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가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란 주장이 제시됐다. 총량에 매몰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책 이외에 재무곤경 가구의 채무 재조정을 돕고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br/> <br/> 박연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하나금융포커스 최신호 논단에 ‘가계부채와 서민주거복지’란 글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span class='quot0'>가계부채 총량규제 방식은 경기 둔화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약하고 금리 부담을 가중시켜 주거복지를 더욱 악화시킨다</span>”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세에 놀란 금융 당국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총량규제만 고집하면 은행은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부터 올리게 된다. 결국 취약계층은 치솟은 주거비용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대출을 받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 <br/> <br/> 한국의 소득 양극화 심화, 청년 실업률 상승, 자영업자 비중 증가 역시 가계의 대출 수요를 불러오는 동시에 취약계층의 부채상환 능력 약화를 부채질했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가계부채 취약계층은 흔히 고령층, 저소득, 자영업 종사 가계를 일컫는다. 이들은 금리 인상, 소득 감소, 집값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일반 가구에 비해 재무곤경 상태가 더 빨리 찾아오는 경향을 보인다. <br/> <br/> 박 교수는 대안으로 “<span class='quot0'>실직 상해 질병 간병 이혼 등으로 재무곤경에 처한 가계부터 선제적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span>”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한 뒤 이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3.txt

제목: [포토] 밸런타인 초콜릿 골라볼까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055002  
ID: 01100201.20170214174055002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밸런타인데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초콜릿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84.txt

제목: 공매도 포털 띄운다  
날짜: 20170214  
기자: 김찬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4055001  
ID: 01100201.20170214174055001  
카테고리: 경제>금융\_재테크  
본문: 한국거래소가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한데 모은 ‘공매도 종합 포털 사이트’를 만든다. 일반 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 잔고,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등 다양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없는 주식·채권을 팔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br/> <br/>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달 말 시행 예정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외에 공매도 정보 포털을 개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매도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투자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는 차원이다. 그동안 한미약품 사태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듯 악재성 공시 전 내부정보 유출로 상당 규모의 공매도가 발생하며 개인투자자들이 커다란 피해를 보기도 했다. <br/> <br/> 거래소는 또 상대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회사채·금융채, 특수채의 장내 거래를 활성화시킬 방침이다. 조만간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마련한다. 채권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상품도 도입한다. ETF 시장은 아시아 국가 최초로 채권형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해외 ETF 상품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올해 ETF 시장의 순자산 총액이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5.txt

제목: [여의도 stock] 삼성전자 연일 미끄럼… 190만원 아래로  
날짜: 20170214  
기자: 김찬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955001  
ID: 01100201.20170214173955001  
카테고리: 경제>경제일반  
본문: 코스피지수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지만 강한 오름세를 보이지는 못했다. <br/> <br/> 코스피지수는 13일 3.57포인트 오른 2078.65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190만원 아래로 떨어지자 한때 2070선 초반까지 후퇴하기도 했다. 기관의 순매수(2308억원)에다 장 막판 외국인의 순매수(59억원)가 더해지면서 상승세로 반등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대규모 순매수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개인은 2787억원을 순매도했다. <br/> <br/> 코스피는 지난 주말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0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정책 기대감에 이틀 연속 뛰어올랐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만269.3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16.10, 나스닥종합지수는 5734.13에 마쳤다. 코스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반응했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하락세를 타면서 2만원(1.04%) 내린 189만8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 9일을 빼고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다. 삼성물산도 2000원(1.57%) 내리는 등 삼성그룹주가 약세를 보였다. <br/> <br/> 코스닥지수는 1.36포인트 오른 611.94에 장을 마쳤다. 457억원을 순매수한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기관은 233억원을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이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가치 강세로 1.40원 오른 115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6.txt

제목: 시민 혈세 먹고 ‘귀족’ 되더니… 채용 장사하는 버스 勞使  
날짜: 20170214  
기자: 부산·대구=윤봉학 최일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455001  
ID: 01100201.201702141734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준공영제 도입으로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버스회사들의 채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비스 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버스회사 준공영제가 채용비리에 악용되고 있어 실효성있는 비리 근절대책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br/> <br/> 부산 연제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A버스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원 1명의 휴대전화와 배차표 등 각종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압수수색한 자료를 토대로 채용비리와 보조금 횡령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김모(57)씨 등 시내버스업체 4곳의 전·현직 노조지부장 등 4명을 구속하고 버스회사 임직원과 구직자 등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노조 간부들은 버스기사로 취업을 원하는 39명에게 500만∼1800만원씩 모두 3억9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문제는 버스기사 채용비리가 불거진 후 부산시가 버스회사 노조의 고질적인 ‘취업장사’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후에도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시는 기사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노조의 인사 개입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인재채용위원회’를 구성, 공개 채용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33개 전체 버스회사에 시행토록 했다. 특히 시는 준공영제에 참여한 버스업체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삭감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버스업체도 준공영제에 참여해 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준공영제가 채용비리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가 준공영제 시행 후 참여업체에 지원금을 주면서 시내버스 기사의 대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부산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 연봉은 4800여만원이다. 택시·마을버스 기사의 2∼3배 수준이다. <br/> <br/> 2007년 부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뒤 임금과 퇴직금 체불 걱정도 없어졌다. 정년이 보장되고 각종 수당과 자녀 학자금지원 등 복지 혜택도 주어진다. 이처럼 버스 기사 처우가 좋다보니 버스업체 간부나 노조 간부 등과 ‘뒷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br/> <br/> 2006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작한 대구도 2011년과 2015년 버스기사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지역 시민단체가 기사 채용 때 수천만원이 오고갔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대구시 등에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준공영제에 묶여 기사 채용 등의 권한을 버스회사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br/> <br/> 시민단체 관계자는 “<span class='quot1'>버스업체와 노조의 도덕적 해이와 시의 안일한 비리근절 대책마련 등이 시민 혈세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span>”며 철저한 수사와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 부산·대구=윤봉학 최일영 기자 bhyoo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7.txt

제목: 부분 철거된 옛 전남도청 연결통로 2곳 복원  
날짜: 20170214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355001  
ID: 01100201.20170214173355001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5.18민주화운동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보존 작업의 가닥이 잡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2013년 5∼6월 부분 철거한 옛 도청 본관·별관의 연결통로 2곳을 복원하고 역사적 공간에 세워진 문화전당 방문자센터를 철거하는 게 골자다. <br/> <br/>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광역시 광산동의 옛 도청을 최대한 보존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우선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을 잇는 연결통로를 복원한다. 대책위는 시민군들의 마지막 퇴로인 옛 본관과 민원실 2층 연결통로도 원형을 살려 보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곳의 연결통로는 5·18당시 시민군이 보초를 섰다가 1980년 5월27일 새벽까지 항전을 했던 곳으로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다. <br/> <br/> 2002년 등록문화제(근대문화유산) 제16호로 지정된 옛 도청 본관은 5·18당시 시민군의 심장부로 국내 현대사의 비극적 참상을 묵묵히 지켜봤다. 하지만 2013년 5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본관 건물 54m 가운데 24m가 문화전당 건립사업을 위해 철거됐다. <br/> <br/> 현재 이 곳에서는 문화전당 내 민주평화교류원이 한창 개원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br/> <br/> 옛 도청과 전남경찰청 부지 사이의 문화전당 방문자센터는 철거,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문자센터는 5·18당시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던 곳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8.txt

제목: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 4월 개관  
날짜: 20170214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255001  
ID: 01100201.20170214173255001  
카테고리: 지역>제주  
본문: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br/> <br/> 제주도는 노사민정 협력사업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제주시 한라수목원 입구에 지하1층·지상3층(4148㎡) 규모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다음달 준공, 4월 개관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br/> <br/> 79억원이 투입되는 복지관에는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와 함께 노동법률사무소가 들어선다. 세미나 등을 위한 대강당과 중·소 회의실, 체력단련실, 북카페도 갖춰진다. <br/> <br/> 복지관에서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상담, 비정규직 근로환경개선 캠페인·우수사업장 발굴 시상, 노사관계 우수업체 벤치마킹, 노사민정 역량강화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br/> <br/> 이와 함께 3D업종에 종사하며 제주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무료숙식 제공 및 상담센터, 쉼터 등도 운영할 방침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89.txt

제목: [포토] 선비복식 ‘학창의’ 입고 찰칵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6001  
ID: 01100201.20170214173156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열린 전통예술학부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들이 학창의를 입고 활짝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다. 학창의는 조선시대 선비 복식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곽경근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90.txt

제목: [로컬 브리핑] 경남, 친환경 양식에 142억 투입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1  
ID: 01100201.201702141731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경남도가 바다오염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양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2억원을 투입한다. <br/> <br/> 경남도는 경남의 중요 산업축이면서 미래 식량자원인 양식산업의 지속 발전과 양식업으로 인한 바다오염을 막기 위해 친환경 양식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식산업 정책기조를 생산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양식으로 전환, 양식산업의 안정적 성장과 함께 인간과 환경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언론사: 국민일보-5-891.txt

제목: [포토] 유채꽃 만개… 제주 상륙한 봄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6  
ID: 01100201.20170214173155006  
카테고리: 지역>지역일반  
본문: 제주도에 최근 폭설을 동반한 강추위가 물러가면서 봄이 성큼 다가왔다. 지난 12일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산방산 인근에 봄의 시작을 알리는 유채꽃이 만개하자 관광객들이 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 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92.txt

제목: [로컬 브리핑] 광주역∼송정역 셔틀버스 조정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3  
ID: 01100201.20170214173155003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루 30회 운행 중인 광주역∼광주송정역 셔틀버스 운행시간을 28일부터 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운행시간을 17분에서 15분으로 줄이고 오전 통근시간대인 7시53분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으로 출발하는 열차를 1회 신설한다. 시는 중간 정차역을 1∼2개 추가하는 방안도 코레일,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셔틀열차는 161석 규모로 첫차는 광주역에서 오전 5시, 막차는 광주송정역에서 다음달 0시27분 출발한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언론사: 국민일보-5-893.txt

제목: [로컬 브리핑] 곡성군, 199건 군정 건의 접수  
날짜: 20170214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2  
ID: 01100201.201702141731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전남 곡성군은 ‘2017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군정 전반에 대한 건의사항 199건을 접수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번 건의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처리계획을 수립, 군정에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span class='quot0'>지난해 정부3.0 평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한 만큼 올해도 군민을 위한 ‘행복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언론사: 국민일보-5-894.txt

제목: 신입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법원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날짜: 20170214  
기자: 양민철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5  
ID: 01100201.20170214173155005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50대 상사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br/> <br/>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서울시 공무원 이모(52)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이씨는 2015년 6월 신입 공무원 A씨(여) 등과 저녁 회식 자리를 가졌다.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뒤 이씨는 A씨 손과 허벅지를 만지며 옆자리에 앉으라고 강요했다. A씨 어깨가 노출될 정도로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이씨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1항 3호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r/> <br/> 이씨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씨에게 함께 어울리자고 권유했을 뿐, 성적 굴욕·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성희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r/> <br/> 법원은 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 행위는 평균적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씨가 A씨의 상급자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업무를 빙자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95.txt

제목: “술 마시고 모텔가자”… 직장 내 성희롱 왜 근절 안되나  
날짜: 20170214  
기자: 최예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155004  
ID: 01100201.20170214173155004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내가 너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알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br/> <br/> 자동차부품 판매업체에 다니던 여성 A씨는 여느 날처럼 출근을 했다가 갑자기 회사 대표의 호출을 받았다. 대표실로 들어간 A씨는 그날 잊을 수 없는 일을 당했다. 대표는 A씨의 손을 잡더니 대뜸 사랑을 고백하며 껴안았다. 이를 뿌리치자 손등을 잡고 입을 맞췄다. A씨는 그날 이후 이 일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고, 회사를 갈 때마다 당시 느꼈던 모욕감이 떠올랐다. 그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 <br/> <br/> 중소업체 직원인 20대 여성 B씨는 어느 날 거래회사의 60대 팀장에게 “술 마시고 모텔가자”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뻘인 팀장은 B씨에게 “사귀자”며 끈질기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했다. B씨 역시 회사를 그만뒀다. <br/> <br/> 편집디자인업체에서 선배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 C씨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성추행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자살까지 시도했다. <br/> <br/> 직장에서 성희롱을 받은 피해자들이 두 번 울고 있다. 직장을 떠나거나 C씨처럼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다. 맞서 싸워봤자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식이고 피해자만 눈치를 보게 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은 ‘약한 처벌’이 성희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았다. <br/> <br/>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해당되는 직장인 1150명(여성 698명, 남성 4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피해자의 79.1%는 성희롱 발생 원인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75.5%), ‘남성의 약한 성 평등 인식’(69.8%) 등이 뒤를 이었다. <br/> <br/> 성희롱 피해자들은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피해자 520명의 절반(54%)은 성희롱을 당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답했다. 성희롱을 당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생각해서’(45.6%)가 가장 많았고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6.3%),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30.6%) 등이었다. <br/> <br/>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실효성이 작다. 조사대상의 40.5%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교육을 받더라도 만족도는 49.9점(100점 만점)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는 ‘성희롱 예방효과 미미’(51.6%), ‘주변 사람들이 교육에 무관심해서’(31.9%) 등이 꼽혔다. <br/> <br/> 조직문화가 차별적이고 수직적일수록 성희롱이 발생하기 쉬웠다. 윤정숙 특수범죄연구실 연구위원은 “<span class='quot0'>사업장이나 기업조직 자체가 성희롱 행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성희롱을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지 조직문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span>”고 조언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896.txt

제목: “군대서 독감주사 맞다 수은 주입, 국가가 배상”  
날짜: 20170214  
기자: 황인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4173055002  
ID: 01100201.20170214173055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군대에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가 의무대 실수로 몸에 수은이 주입된 남성이 10년 넘는 법정 다툼 끝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br/> <br/>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김씨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김씨는 제대를 석 달 앞둔 2004년 9월 의무대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오른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방사선 검사 결과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이물질이 정확히 뭔지 모른 채 제대한 김씨는 병원에서 팔에 수은이 들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혈중 수은 농도가 체내 수은 농도 안전기준치(5 미만)를 훨씬 넘는 120으로 측정됐다. <br/> <br/> 김씨는 의무대에서 수은 체온계가 깨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하곤 2006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화해권고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2015년 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첫 제소로부터 11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br/> <br/> 류 판사는 “<span class='quot0'>의무병들이 수은 체온계 관리를 소홀히 해 일회용 주사기 백신에 수은이 섞여 김씨에게 주입된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span>”며 국가 잘못과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국가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류 판사는 “<span class='quot0'>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span>”고 밝혔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97.txt

제목: 이재명 후원회, 3일만에 5억원 모금 ‘화색’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73444002  
ID: 01100201.20170213173444002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13일 ‘흙수저 후원회’가 출범한 지 3일만에 5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br/> <br/>이 시장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span class='quot0'>암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아이들 통닭 하나 마음 편히 사주지 못하는 엄마, 통영에서 굴 팔아 후원하는 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약자들이 이뤄낸 기적</span>”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br/> <br/>이 시장 측은 ‘흙수저 후원’에 힘입어 조만간 1만1300번째 후원자와의 점심식사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 숫자 1만1300은 이 시장이 성남시에서 시행한 청년배당제 대상자 수다. <br/> <br/>이 시장 측은 “<span class='quot0'>청년배당의 성공사례를 확대한 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흙수저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898.txt

제목: 이철성 경찰청장, 인천지방청 첫 방문 소통의 시간 갖고 현장에 활력 불어넣어  
날짜: 20170213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73444001  
ID: 01100201.201702131734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이철성 경찰청장이 13일 지방경찰청으로는 인천경찰청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br/> <br/> <br/> <br/> <br/>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지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준 인천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br/> <br/>이 청장은 ‘현장 활력’을 위해 일선 경찰관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등 격의없는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br/> <br/>이 청장의 첫 지방청 방문은 과도한 의전과 정해진 각본을 없애고 진정성 있는 현장 소통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br/> <br/>이 청장은 인천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인천지역의 여론을 청취하고, 경찰발전위원회 등 경찰협력단체 대표들과 만남을 통해 치안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br/> <br/>특히 인천지역 112신고체계의 컨트롤타워인 112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직접 무전으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격려했다. <br/> <br/>이어 인천경찰청 대강당에서 현장직원 등 37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청장 특강과 현장활력토크를 진행했다. <br/> <br/>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span class='quot0'>우리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마음을 얻어야 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국민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899.txt

제목: 특검, ‘수사기한 연장 어렵다’에 방점… 마무리 수순 밟나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72244001  
ID: 01100201.201702131722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이 모두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일정을 진행할 전망이다. <br/> <br/> <br/>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수사기한 연장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최순실 게이트’ 핵심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br/> <br/>이규철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0'>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다</span>”며 “<span class='quot0'>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는 대면조사와 원칙적으로 별개로 할 방침</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 특검보는 특히 “<span class='quot1'>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고 판단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꼽았다. <br/> <br/>당시 특검팀이 “<span class='quot2'>현직 대통령 조사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span>”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r/> <br/>때문에 특검팀은 영장기각 주요 사유인 뇌물수수자 조사를 마치고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을 세웠다. 박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조사 시기를 ‘늦어도 2월초’로 명시한 점도 이 같은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br/> <br/>그러나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 조사에 무작정 매달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br/> <br/>박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대면조사 취소를 통보했다. 이후 양측은 닷새째 접촉하지 않았다. 대면조사를 하려면 늦어도 주중에 조율을 마치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00.txt

제목: 아이비, 고은성 1년 만에 결별 “바쁜 스케줄 탓”  
날짜: 20170213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71044001  
ID: 01100201.201702131710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가수 아이비와 뮤지컬 배우 고은성이 결별했다. <br/> <br/>고은성 소속사는 13일 "고은성이 아이비와 최근 결별한 것이 맞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br/> <br/>관계자에 따르면 "<span class='quot0'>고은성과 아이비는 지난해 뮤지컬 '위키드'를 통해 인연을 맺고 8살 연상 연하 커플로 1년여간 교제를 했으나 최근 바쁜 스케줄 탓에 헤어지게 됐다</span>"고 말했다. <br/> <br/>아이비는 가요계에 데뷔한 뒤 2010년 '키스 미 케이트'로 뮤지컬 분야에 발을 들였다. 이후 ‘시카고’, '고스트', '시카고', ‘유린타운’, '위키드', '아이다' 등에서 활약했다. <br/> <br/>고은성은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 '페임', '그리스', '스팸어랏', '인터뷰', '위키드', '로미오와 줄리엣' 등에 출연했다. 최근 JTBC '팬텀싱어'에서 훈훈한 비주얼과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해 화제가 됐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1.txt

제목: '박근혜 편들었다'는 서울디지텍고 교장의 해명 보니  
날짜: 20170213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4844001  
ID: 01100201.20170213164844001  
카테고리: 사회>교육\_시험  
본문: 학교 종업식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span class='quot0'>지극히 정치적인 음모에 의해 이뤄진 것</span>”이라고 주장한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br/> <br/>곽 교장은 13일 학교 게시판에 “<span class='quot1'>탄핵정국 관련 학생들과의 토론회에 대하여 드리는 글</span>”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했다. <br/> <br/>곽 교장은 먼저 대토론회에 대한 언론과 주변의 관심을 의식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학부모와도 의견교환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이 원치않았는데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펼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학부모와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br/> <br/>곽 교장은 종업식 대토론회가 즉흥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학생들과 사전 모임을 갖고 의견을 교환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span class='quot1'>탄핵사태가 과거 광우병 파동이나 미군 장갑차 사건처럼 비이성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친 것에 반성하고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 탄핵관련 계기교육을 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학생들 스스로 현 상황을 균형있고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span>”고 밝혔다. <br/> <br/> <br/> <br/>학교장이 우파나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주장을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곽 교장은 “<span class='quot2'>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장으로 학생들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균형 잡도록 해 주는 교육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느겼다</span>”며 “<span class='quot2'>매우 강한 반대 의견도 경청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그러면서 그는 “<span class='quot2'>오해가 있는 부분은 학생들과 소규모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2'>학생자치법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균형잡힌 토의를 해 나갈 것</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앞서 곽 교장은 학생들과의 대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머리가 텅 비어서 최순실과 같은 그런 무식한 여자에게 농락당해서, 사교의 교주에 농락당해서 국정을 농락했다? 그런데 점점 재판의 과정을 볼 때 자기의 이권 개입 정도만 있었지 국정 전반을 뒤흔들었다는 주장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곽 교장은 “<span class='quot1'>탄핵 자체가 법적 절차에 근거하지 않았다</span>”며 “<span class='quot1'>90%이상의 언론이 정략적인 의견과 허위사실을 말하면서 국민들과 사회를 선동시키고 있다</span>”고 탄핵심판의 부당성을 강조해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2.txt

제목: 女펜싱 대표팀, 레냐노 에뻬 월드컵 단체전 ‘銅’  
날짜: 20170213  
기자: 박구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4544001  
ID: 01100201.20170213164544001  
카테고리: 스포츠>월드컵  
본문: 한국 여자펜싱대표팀이 이탈리아 레냐노 여자 에뻬 국제월드컵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br/> <br/>신아람 최인정 강영미 유진실로 구성된 대표팀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레냐노에서 열린 대회 여자 에뻬 단체전 3·4위전에서 우크라이나에 45대 34로 완승을 거둬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여자 에뻬 단체팀은 지난해 11월 새롭게 구성됐고, 두 번째 국제대회 출전 만에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br/> <br/>앞서 대표팀은 16강, 8강에서 일본(45대 43)과 루마니아(35대 34)를 꺾고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준결승에서 에스토니아에 12대 15로 져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 결국 3·4위전에서 우크라이나를 따돌리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br/> <br/>전날 열린 대회 여자 에뻬 개인전에서는 최인정(6위)이 대표팀 선수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이어 강영미(10위) 신아람(17위) 장서연(61위) 유진실(68위) 임주미(106위) 등이 뒤를 따랐다. 대표팀은 오는 7월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입상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br/> <br/>한편 중국은 여자 에뻬 단체전 결승에서 에스토니아를 꺾고 금메달을 가져갔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3.txt

제목: "횡설수설" 기장에 놀란 승객들 비행기서 줄줄이 내려 (영상)  
날짜: 20170213  
기자: 박효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3844001  
ID: 01100201.201702131638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한 여성 기장이 기내에서 '비정상적인' 언행을 해 놀란 승객들이 잇따라 비행기에서 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r/> <br/>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 버그스트롬 국제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행 유나이티드 항공 455기에 정식 제복이 아닌 야구 모자와 셔츠를 입은 여성 기장이 기내에 들어섰다. <br/> <br/>이 여성 기장은 갑자기 승객들에게 “미안하다. 나는 지금 이혼 소송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든, 힐러리 클린턴을 찍었든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은 모두xx"라고 횡설수설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br/> <br/>여성 기장의 언행에 비행기에 있던 승객들은 놀라며 야유를 보냈고 일부 승객들은 불안감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 <br/> <br/>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다.  <br/> <br/> <br/> <br/>이에 여성 기장은 “그만 하겠다. 우리는 곧 이륙할 것”이라며 “걱정마라. 동료 기장이 조종대를 잡을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탑승객들이 불안감에 항의하며 잇따라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 여성기장은 이들과 포옹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br/> <br/> <br/> <br/>기내에서 벌어진 여성 기장의 해프닝은 승객 중 한 명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내용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공개됐다. 승객들의 신고로 경찰은 이 여성 기장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렸다. <br/> <br/>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우리는 여성 기장의 비행 스케줄을 전면 취소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그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샌프란시스코행 유나이티드 항공 455편은 새로운 기장으로 교체됐으며 새로운 기장은 승객들에게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박효진 기자 imher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4.txt

제목: 미국 최고 높이 오로빌 댐 붕괴·범람 위기… 19만명 긴급대피령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3144001  
ID: 01100201.201702131631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오로빌댐의 붕괴 및 범람이 임박해 긴급대피령이 내려졌다. <br/> <br/>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당국자들은 현재 오로빌 댐의 붕괴 및 범람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총동원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워낙 위급한 상황이어서 페더강을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 대피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한밤에 자동차를 타고 급히 대피하는 중이라고 LAT는 보도했다. <br/> <br/>1968년 완공된 오로빌댐은 캘리포니아 주도 새크라멘토에서 북쪽으로 약 120㎞ 떨어진 오로빌 호수에 있다. 미국에서 가장 높은 234m 높이의 댐이다. 그러나 최근 캘리포니아를 강타한 폭우로 물의 양이 대폭 늘어난데다 중앙 배수로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면서 비상이 걸렸다. <br/> <br/>국립기상서비스는 12일 밤 오로빌댐 보조 배수로까지 버티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댐이 막고 있던 호숫물이 통제불가능하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자원국은 “주민들은 북쪽으로 대피하라”고 긴급 고지했다. <br/> <br/> <br/>오로빌 시와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약 1만6000명은 북쪽 고지대인 치코 쪽으로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유바 카운티, 버트 카운티를 비롯해 유바 시티,라이브 오크, 니콜라우스 등 페더 강을 따라 들어선 거주지 주민도 모두 대피 명령을 받았다. <br/> <br/>CNN에 따르면 유바 카운티와 버트 카운티에만 약 30만명이 살고 있다. 현지매체 새크라멘토 비는 긴급대피 명령 대상을 약 18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br/> <br/>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댐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댐의 중앙 배수로에 구멍이 났지만 댐 자체는 안전하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은 이전에도 댐 붕괴 및 대홍수 위기가 있었지만 실제로 벌어진 적은 없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05.txt

제목: 카카오톡 10분 오류로 대혼란 “결정적 순간 먹통”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2544001  
ID: 01100201.20170213162544001  
카테고리: IT\_과학>콘텐츠  
본문: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br/> <br/> 카카오톡은 13일 오후 3시35분쯤부터 약 10분 동안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거나 대화창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모바일과 PC 버전 모두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br/> <br/> 카카오톡 운영진은 오후 3시45분 SNS를 통해 “일부 이용자들의 메시지 수·발신 지연 현상이 있어 긴급 점검 중”이라고 공지했다. 서비스는 오후 4시 현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br/> <br/> 운영사 카카오는 지난 9일 발표한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카카오톡이 월간 국내 실이용자 수 4200만명, 해외까지 포함해 49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명실상부한 국내 1위 메신저다. <br/> <br/>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탓에 짧은 시간의 오류에도 혼란이 컸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타임라인에는 “카톡 발송이 안 된다” “<span class='quot0'>메시지 하나를 전송했지만 같은 내용이 여러 건 발송됐다</span>” “<span class='quot0'>결정적인 순간에 대화창이 열리지 않았다</span>”는 불편 사례들이 쏟아졌다. <br/> <br/> 카카오톡은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 지진 발생 당시 갑작스럽게 늘어난 트래픽으로 2시간 넘게 메시지 송신과 수신이 이뤄지지 않았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6.txt

제목: 아델, 그래미서 노래 중단한 사연… “조지 마이클에게 예의 아냐”  
날짜: 20170213  
기자: 박상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60144001  
ID: 01100201.201702131601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팝스타 아델이 ‘2017 제 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고(故) 조지 마이클 헌정 무대를 꾸미다 돌연 공연을 중단했다. <br/> <br/>아델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 센터에서 진행된 ‘2017 제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조지 마이클의 ‘패스트 러브 (Fast Love)’를 불렀다. 지난해 12월 25일 폐질환으로 사망한 조지 마이클을 위한 추모 무대였다. <br/> <br/> <br/> <br/>검은 드레스를 입고 선 아델은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미안하다”며 연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북받치는 감정을 조절하기 어려웠는지 “미안하지만 노래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 계속 하기엔 조지 마이클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r/> <br/>아델의 진심을 느낀 관객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격려했다. 아델은 얼굴을 부여잡고 한숨을 내쉰 뒤 다시 노래를 시작했다. 이어진 무대는 완벽했지만, 아델은 노래를 마치고 또 한번 눈시울을 붉혔다. <br/> <br/> <br/> <br/>아델은 이날 ‘헬로’(Hollo)가 타이틀곡인 앨범 ‘25’로 ‘올해의 앨범’(Album of the year)과 ‘올해의 레코드’(Record of the year), ‘올해의 노래’(Song of the year)를 모두 휩쓸었다. 뿐만 아니라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베스트 팝 보컬 앨범’까지 거머쥐며 5관왕에 올랐다. <br/>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7.txt

제목: 여야 4당,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구두 합의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54644001  
ID: 01100201.20170213154644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br/> <br/>정세균 국회의장, 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br/> <br/>정 원내대표는 “<span class='quot0'>헌재에서 탄핵 결과가 나오면 각당이 승복하는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다</span>”면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br/> <br/>우 원내대표는 오찬 간담회 직후 “<span class='quot1'>헌재 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기로 했냐</span>”는 질문을 받고 “OK”라고 했다. “구두로만 합의했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08.txt

제목: 박근혜 5촌 사건 파헤친 배정훈 PD "디도스 사건에도 2명 의문의 죽음"  
날짜: 20170213  
기자: 정지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51844001  
ID: 01100201.201702131518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배정훈PD가 지난 11일 방송된 선관위 창원터널 디도스 사건의 남은 의혹을 전했다. <br/>배 PD는 13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배후를 밝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묘한 말을 남겼고, 특검이 이어졌는데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과연 위험한 범죄행위를 우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br/> <br/>이어 “사실 이번 성과 중 하나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그 전에 일어난 ‘터널 디도스’ 사이에 연결 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찾아낸 것"이라며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직적인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br/> <br/>배 PD는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면 선관위 디도스와 터널 디도스의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다. <br/> <br/> <br/> <br/>박근혜 대통령 5촌간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취재한 배 PD는 터널 디도스에도 주요 인물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br/> <br/>배 PD는 "<span class='quot0'>당시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손 모씨가 정우택 의원과 같은 지역에 거주를 하며 우호적 관계였는데 그것이 깨지면서 개인적인 비위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터널 디도스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인물 두 사람이 사망했다</span>"고 밝혔다. <br/> <br/>이어 “한 분은 트럭 옆에서 뇌출혈로, 한 분은 홍콩에서 자살을 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배 PD는 ”그것도 중요한 시점에서“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09.txt

제목: “대전 새벽에 쿵 소리, 지진 맞아?” 굉음과 탄내 괴소문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50944001  
ID: 01100201.20170213150944001  
카테고리: 국제>국제일반  
본문: 대전에서 지진 발생 당시 굉음을 듣거나 탄내를 맡았다는 ‘괴소문’이 떠돌고 있다. <br/> <br/>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타임라인은 13일 “대전에서 관측됐다는 지진에 모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계룡에서 쿵 소리가 나자마자 집밖으로 나갔더니 탄내를 맡았다는 사람이 있었다”는 한 네티즌의 트윗을 놓고 요동쳤다. <br/> <br/> 이 네티즌은 대전 지진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누군가에 의해 검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댓글은 삭제됐다. 계룡 관련 댓글들은 모두 지워졌다”고 했다. 이 트윗은 1000건 넘게 재배포 됐다. <br/> <br/> 계룡시는 대전 서남부에 인접한 도시다. 3군 통합 군사기지인 계룡대, 해발 845m의 계룡산이 이 도시에 있다. 이 네티즌이 트윗에서 지칭한 ‘계룡’이 도시인지, 부대인지, 산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br/> <br/> 대전 지진과 관련한 괴소문은 한 사람만의 주장으로 퍼진 것은 아니었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새벽에 쿵 소리를 들었다”거나 “탄 냄새를 맡았다”는 경험담, 또는 지인의 말을 옮긴 트윗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br/> <br/> <br/> 기상청은 오전 3시8분쯤 대전 유성구 남남서 3㎞ 지점에서 규모 1.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의 깊이가 10㎞ 이내로 얕고 도심에서 발생했지만 피해는 크지 않았다.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문의가 소방당국으로 빗발쳤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인명 피해는 없었다. <br/> <br/> 타임라인의 분위기는 기상청 발표와 사뭇 달랐다. “쿵 소리가 3차례 들렸다. 한 번은 컸고 나머지 두 번은 작았다” “유성구에 있었다. 큰 물건이 넘어질 때 나는 소리가 들린 뒤 땅이 쿠쿠쿵 울리고 멈췄다” “규모 1.9라고 하기에는 매우 강력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span class='quot0'>계룡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span>”는 의문도 불거졌다. <br/> <br/> 지진이 한밤중 발생한 탓에 “진동 굉음 탄 냄새를 느끼지 못하고 잤다”는 트윗 역시 많아 괴소문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고 있다. ‘대전 지진’이라는 키워드는 오후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0.txt

제목: ‘경마기도’ 강요, 폭행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 징역형  
날짜: 20170213  
기자: 제주=주미령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45944001  
ID: 01100201.201702131459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경마 도박에 빠져 자녀에게 ‘경마 기도’를 강요하고 폭행을 일삼은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br/> <br/>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63)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서씨는 2013년 9월 경마기도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부인이 가출하자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에게 다음 회 출전 예정인 경마 기수들과 경주마의 번호를 외우게 하고, 하루 약 14시간 명상을 통해 우승마를 떠올리게 하는 등 경마기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서씨의 이 같은 행위는 2016년 7월까지 계속됐다. <br/> <br/> 아들에게 경마기도를 시키기 위해 ‘병간호’를 핑계로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하게 하는 등 학대가 이뤄졌고, 예상 우승마를 예측하지 못하면 목검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도 이어졌다. <br/> <br/> 심지어 자신에게 머리를 맞아 심하게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고도 수건으로 지혈만 한 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비정한 모습도 보였다. <br/> <br/> 경찰조사 결과 서씨는 같은 범죄로 2년 간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고, 출소 이후에도 이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r/>  <br/>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사범행으로 복역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반인륜적인 행태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1.txt

제목: “청와대가 미르재단 사무실 위치까지 정해줬다”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42944001  
ID: 01100201.20170213142944001  
카테고리: 정치>청와대  
본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직원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을 특정해 출연금을 지시한 것은 청와대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br/> <br/> <br/>이들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에서 회의를 4차례 열었고, 최 전 비서관은 미르재단 설립 계획부터 출연기업, 사무실 조건, 이사진 명단 등 재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span class='quot0'>최 전 비서관이 청와대 1차 회의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낼 9개 기업을 지정했다</span>”고 진술했다. 이어 “9개 기업을 노트에 받아적은 기억이 분명히 난다”고 말했다. <br/> <br/>이씨는 “<span class='quot1'>첫 회의에서 행사계획서를 건네니 최 전 비서관이 행사 준비가 아니라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1주일만에 300억원 규모의 재단이라고 했다</span>”고 밝혔다. 그는 첫 회의가 끝난 뒤 최 전 비서관의 지시 사항을 정리한 ‘한류문화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br/> <br/>추진계획에는 재단 사무실 조건도 적혀있다. 1순위는 강남권 기업 사옥 내, 2순위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내, 3순위는 역삼동 콘진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 내다. <br/> <br/>이씨는 “<span class='quot1'>처음부터 강남권을 강조했고 우선 순위가 높았다</span>”며 “<span class='quot1'>최 전 비서관이 강남·이면도로, 4~5층 건물, 독채로 조건을 말하며 2순위와 3순위는 제외됐다</span>”고 말했다. <br/> <br/>재단 이사진 명단도 최 전 비서관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span class='quot1'>최 전 비서관이 문건에 9개 기업 인사들이 이사진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보고 대표로 1명 정도만 들어가라고 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사진 명단을 물어보니 본인도 수석께 받아야 한다며 다음날 주겠다고 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12.txt

제목: 아델 ‘헬로’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음악상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32244001  
ID: 01100201.201702131322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아델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음악상’을 수상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시상식에서 벌써 3관왕을 확정했다. <br/> <br/> 아델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에서 ‘헬로’(Hello)로 올해의 음악상과 베스트팝솔로퍼포먼스상을 차지했다. 이 곡을 수록한 앨범 ‘25’로 베스트팝보컬앨범상까지 손에 넣었다. <br/> <br/> 아델의 다관왕은 이미 오프닝 무대부터 짐작되고 있었다. 아델은 ‘헬로’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br/> <br/> 지난해 12월 사망한 영국 가수 조지 마이클의 헌정 무대 역시 아델이 맡았다. 아델은 노래를 부르던 중 슬픔에 사로잡힌 듯 공연을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br/> <br/> 아델은 올해의 음악상을 수상한 뒤 “공연을 잠시 중단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 상을 수여한 그래미에 감사하다. 함께 작업한 작곡가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br/> <br/>최우수 신인상은 챈스 더 래퍼에게 돌아갔다. 챈스 더 래퍼는 2011년 데뷔했다. 정규 앨범을 출시하지 않고 오직 믹스테이프(비공식 앨범)로 이 상을 받은 사상 첫 뮤지션이 됐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3.txt

제목: 김의성 “누가 누굴 검증해”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 저격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31244001  
ID: 01100201.201702131312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배우 김의성이 SBS 특집 프로그램 ‘대선주자 국민면접’을 비판했다. <br/> <br/> 김의성은 지난 12일 오후 11시20분 트위터에 “<span class='quot0'>저런 거지 같은 프로그램을 아예 볼 생각도 안 하는 내가 챔피언</span>”이라고 적었다. 1분 뒤 “누가 누굴 검증해, 진짜”라고 덧붙여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br/> <br/> SBS는 같은 날 오후 11시10분 대선주자 국민면접 방송했다. 김의성은 10여분 동안 시청한 뒤 트윗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판의 대상을 방송 콘셉트인지, 검증단 전체인지, 검증단 중 일부인지 분명하게 지목하지 않았다. <br/> <br/> 이 방송은 유력 대선주자 5명을 불러 면접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검증단 5명이 대선주자 1명을 앉히고 기업 입사 지원자처럼 압박 면접을 진행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확인하고 논란거리를 해명하는 취지였다. <br/> <br/> 김진명 강신주 진중권 허지웅 작가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전여옥 전 의원이 검증단으로 참여했다. 진행자는 SBS 박선영 아나운서였다. <br/> <br/> <br/> 첫 회 출연자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현재 차기 대선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다.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문 전 대표의 뒤를 이어 출연한다. <br/> <br/> 김의성의 트윗을 놓고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선을 ‘취업’으로 묘사한 방송 콘셉트, 그 내용과 편집, 검증단의 자질 등을 놓고 김의성과 마찬가지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으로는 “대선주자를 검증할 창구 중 하나로서 나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br/> <br/>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타임라인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입사 지원자에게 미리 질문지를 건네고 면접한 느낌”이라는 의견과 “대선주자를 검증할 여러 경로 중 하나일 뿐이다” “테러 발생을 가정하고 대응 방법을 살핀 부분은 좋았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br/> <br/>▶“장시호의 폭로는 계속된다” 형광펜까지 동원된 자필 진술서 <br/>▶“돌아온 언니의 뒤태” 이효리 근황 사진 화제 <br/>▶“아직 이혼 못했지만…” 유퉁, 33세 연하 몽골여성과 8번째 결혼 <br/>▶이재용 “송구하다”→“진실 말할 것” 미묘한 변화 <br/>▶[단독] 최순실, 고영태 부모 찾아가 ‘호빠 다니는 쓰레기’ 협박 지시 <br/>▶“로또가 인생 망쳤다” 유럽 로또 최연소 당첨자 소송 준비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4.txt

제목: 대권출마 준비중인 김관용 경북지사 팬클럽 ‘용포럼’ 14일 출범한다  
날짜: 20170213  
기자: 안동=김재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22044001  
ID: 01100201.201702131220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대권출마를 준비 중인 김관용 경북지사(사진)의 팬클럽 성격의 모임인 ‘용포럼’이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br/> <br/> <br/>용포럼은 김 지사의 오래된 지지모임인 ‘느티나무회’가 확대된 것으로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7만여명의 지지자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날 창립대회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고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용포럼은 앞으로 보수결집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 포럼, 세미나, 학술대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br/> <br/>특히 김 지사의 지지모임답게 그의 활동 상황을 널리 알리는 등 외곽 지원 역할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br/> <br/>용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 “<span class='quot0'>무너져가는 보수이념을 바로 세우고 분열된 보수진영의 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밝히고자 한다</span>”며 창립 목적을 밝혔다. <br/> <br/>그러면서 “시대정신을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열린 보수의 길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해 분열된 보수의 대통합으로 보수정권 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김 지사의 대권 행보 지원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br/> <br/>조우동 사무국장은 “<span class='quot1'>용포럼은 불과 2개월여 만에 7만명에 이르는 회원이 모집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겁다</span>”면서 “<span class='quot1'>앞으로는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 조직으로 키워 나가는데 집중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그는 또 “<span class='quot1'>모임이 결성된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보수결집과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것</span>”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br/> <br/>대규모 지지모임이 결성된 만큼 김 지사의 대선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br/> <br/>이번에 결성된 ‘용포럼’외에도 김 지사의 정책지원 그룹인 ‘미래분권포럼’을 비롯한 몇 개의 외곽 지원모임이 더 생겨날 전망이다. <br/> <br/>이와 관련 김 지사는 “<span class='quot2'>용포럼은 순수한 지지모임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것</span>”이라면서 “<span class='quot2'>고장난 보수를 수리하고 보수진영이 결집하는데 큰 역할을 해 나가기를 기대한다</span>”고 화답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5.txt

제목: “탄핵시 새누리 총사퇴하라” 바른정당 요구에 되받은 새누리당  
날짜: 20170213  
기자: 최민우 인턴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13744001  
ID: 01100201.20170213113744001  
카테고리: 정치>행정\_자치  
본문: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시 소속 의원들의 총사퇴를 촉구한 바른정당을 향해 “<span class='quot0'>언급할 가치도 없는 졸렬한 작전</span>”이라고 되받았다. <br/> <br/>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생존전략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한다. 그것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br/> <br/> 그는 “<span class='quot0'>(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간 이상 헌재에 맡겨야 할 상황이며 정치권이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span>”며 “<span class='quot0'>야당이 탄핵의 내용과 시기를 결정해서 (주장하고) 안 되면 마치 혁명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행동하는 건 반헌법적 작태</span>”라고 비난했다. <br/> <br/>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바른정당의 주장은) 졸렬하기 그지 없다. 전략도 비전도 전무한 바른정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이 바른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건 블랙코미디”라고 밝혔다. <br/> <br/> 이어 “탄핵 결과에 새누리당이 어떤 책임을 질지는 우리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며 “당을 배신하고 떠난 바른정당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br/> <br/> 정병국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정당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탄핵 추진 책임을 지고 의원직 총사퇴로 책임을 질 것”이라면서 “인용된다면 반대했던 새누리당 의원들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책임 정치 측면에서 총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최민우 인턴기자 cmwoo11@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6.txt

제목: 아델, 그래미 어워드 다관왕 확정… 시상식 초반부터 2관왕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12944001  
ID: 01100201.20170213112944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영국 싱어송라이터 아델이 제59회 그래미 어워드에서 다관왕을 예약했다. 시상식 초반부터 2관왕을 달성해 미국 팝스타 비욘세와의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 <br/> <br/> 아델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에서 ‘헬로’로 베스트팝솔로퍼포먼스상, ‘25’로 베스트팝보컬앨범상을 수상했다. <br/> <br/> 아델은 앨범 ‘25’의 타이틀곡 ‘헬로’로 오프닝 무대를 장식했다. 특유의 가창력으로 객석을 사로잡았다. 시상식 초반부터 다관왕을 확정해 지난해 세계 가요계를 휩쓸면서 경쟁한 비욘세보다 우위를 점했다. <br/> <br/> 최우수 신인상은 챈스 더 래퍼에게 돌아갔다. 챈스 더 래퍼는 2011년 데뷔했다. 정규 앨범을 출시하지 않고 오직 믹스테이프(비공식 앨범)로 이 상을 받은 사상 첫 뮤지션이 됐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17.txt

제목: “무임승차 감당 못해”… 전국 도시철도, 정부대책 요구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12544001  
ID: 01100201.20170213112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노인 무료승차 급증으로 인한 재정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를 향해 한목소리로 대책을 요구했다. <br/> <br/> <br/>도시철도 무임수송은 국가의 보편적 복지정책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br/> <br/>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전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공동대응 기조에 따라 향후 16개 기관은 ‘노후 전동차 교체·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무임 수송 정부지원 법제화’와 재정지원을 주내용으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유관기관에 재정적 지원 요구 건의문을 제출했다. <br/> <br/>나아가 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br/> <br/>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운행노선 확장으로 무임수송이 늘면서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 <br/> <br/>특히 노후전동차 교체 등 시설 재투자 시기가 맞물리면서 어려움이 가중됐다. <br/> <br/>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1997년부터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br/> <br/>서울시 양대 지하철공사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대비 유임인원 증가율은 2.7%지만 무임인원 증가율은 15.4%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br/> <br/>2015년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7개 기관의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환산액은 4939억원에 이른다. <br/> <br/>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재원 수조 원이 필요하지만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span>”고 말했다. <br/> <br/>대조적으로 정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손실액의 평균 70%를 지원받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항변이다. <br/> <br/>서울도시철도공사 나열 사장은 “<span class='quot1'>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인데도 운영기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상반기 중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span>”고 말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18.txt

제목: 경찰, 차광렬 차병원 회장 자택 압수수색… 제대혈 불법시술 혐의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3544001  
ID: 01100201.201702131035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을 불법시술한 의혹을 받는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br/> <br/>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부터 직원 30여명을 분당차병원,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 교수 자택에 투입,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br/> <br/>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모두 9차례 제대혈을 시술한 혐의(제대혈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r/> <br/>제대혈관리법은 연구 목적 외의 이유로 절차를 밟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r/> <br/>분만 과정에서 탯줄에서 채취하는 혈액인 제대혈에는 혈액을 새롭게 만드는 조혈모세포와 연골, 뼈, 근육, 신경을 만드는 줄기세포가 있어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에 쓰인다. <br/> <br/>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사장이 불법으로 제대혈 시술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r/> <br/>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차 회장이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피부노화 방지 등을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준 대가로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19.txt

제목: ‘멸종위기 수달’ 총으로 쏴 잡아먹은 40대 입건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2544001  
ID: 01100201.20170213102544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을 공기총으로 쏴 잡아먹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r/> <br/>전북 장수경찰서는 13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농민 오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r/> <br/>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 낮 12시쯤 남원시 인월면의 한 하천에서 공기총으로 수달 한 마리를 쏴 죽인 뒤 창고에서 불에 구워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오씨는 호기심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r/> <br/>그는 “어떤 남성이 하천에서 수달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br/> <br/>경찰은 오씨의 창고에서 비둘기와 꿩 등 다수의 동물 사체가 발견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20.txt

제목: 이재용 특검 재소환… 삼성 관련주 일제히 하락  
날짜: 20170213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2144001  
ID: 01100201.201702131021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삼성 관련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검 재소환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br/> <br/> 삼성전자는 13일 오전 10시1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만4000원(1.25%) 하락한 18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만9000원(1.24%) 내려간 151만8000원이다. <br/> <br/> 삼성물산은 2.35%포인트 하락한 12만4500원, 삼성SDI는 1.2%포인트 떨어진 12만3500원, 삼성SDS는 1.17%포인트 빠진 12만6500원, 삼성전기는 1.77%포인트 내려간 5만5600원이다. <br/> <br/> 이 부회장은 오전 9시45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소환됐다. <br/> <br/> 이 부회장은 지난달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같은 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r/> <br/>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의 이 부회장 소환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20여일만이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1.txt

제목: [포토]또 불려온 이재용, 몰린 취재진  
날짜: 20170213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0544001  
ID: 01100201.20170213100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2.txt

제목: [포토]이재용 부회장, 재소환  
날짜: 20170213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0344001  
ID: 01100201.201702131003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3.txt

제목: [포토]재소환 되는 이재용 부회장  
날짜: 20170213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0144002  
ID: 01100201.2017021310014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4.txt

제목: [포토]특검 또 불려온 이재용  
날짜: 20170213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100144001  
ID: 01100201.201702131001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다 눈을 감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5.txt

제목: [포토]재소환 이재용, '날카로운 눈빛'  
날짜: 20170213  
기자: 윤성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95744002  
ID: 01100201.20170213095744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달 12일 첫 소환 조사 이후 32일 만이며,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로는 25일 만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6.txt

제목: 문재인 안희정 황교안 ‘1강 2중’, 안철수·이재명 하락… 리얼미터 조사  
날짜: 20170213  
기자: 정승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95744001  
ID: 01100201.20170213095744001  
카테고리: 정치>국회\_정당  
본문: 차기 대선주자들의 경쟁 양상이 1강(문재인) 2중(안희정·황교안)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이 같은 체제로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br/> <br/>1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2월 2주차 주간 집계 여야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9%의 지지율로 1위를 굳혔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 16.7%,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15.3%,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br/> <br/>문 전 대표는 2월 1주차 대비 1.7%p 오른 32.9%로 2위권과 여전히 15%p 이상의 격차를 유지하며 압도적 1위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는 지역별로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다. <br/> <br/>안희정 지사는 ‘대연정론’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3.7%p 오른 16.7%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2위 자리를 2주 연속 지켰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전 주보다 2.9%p 상승한 15.3%를 기록하며 안희정 지사와 오차범위 내의 2위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반면 3명의 선두주자를 쫓는 4~5위권 주자들의 지지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4%p 내린 9.5%로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0.8%p 내린 7.8%를 기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역시 1.0%p 하락한 3.9%로 6위에 머물렀다. <br/> <br/>이밖에 손학규 전 의원은 0.9%p 오른 3.2%로 7위,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p 상승한 2.3%로 8위를 차지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0.3%p 오른 1.8%로 9위, 남경필 경기지사는 0.2%p 오른 1.5%로 집계됐다. 유보층(없음·모름 응답자)은 6.3%p 감소한 5.1%로 조사됐다. <br/> <br/>이번 주간집계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20%)과 무선(7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8.0%(총 통화시도 3만1406명 중 2511명 응답 완료)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 <br/>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7.txt

제목: 대구 경찰, 조폭 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일당 붙잡아  
날짜: 20170213  
기자: 대구=최일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94944002  
ID: 01100201.20170213094944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7명을 입건해 운영자 A씨(3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br/> <br/>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필리핀 서버) 18억원 상당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한 7명 중에는 사이트 운영자 A씨를 비롯해 4명이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br/> <br/>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조직폭력배들의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28.txt

제목: 안희정·황교안, 오차범위 내 2위 접전… 문재인, 6주 연속 1위  
날짜: 20170213  
기자: 뉴시스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94944001  
ID: 01100201.20170213094944001  
카테고리: 정치>정치일반  
본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13일 6주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다. <br/> <br/>MBN·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10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2511명을 조사해 13일 발표한 2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2.9%로 전주대비 1.7% 포인트 올랐다. <br/> <br/>문 전 대표는 서울(35.2%), 경기·인천(32.8%), 충청(26.2%), 부산·경남(33.0%), 대구·경북(31.1%), 호남(37.0%)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br/> <br/>대연정론을 제안한 안 지사는 전주대비 3.7% 포인트 오른 16.7%로 3주 연속 상승하며 황 대행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 2위를 지켰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새누리당, 무당층 등 주로 비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올랐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 <br/> <br/>안 지사는 경기·인천(32.8%)과 충청(26.2%)에서는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에 올랐다. 서울(13.2%), 부산·경남(14.8%), 대구·경북(14.1%), 호남(16.4%)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br/> <br/>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후 보수층에서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오른 황 대행은 전주대비 2.9% 포인트 상승한 15.3%로 처음으로 15%를 넘으며 안 지사와 오차범위 내 2위 접전을 벌였다. <br/> <br/>황 대행은 서울(15.5%), 대구·경북(25.5%), 부산·경남(18.8%)에서는 2위, 경기·인천(12.4%)과 충청(17.2%)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br/> <br/>지난 4주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4% 포인트 떨어진 9.5%를 기록, 안 지사와 황 대행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렸다. 안 전 대표는 호남(18.4%)에서 문 전 대표에 이어 2위를 유지했지만 서울(12.2%), 경기·인천(8.8%), 충청(7.2%), 대구·경북(3.8%), 부산·경남(7.8%)에서는 4위 이하로 떨어졌다. <br/> <br/>이재명 성남시장은 전주대비 0.8% 포인트 떨어진 7.8%를 기록, 1월 1주차 이후 5주 연속 하락하며 안 지사와 황 대행에 오차범위 밖에서 뒤처졌다. 수도권과 부산·경남, 30대와 60대 이상,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안 지사나 문 전 대표로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br/> <br/>이밖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9%로 6위를 기록했으며 손학규 전 의원(3.2%), 심상정 정의당 대표(2.3%), 홍준표 경남지사(1.8%), 남경필 경기지사(1.5%)가 뒤를 이었다. <br/> <br/>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문 전 대표와 안 지사의 동반 강세에 힘입어 전주대비 5.6% 포인트 오른 43.8%를 기록했다. 당명 교체를 앞둔 새누리당은 바른정당 지지층을 흡수하며 2.9% 포인트 오른 14.5%를 기록해 2주 연속 2위를 유지했다. <br/> <br/>국민의당은 전주대비 0.1% 포인트 오른 11.6%로 새누리당과 오차범위 내 2위 경쟁을 벌였다. 정의당은 수도권과 30대 이하, 중도층과 진보층에서의 강세로 1.4% 포인트 오른 6.8%를 기록하며 조사 이래 처음으로 바른정당을 제치고 4위에 올라섰다. <br/> <br/>반면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층이 급격하게 이탈한 바른정당은 지난주보다 2.7% 포인트 떨어진 5.6%로 6주 연속 하락하며 정의당에 밀려 5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br/> <br/>이번 조사는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무선 전화면접(20%), 무선(70%)·유선(10%) 자동응답 혼용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r/> <br/>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br/> <br/>▶“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br/>▶“참 지X도 풍년이십니다” 이외수, 탄핵 반대 여론 맹비난 <br/>▶“장례 때 인터뷰한 안희정 의심한다” 노무현 사위 페북글 ‘시끌’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 <br/>뉴시스

언론사: 국민일보-5-929.txt

제목: “아들 돌봐주는 말기 암 엄마 때문에 변심” 장시호 옥중 인터뷰  
날짜: 20170213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00944001  
ID: 01100201.20170213000944001  
카테고리: 문화>문화일반  
본문: 최순실의 충실한 심복에서 폭로자이자 원수로 돌변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방송을 통해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더 이상의 거짓말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엄마와 아들을 생각하라는 검사의 설득에 마음을 움직였다고 밝혔다. <br/> <br/> <br/> <br/>12일 오후 9시50분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서면으로 진행한 장씨의 옥중 인터뷰를 공개했다. 공개한 인터뷰에는 최씨를 배신하고 국정농단의 전말을 폭로한 이유가 담겨있다. <br/> <br/>장씨는 “2번의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부인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아들과 엄마를 생각하라는 검사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엄마가 현재 암 말기인데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다. 하나뿐인 아들을 맡아 키워줄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br/> <br/>제작진은 변호인과 수사팀 관계자의 말을 근거로 최씨가 언니인 최순득씨 부탁을 뒤로하고 영재센터가 장씨의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소식을 장씨가 전해 듣고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br/> <br/> <br/> <br/>서면인터뷰에서 장씨는 또 최씨가 보유한 금고가 3개이며, 그 중 차은택의 포레카 지분 서류, 인사 관련 서류, VIP한식순방 서류가 담긴 빨간 금고를 특검이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금고는 최씨의 운전기가 방 과장과 미승빌딩 관리자 문모씨가 운반했고, 방 과장이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장씨는 말했다. <br/> <br/>장시호의 수행비서인 A씨와의 인터뷰도 전파를 탔다. A씨는 제작진에게 수 백 건의 비밀 문건이 담긴 USB를 건네기도 했다. 비밀 문서에는 한글과 오방색을 적용한 새로운 태권도복 디자인이 담긴 기획안이 포함됐다. 이는 약 8조원의 이권을 챙길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br/> <br/>▶안중근 의사가 테러범? … 부평경찰서 테러예방포스터 논란 <br/>▶“다짜고짜 서두원과 잤냐고 물었다” 맥심, 송가연 인터뷰 추가 공개 <br/>▶“실력 갖춘 금수저!” 고등래퍼 출연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br/>▶“오빠랑 하자·엄마 때려줘” 장용준 조건 만남·인성 논란 <br/>▶'버럭' 전원책은 어제자 썰전에서 이렇게 웃었다(영상) <br/>▶“양반과 노비 재현” “교육이 썩었다”… 전국이 들썩 <br/>▶“일본 인정?” 포켓몬고, 독도 체육관 韓 영토 표기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0.txt

제목: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11명 대가족 시집살이… 암 진단의 죽음 앞에서 부활 믿고 거듭난 삶  
날짜: 20170213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3000355002  
ID: 01100201.20170213000355002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춘천에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셨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에서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와 보니 이미 혼수상태였고, 그 길로 며칠 후 세상을 떠나셨다. 그 일 후 시골로 이사해 팔십이 넘으신 시할머니, 시아버지, 거기다 결혼 안 한 시누이와 시동생 다섯 명, 우리 애들까지 총 11명이 한집에 살게 되었다. <br/> <br/> 대식구의 집안일뿐 아니라 시할머니 머리도 깎아 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며 13년 동안 힘든 수발을 해야 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무기력한 상태가 됐다. <br/> <br/> 난생 처음 ‘신이 계신다면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남편에게 다짜고짜 교회에 가겠다고 선포하고 어느 교회를 찾아갔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로 남편의 학원이 어려워진데다 남편이 보증섰던 후배가 부도를 내면서 하루아침에 우리는 쫄딱 망했다. 살기 위해 아파트 입주 청소부터 정육점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모든 게 무능한 남편 탓이라며 미워하고 원망하는 싸움의 삶이었다. <br/> <br/>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했고, 남한테 나쁜 짓 한번 하지 않았는데 내가 암이라니! 날 이렇게 만든 게 남편이라는 생각에 끝없이 원망을 했다.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에 정신이 아찔했다. <br/> <br/> 막상 죽음 앞에 서보니 그 누구도 날 대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갑자기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목사님께서 이세상은 잠깐이고 싹 다 썩어질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정말이구나, 이 세상은 안개와 같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과 영혼뿐이구나’하는 마음이 들었다. 죽음 앞에 막상 내가 서 보니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이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실제가 됐다. <br/> <br/> 수술 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는데 “네가 믿느냐”고 강하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다. 그대로 아멘이 나왔다. <br/> <br/>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은 간곳없고 오히려 기쁨이 임했다. 부활의 말씀들이 진정 실제가 됐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했지만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가고 벌벌 떠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다. <br/> <br/>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한 것을 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요한복음 2장 말씀이 너무나 선명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내 죄도 사함 받고 내 믿음도 헛되지 않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진정 아멘이 나왔다. <br/> <br/> 모든 사람이 믿을만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었고 이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정확해졌다. 나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br/> <br/> 암을 발견하게 하심도 감사했다. 비록 내가 죽는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수술 후 문병 온 친척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픈 사람 같지 않고 편안해 보인다고 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자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언론사: 국민일보-5-931.txt

제목: 건강 위해성 우려 ‘캡슐담배’ 4년간 판매량 5배 늘었다  
날짜: 20170211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1180955001  
ID: 01100201.2017021118095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건강 위해성이 우려되는 ‘캡슐 담배’ 판매가 최근 4년간 5배 가까이 급증한 걸로 나타났다. 국내 캡슐 담배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규제는 전무하다. 캡슐 담배는 멘톨이나 계피, 과일향, 감미료 등을 머금은 알갱이(캡슐)를 필터에 첨가해 흡연 시 터지면서 특정 향을 내도록 한 제품이다. <br/> <br/> 1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간한 위클리 이슈 6호 ‘가향(加香)담배란? 그 위해성 및 규제 방안’에 따르면 국내 캡슐 담배 판매량은 2012년 9800만갑에서 2015년 4억8700만갑으로 약 4.9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장 점유율도 전체 담배의 2.3%에서 15.0%로 6.5배 늘었다. <br/> <br/> 캡슐 담배는 일반 궐련에 비해 건강 위해성이 더 높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대표적인 가향물질인 멘톨의 경우 말단신경을 마비시켜 담배연기를 흡입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흡연자가 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더욱 많이 흡수하도록 해 중독 가능성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인다. <br/> <br/> 건강증진개발원 김지혜 선임연구원은 “<span class='quot0'>특히 캡슐 담배는 캡슐이 포함돼 있지 않은 가향담배보다 많은 양의 가향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캡슐을 터뜨리면서 필터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한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가향 담배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span class='quot0'>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과 유럽연합(EU)과 같이 급증하는 캡슐 자체를 담배에 삽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전체 가향 물질로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span>”고 지적했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2.txt

제목: [단독] 배우가 출연료전액 남몰래 기부하면 생기는일  
날짜: 20170210  
기자: 신은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0154444001  
ID: 01100201.201702101544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한 배우가 몸이 아프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위해 드라마 출연료 전액을 내놨다. 이런 선행은 한 소방공무원이 관련 공문을 한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 소방공무원이 동명이인의 다른 배우를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배우는 별다른 홍보나 전달식 없이 남몰래 기부하길 원했다. <br/> <br/>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데뷔 10년차 배우 이준혁이다. 그는 1월 19일 종영한 KBS 4부작 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의 주인공을 맡았다. 극중 소방관 역할을 맡아, 암에 걸린 선배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이번에 확인된 선행은 드라마에서와 굉장히 비슷했다. <br/> <br/> <br/> <br/>이준혁의 선행 소식은 10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한편의 글때문에 알려졌다. 소방본부에 내려온 공문을 캡처한 해당 글에는 이준혁이라는 동명의 다른 배우가 선행의 주인공으로 언급됐다. <br/> <br/> <br/> <br/>그러나 국민안전처에 확인해보니 주인공은 또 다른 이준혁으로 밝혀졌다. <br/> <br/>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커뮤니티에 언급된 배우가 아닌 또 다른 이준혁"이라며 "지난달 '맨몸의 소방관'이라는 드라마가 종영한 뒤 배우가 직접 기부 의사를 밝혔다. 최근 18개 도시 소방본부에 대상자를 모집한다는 공문이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br/> <br/>소수에게 충분하게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배우의 의사를 고려해 국민안전처는 3인의 소방공무원이나 그 가족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r/> <br/> <br/> <br/>국민안전처를 통해 확인하는 동안, 이준혁 소속사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br/> <br/>소속사 관계자는 "<span class='quot0'>배우는 알려지는 걸 싫어하겠지만 소속사에서는 반가운 일</span>"이라며 "<span class='quot0'>오히려 동명의 다른 배우의 이름이 언급돼 그 배우분께 누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span>"고 걱정했다. <br/> <br/>기부금 전달식 등 관련 공식 행사는 없다는 것이 소속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br/> <br/>이준혁은 드라마 '파랑새의 집' '적도의 남자' '시티헌터' 등에 출연했다. <br/> <br/>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3.txt

제목: 대장 건강, ‘오메가3식품’으로 지키자…영양제 섭취도 추천  
날짜: 201702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0140044001  
ID: 01100201.2017021014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한국인의 대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 명당 대장암 환자 수는 272명으로 위암(302명)과 유방암(285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br/> <br/>대장 질환은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내시경을 하지 않는 한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때문에 평소에 대장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기름진 음식과 붉은 육류, 음주, 흡연 등은 피해야 하며,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 과일 등을 많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오메가3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가 대장 용종이나 암의 발생을 막아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br/> <br/>영국 리즈대학의 마크 헐(Mark Hull) 박사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자 28명에게 매일 2g짜리 EPA(오메가3지방산 성분 중 하나) 캡슐을 6개월 동안 섭취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장 용종의 수가 평균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r/> <br/>뉴욕 윈드롭 대학병원의 줄스 가버스(Jules Garbus) 박사 역시 비슷한 결과를 내놨다. 가버스 박사는 1700명의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오메가3와 대장암 치료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하루에 0.3g의 오메가3를 섭취한 환자들은 0.1g 이하의 오메가3를 섭취한 환자들에 비해 대장암 사망률이 41% 낮았다고 밝혔다. <br/> <br/>오메가3는 필수지방산으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해야 한다. 대표적인 오메가3식품은 연어, 청어, 고등어, 참치 등의 등 푸른 생선이다. <br/> <br/>평소 오메가3식품을 잘 챙겨 먹지 못한다면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단, 오메가3지방산은 어종에서 얻어내는 기름 성분인 만큼 제품을 고를 땐 순도를 높이는 추출법이 적용됐는지, 산패 위험은 최소화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 뒤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br/> <br/>오메가3 추출법은 헥산 추출, 분자 증류 추출, 초임계 추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초임계 추출법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오메가3가격은 좀 비싸지만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br/> <br/>초임계 추출법이란 50도 이하의 저온에서 이산화탄소로 오메가3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헥산 추출법처럼 화학용매제를 이용하지 않고, 분자 증류 추출법처럼 과도한 열을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에 화학물질의 잔류 위험이나 열에 의한 원료 변성 가능성이 없다. <br/> <br/>아울러 오메가3는 한 알씩 낱개 포장된 것이 산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개별 포장된 제품은 공기 노출을 차단해주고 높은 온도에도 녹거나 눌러 붙지 않는다. <br/> <br/>알티지 오메가3 브랜드 뉴트리코어 관계자는 “오메가3는 일반 영양제보다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형태가 알티지(rTG)인지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알티지 형태가 자연 오메가3 지방산 형태와 가장 유사하여 흡수율, 생체이용률 모두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뉴트리코어 알티지 오메가3는 초임계 추출법에 정밀한 정제 과정인 초임계크로마토그래피까지 더해진 제품으로, 더욱 깨끗하고 품질 좋은 알티지 오메가3를 공급한다”며 “개별 포장은 물론, 산화 방지 효과가 있는 비타민E를 부원료로 첨가해 오메가3지방산의 산패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4.txt

제목: 홀로 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주님 음성 담은 노래 듣는다  
날짜: 20170210  
기자: 최기영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10000156001  
ID: 01100201.20170210000156001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바움에서 만난 CCM 가수 한웅재(47) 목사는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이란 이름으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 온 그였다. 콘서트 제목은 ‘한웅재×콘서트 1년 그 마지막 공연 겨울’이다. <br/> <br/> “특별할 것 없는 공연”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더욱 특별함이 느껴지는 건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한 목사가 찬양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br/> <br/> “찬양을 사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노래로 흘려보냈지요. 기회를 주셔서 그 노래를 세상에 알렸고 사람들이 공감해 준 겁니다. 아빠들이 어디 가서 아빠 사역한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찬양하는 것도 비슷해요. 지금도 공연장에 제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제 음반을 사는 것이 신기합니다(웃음).” <br/> <br/> ‘소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등 한 목사가 지금까지 10장의 음반을 통해 들려 준 노래들은 한 곡도 빠짐없이 배경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이야기와 체험이기 때문에 공감지수도 높다. 대중들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눈을 감으면 가사가 보이는 듯하다’고 그의 음악을 표현한다.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가사에 당시 상황을 함축한 문장이 포함돼 있어 회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노래를 들을 때 배경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려지면서 머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감사할 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무대 위에서 찬양과 함께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관객들의 앨범 구매 패턴도 바꿔 놨다. 콘서트 기획을 맡고 있는 김동언 스페이스바움 대표는 “<span class='quot1'>보통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반은 최근 발매된 것 중심이지만 한 목사는 다르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관객들이 공연에서 감동 받은 곡이 포함된 음반을 찾아 구매한다</span>”고 말했다. 그래서 공연장 판매 부스에는 과거 발표된 음반들까지 항상 준비돼 있다. <br/> <br/> 11일엔 겨울 콘서트 시작과 함께 그의 11번째 음반도 발매된다. 2년 전 선보였던 찬송가 앨범 ‘HYMN’의 두 번째 편이다. 12곡이 담긴 음반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와 함께 창작곡 ‘그 이름을 부른다’도 삽입됐다. 창작곡에 대해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홀로 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아낸 곡</span>”이라며 “이번에도 한웅재 같은 노래”라고 했다. <br/> <br/> 이번 음반에도 말하듯 노래하는 한웅재 특유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1년 6개월여 동안 라디오 진행자로서 청취자들과 소통했던 것이 무대 위와는 또 다른 영감을 줬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CBS JOY4U ‘한웅재의 아침묵상’을 통해 매일 아침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span class='quot2'>심장 수술을 앞둔 아이를 향한 소망, 암에 걸린 엄마를 위한 기도 등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span>”는 그에게서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들려주는 DJ’를 넘어선 치유자의 모습이 엿보였다. <br/> <br/> 이번 콘서트는 11∼13일, 17∼19일 하루 1회씩 스페이스바움에서 열린다. “<span class='quot2'>은혜로운 노래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노래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 문을 열어준 것일 뿐</span>”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이 겨울 노래 한 소절을 요청했다. <br/> <br/>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중) <br/> <br/>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사진= 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35.txt

제목: 주님 음성 담은 노래… CCM가수 한웅재 ‘마지막 겨울’  
날짜: 20170209  
기자: 최기영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9171544002  
ID: 01100201.20170209171544002  
카테고리: 문화>음악  
본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바움에서 만난 CCM 가수 한웅재(47) 목사는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난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이란 이름으로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나 온 그였다. 콘서트 제목은 ‘한웅재븇콘서트 1년 그 마지막 공연 겨울’이다. <br/> <br/> <br/> <br/>“특별할 것 없는 공연”이라고 말하는 그의 말에 더욱 특별함이 느껴지는 건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한 목사가 찬양을 대하는 마음이 남다르기 때문이다. <br/> <br/>“찬양을 사역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노래로 흘려보냈지요. 기회를 주셔서 그 노래를 세상에 알렸고 사람들이 공감해 준 겁니다. 아빠들이 어디 가서 아빠 사역한다고 얘기하지 않듯이 찬양하는 것도 비슷해요. 지금도 공연장에 제 노래를 들으러 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제 음반을 사는 것이 신기합니다(웃음).” <br/> <br/>‘소원’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등 한 목사가 지금까지 10장의 음반을 통해 들려 준 노래들은 한 곡도 빠짐없이 배경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이야기와 체험이기 때문에 공감지수도 높다. 대중들은 ‘그림을 보는 것 같다’ ‘눈을 감으면 가사가 보이는 듯하다’고 그의 음악을 표현한다.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가사에 당시 상황을 함축한 문장이 포함돼 있어 회화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span>”며 “<span class='quot0'>그 노래를 들을 때 배경 이야기가 잠시나마 그려지면서 머무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감사할 뿐</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br/> <br/>무대 위에서 찬양과 함께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은 관객들의 앨범 구매 패턴도 바꿔 놨다. 콘서트 기획을 맡고 있는 김동언 스페이스바움 대표는 “<span class='quot1'>보통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되는 음반은 최근 발매된 것 중심이지만 한 목사는 다르다</span>”면서 “<span class='quot1'>관객들이 공연에서 감동 받은 곡이 포함된 음반을 찾아 구매한다</span>”고 말했다. 그래서 공연장 판매 부스에는 과거 발표된 음반들까지 항상 준비돼 있다. <br/> <br/>11일엔 겨울 콘서트 시작과 함께 그의 11번째 음반도 발매된다. 2년 전 선보였던 찬송가 앨범 ‘HYMN’의 두 번째 편이다. 12곡이 담긴 음반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찬송가와 함께 창작곡 ‘그 이름을 부른다’도 삽입됐다. 창작곡에 대해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홀로 앉아 있을 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담아낸 곡</span>”이라며 “이번에도 한웅재 같은 노래”라고 했다. <br/> <br/>이번 음반에도 말하듯 노래하는 한웅재 특유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한 목사는 “<span class='quot0'>1년 6개월여 동안 라디오 진행자로서 청취자들과 소통했던 것이 무대 위와는 또 다른 영감을 줬다</span>”고 설명했다. 그는 CBS JOY4U ‘한웅재의 아침묵상’을 통해 매일 아침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 “<span class='quot2'>심장 수술을 앞둔 아이를 향한 소망, 암에 걸린 엄마를 위한 기도 등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이 기억에 남는다</span>”는 그에게서 ‘노래하는 사람’ ‘노래를 들려주는 DJ’를 넘어선 치유자의 모습이 엿보였다. <br/> <br/>이번 콘서트는 11~13일, 17~19일 하루 1회씩 스페이스바움에서 열린다. “<span class='quot2'>은혜로운 노래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 노래가 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듣는 이의 마음 문을 열어준 것일 뿐</span>”이라고 말하는 그에게 이 겨울 노래 한 소절을 요청했다. <br/> <br/> <br/>“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중) <br/> <br/>최기영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36.txt

제목: '쉼 없는 배란'이 난소암 부른다  
날짜: 20170209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9135944001  
ID: 01100201.20170209135944001  
카테고리: 사회>여성  
본문: 결혼을 하지 않는 올드미스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 여성은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다. <br/> <br/> 2015년 통계청이 국내 신혼부부(초혼인 5년차 이하의 부부) 117만 9000쌍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낳지 않은 부부는 41만 9000쌍으로 35.5%를 차지한 한편, 미혼 여성 비율이 전체 연령에서 증가한 가운데 특히 30대 여성이 2010년20.4%에서 2015년 28.1%로 가장 큰 폭(7.7%)의 증가율을 보였다. <br/> <br/> 최근 난소암의 발병이 늘어가는 이유가 이런 올드 미스와 딩크족 여성이 증가하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br/> 난소암은 사망률 47% 이상으로 여성암 중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난소암 발병이 2011년 1만2669명에서 2014년 1만6927명으로 33.6%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난소암 사망률 또한 47% 이상으로 전체 여성암 중 1위다.  <br/>  <br/>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기도 하는 난소암은 초기 자각증상이 거의 없고 효과적인 진단 검사도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에는 환자의 70%가 3기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돼 완치가 힘들고 재발도 잦다. <br/> <br/> 이러한 난소암의 발병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연구에 의하면 난소암의 10%는 유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BRCA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여성은 정상 여성보다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10배 이상 높아진다. <br/>  <br/> 또 본인이나 가족이 유방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등의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난소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유방암이 생기면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2배 높아지고, 난소암이 있으면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3~4배 많아진다. <br/>  <br/> 그런데 90%이상의 대다수 난소암은 가족력과 상관없이 발생하는데, ‘쉼 없는 배란'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배란으로 인한 세포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전자 변이를 획득한 세포가 암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br/>  <br/> 난소암 고위험군으로는 고령, 출산 경험이 없거나 첫 출산을 30세 이후에 늦게 한 여성,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여성 및 불임 등이 있는 경우인데, 이처럼 배란 횟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난소암의 위험 인자들이다. <br/>  <br/> 중앙대병원 산부인과 이은주 교수는 9일 “난소암은 여성이 배란할 때 난소가 난자를 배출하<span class='quot0'>면서 </span>생기는 과정에서 생긴다"<span class='quot0'>면서 </span>"난소의 표면층이 터지<span class='quot0'>면서 </span>난자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 때마다 터진 곳을 수리하기 위해 세포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DNA 손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br/> 이어 “이 때문에 배란을 많이 할수록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들어 결혼하지 않는 여성과 출산하지 않는 여성의 증가로 배란을 많이 하는 가임기 때 임신, 출산으로 인한 배란 횟수가 줄어들지 않아 난소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br/>  <br/> 실제 영국 옥스퍼드대 암역학연구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를 하나 둔 여성은 자녀를 출산한 일이 없는 여성에 비해 난소암 위험이 20% 낮고, 자녀를 더 낳을 때마다 난소암 위험은 8%씩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또 다른 연구에서도 출산 횟수가 한 번이면 난소암 위험은 전혀 출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약 10%, 출산횟수가 3번이면 50%나 줄어들었다. <br/>  <br/> 출산 자녀 수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수유를 하는 것도 배란 횟수를 줄여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br/> 호주 커틴대학 보건대학원 연구진이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모유 수유 기간이 최소한 13개월 이상인 여성은 7개월 이하인 여성에 비해 난소암 발병률이 평균 6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수유기간이 31개월 이상인 여성은 10개월 미만인 여성에 비해 난소암 위험이 91%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br/> 이는 임신 뿐만 아니라 모유 수유가 배란을 지연시켜 난소의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 노출 기회를 줄여주기 때문이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임신 및 수유를 통해 배란을 억제해야 난소암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미혼여성과 자녀를 두지 않거나 고령 출산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고위험군 여성들은 경구피임약 복용을 통해 배란을 억제하거나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CA125 종양표지마커 측정)를 통해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수</span>”라고 말했다. <br/> <br/> 이 교수는 “<span class='quot0'>또 유전성 난소암의 발병 위험성을 고려해 직계 가족 중에 난소암이 2명 이상이거나, 직계가족 중에서 난소암, 유방암이 합쳐서 2명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대장암, 자궁내막암, 난소암등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span>”고 권고했다. <br/>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7.txt

제목: 가톨릭대 의생명연, 8일 ‘가톨릭정밀의학연구센터’ 개소  
날짜: 2017020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9101844001  
ID: 01100201.201702091018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원장 전신수)은 8일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연구 및 임상적용에 본격화하기 위해 가톨릭정밀의학연구센터를 새로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br/>사진). <br/> <br/> <br/>가톨릭정밀의학연구센터는 암 및 복합질환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 연구, 질병유전자 분석 패널 개발, 개인 맞춤형 아바타 동물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임상적용을 위한 분석기술 지원, 신약 후보 발굴, 정밀의학 현장 전문가 교육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br/> <br/>초대 소장으로는 오랜 세월 유전체 분석 기술을 연구해온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정연준 교수가 선임됐다. 정연준 교수는 가톨릭인간유전체다형성연구소와 유전체 분석 전문 벤처법인인 커넥타젠㈜를 이끌며 여러 유전체 관련 국가 연구사업을 수행해온 전문가다. <br/> <br/>정연준 소장은 “<span class='quot0'>올해 3월부터는 ‘차세대염기서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암패널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라 유전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질병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본다</span>”며 “<span class='quot0'>임상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한국형 암패널 개발 및 기술보급을 본격화하고, 가톨릭중앙의료원의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톨릭정밀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이 빅데이터를 암 치료기술 개발 연구와 진료로 연결시켜 나갈 계획</span>”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r/> <br/>한편 가톨릭대는 미래의학의 중심이 될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TF팀을 구성해 로드맵을 그려왔다. 이어 이 청사진에 따라 2016년, 암 유전자변이 분석을 위한 ‘암 유전자 패널 활용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암 정밀의학 실용화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유전체 분석 전문가도 연구교수로 영입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38.txt

제목: 전남대 민정준 이준행 교수 연구팀, 박테리아로 암 치료하는 기술 개발  
날짜: 20170209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9040355001  
ID: 01100201.201702090403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국내 연구진이 암을 치료하는 박테리아를 만들어냈다. 식중독과 장염 등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살모넬라균과 비브리오균을 유전공학적으로 융합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이제이’(以夷制夷·적을 이용해 적을 물리침)의 신개념 암 치료법이다. <br/> <br/> 전남대 의대 핵의학교실 민정준(사진)·미생물학교실 이준행 교수 연구팀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암 면역치료 강화기술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 온라인판(9일자) 커버스토리로 채택됐다. <br/> <br/> 살모넬라균 같은 박테리아는 암 조직에 친화성이 강해 암에 걸린 생명체에 주입할 경우 정상조직에 비해 10만배 정도로 과다 증식한다. 면역세포(대식세포·수지상세포 등)도 활성화된다. <br/> <br/> 10여년간 항암 면역효과를 높이고 독성을 거의 없앤 살모넬라균주를 만들어온 연구팀은 여기에 항암 보조작용을 하는 비브리오균의 편모(플라젤린B)를 생산하도록 유전공학적으로 재설계했다. <br/> <br/> 민 교수는 “<span class='quot0'>살모넬라가 암에서 플라젤린B를 만드는 것이 관찰됐고, 원발성 대장암과 전이된 대장암 쥐 모델에서 85∼90%의 암 치료 효과를 보였다</span>”고 설명했다. 피부에 대장암을 이식한 쥐에 살모넬라균을 정맥주사했더니 24일 후에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 <br/> <br/> 살모넬라는 암세포만 콕 집어 면역세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플라젤린B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2단계로 암 치료를 극대화하는 원리다. 민 교수는 “<span class='quot0'>추가 독성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쳐 5∼10년 내에 신개념의 항암 치료제가 개발되길 기대한다</span>”고 했다. <br/> <br/><br/>

언론사: 국민일보-5-939.txt

제목: [데스크시각-고세욱] 아라리요 평창 vs 웰컴 투 동막골  
날짜: 201702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9172655001  
ID: 01100201.201702091726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9일로 꼭 1년 앞둔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 현황이 궁금했다. 유튜브에서 ‘PyeongChang’을 검색했다. 한두 건을 제외하고는 평창올림픽 관련 홍보 동영상 상당수가 천 단위, 만 단위의 조회수에 그쳤다. 이 중 눈에 띈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9월 공개한 ‘Arariyo PyeongChang’ 뮤직비디오였다. 제목도 독특했고 조회수도 8일 현재 8만회에 육박해 평창 관련물 중 나름 높아 자연스럽게 시선이 끌렸다. <br/> <br/> 클릭한 지 채 1분도 안돼 실소가 나왔다. ‘댄스바이러스가 평창에 출현했다’는 자막으로 시작된 것부터 어설픈 K팝 흉내 냄새가 났다. 아니나 다를까. 걸그룹 가수와 몇몇 개그맨이 3분50초 동안 민요 ‘아리랑’을 댄스 버전으로 노래하고 춤추는 게 전부였다. 여기서 올림픽의 의미와 취지를 알긴 어려웠다. 이 영상은 댓글뿐 아니라 ‘좋아요’나 ‘싫어요’도 하나 없는 무관심의 공간이었다. 이번에는 한글 검색으로 ‘아라리요 평창’에 들어가 봤다. ‘좋아요’가 40개인 반면 ‘싫어요’는 1500개 이상이었다. 댓글도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평창올림픽 홍보 영상 중 최고 화제작이지만 역효과가 우려스러울 정도였다. <br/> <br/> 평창올림픽은 총체적 난국이다. 최순실이 올림픽도 농단하려 했다는 의혹에 열기는 뚝 떨어졌다. 지난 7일 갤럽조사 결과 평창올림픽에 관심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48%에 그쳤다. 정부와 강원도, 올림픽조직위원회가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평창과 코리아의 이미지를 제시하는가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강남스타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아라리요 평창’식 홍보는 비웃음만 살 뿐이다. <br/> <br/>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홍보 목표는 단순해야 한다. 개최국의 특징에 맞춰 ‘남북 접경지역 평창에서의 평화제전’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공교롭게도 12년 전 평창에서 촬영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는 평창올림픽이 지향해야 할 바가 오롯이 담겨 있다. <br/> <br/> ‘웰컴 투 동막골’은 한국전쟁 기간 강원도 오지 ‘동막골’에 모여든 국군, 인민군,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들은 처음에는 이념 차이로 서로 적대시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다가 마지막에는 동막골을 지키려고 힘을 합친다. <br/> <br/> 대북 제재와 미·중 갈등, 글로벌 혐오주의가 고조된 현 상황은 ‘웰컴 투 동막골’의 시대 배경과 흡사하다. ‘2018 평창’을 동막골로 만들려면 국제 갈등의 당사국들, 특히 북한의 참가가 급선무다. 육로를 통한 북한 선수단의 평창 입성과 같은 극적인 이벤트가 열리면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이다. 북 마식령 스키장 등을 올림픽 훈련시설로 개방토록 하는 아이디어도 내봄직하다. 요즘 같은 때 불가능한 얘기일 순 있다. 하지만 민망한 뮤직비디오 제작에 돈과 시간을 쏟기보다 평화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지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br/> <br/> 유튜브 ‘아라리요 평창’을 방문하면 1988 서울올림픽의 ‘hand in hand(손에 손잡고)’가 관련 영상으로 떠 있다. 105만 조회수가 넘은 이 작품에는 ‘눈이 정화된다’ ‘아라리요 보다가 걸린 암이 나을 것 같다’는 등 ‘아라리요’와의 비교우위 댓글이 넘쳐난다. 화면은 조악하지만 냉전시대 말미에 ‘손을 잡고 벽을 넘자’는 메시지는 신선했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이를 보고 환호하는 이유다. 북을 제외한 사회·자본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참가한 29년 전 올림픽 스타디움은 하나의 동막골이었다. 이후 냉전의 벽은 급속히 무너졌다. <br/> <br/>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아라리요 평창’식 홍보가 나을까, ‘웰컴 투 동막골’식 발상이 옳을까. 답은 나와 있다. 빠른 실천이 중요할 때다. 1년은 금방 간다. <br/> <br/>고세욱 스포츠레저부장 swko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40.txt

제목: ‘암 정복 사나이’ 다니엘 제이콥스, 사각링도 정복하다  
날짜: 20170208  
기자: 김태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8051055001  
ID: 01100201.20170208051055001  
카테고리: 국제>유럽\_EU  
본문: 2011년 3월 중순 그는 동료 복서들과 함께 이라크의 한 미군 기지를 찾았다. 파병 미군들의 노고를 달래 주는 봉사 투어에 참가한 것이다. 갑자기 그의 두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그는 단순한 신경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기공명촬영(MRI)을 해 보니 골육종(뼈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었다. 의사는 그에게 “복싱은커녕 걷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프로 복서 다니엘 제이콥스(30)는 암을 극복했고, 이제 세계 통합 챔피언을 바라보고 있다. ‘황금의 아이(The Golden Child)’였던 그의 별명은 ‘기적의 사나이(The Miracle Man)로 바뀌었다. <br/> <br/> WBA(세계복싱협회) 정규챔피언인 제이콥스는 3월 18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WBA 슈퍼챔피언 게나디 골로프킨(35·카자흐스탄)에게 도전한다. 이 시합은 골로프킨이 보유하고 있는 WBA, WBC, IBF의 미들급 타이틀이 걸려 있다. WBA에선 정규챔피언이 4전 이상의 방어전에 성공하면 슈퍼챔피언으로 격상된다. 러시아인과 고려인 혼혈인 골로프킨은 프로 통산 36전 36승(33KO)을 거둔 세계 최고의 파이터다. 제이콥스도 33전 32승(29KO)1패를 기록한 강자이며, 2012년 복귀 후 10연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어 승부를 예측하기 어렵다. 제이콥스가 골로프킨의 아성을 무너뜨린다면 다음 상대는 누굴까. <br/> <br/>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은 7일(한국시간) “제이콥스가 IBO 슈퍼 미들급 챔피언 크리스 유뱅크 주니어(28)의 유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영국 출신의 유뱅크는 지난 4일 호주의 레놀드 퀸란(28)을 10라운드 TKO승을 거두는 등 25전 24승(19KO)1패를 기록하며 주가를 올리고 있다. 한때 회생불능으로 여겨진 이 복서는 이제는 세계 최고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br/> <br/>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제이콥스가 암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2011년 5월 그는 뉴욕의 한 병원에서 6시간 동안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그는 처음엔 휠체어를 타고, 다음엔 목발을 짚고 나중엔 지팡이에 의지해 암과 싸웠다. <br/> <br/> 물론 실의에 빠질 때도 있었다. 제이콥스는 복싱 잡지 ‘더 링’과의 인터뷰에서 “재활을 하며 ‘왜 하필 내게,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닥쳤나’며 화를 내기도 했다. 암은 나를 시험에 들게 했다”고 털어놓았다. <br/> <br/> 제이콥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준 사람은 여자 친구 나탈리 스티븐슨이었다. 그녀는 “의사는 수술을 받은 제이콥스가 당분간 아무 것도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두 시간 만에 수프를 먹었다”며 “그는 재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 의사들을 놀라게 했다. 나는 그를 ‘기적의 사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br/> <br/> 제이콥스는 2012년 10월 고향인 뉴욕에서 19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러 상대 조쉬 루더랜를 1라운드에 KO시키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2013년 8월 WBC(세계복싱평의회) 미들급 컨티넨탈 아메리카스 챔피언에 올랐다. 2014년 8월엔 호주의 제라드 플렛처를 5라운드 KO로 쓰러뜨리고 WBA 정규 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암 진단을 받은 지 약 3년 반 만에 이룬 기적이었다. 그는 지난해 9월까지 치른 4차례 방어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br/> <br/> 제이콥스는 완치 판정을 받은 후 동병상련의 암환자들을 위해 많은 돈을 기부하고 있다. 그는 암과 싸우고 있는 환우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암과 싸우며 삶에 대한 열망이 더욱 간절해졌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과거엔 세계 최고의 복서가 되는 것에 집착했지만 이젠 그렇지 않아요. 나의 사연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엔 ‘왜 하필 내게…’라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이젠 ‘나였지만 괜찮아’ 하고 말합니다.” <br/><br/> <br/>

언론사: 국민일보-5-941.txt

제목: [역경의 열매] 김형석 <15> ‘호텔 예배’ 뒤 3년 6개월 동안 北에 못 들어가  
날짜: 20170207  
기자: 정리=윤중식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7001255001  
ID: 01100201.20170207001255001  
카테고리: 정치>북한  
본문: 방북단이 평양을 떠나던 날 아리랑축전영접위원회는 평가회를 제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철 상무위원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span class='quot0'>앞으로 한민족복지재단 김형석 사무총장은 절대 공화국을 출입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span>” 이후 나는 방북을 금지 당했고 그들은 나를 ‘공화국 창건 이후 최대의 반동’이라고 비난했다. 모든 선교지가 그렇지만 그중에도 북한은 특별한 위험지역이다. 라진·선봉에서 활동하던 이광덕 목사, 김재열 목사,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선교사는 체포돼 심한 구타와 함께 옥고를 치르고 추방당했다. <br/> <br/> 방북 일정 도중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 1990년 9월에는 나성영락교회 김계용 목사가, 2006년 3월에는 몽골선교사 최순기 목사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지금도 북한에는 임현수 목사 외에 대한민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목사가 억류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계속해 북한을 드나든다. 왜 이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면서도 찾아가는 것일까. 두말할 나위 없이 성령의 이끌림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시작한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그런 점에서 이들의 행적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인 ‘북한행전’이다. <br/> <br/> 2001년 7월 한민족복지재단과 북한어린이돕기 캠페인을 추진하던 국민일보에는 ‘남한 의사 북한서 첫 암수술’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사연은 이랬다. 국제로타리클럽 후원으로 평양의대병원에 임시 수술장을 차렸다. 그래서 3640지구 총재인 김진복 박사가 모니터링 하러 가는 기회에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 이후 평양의대병원에서는 6차례에 걸쳐 남북한 의료진의 합동수술이 진행됐다. 주로 심장병 수술이었는데 기독의사들은 수술 전에 기도로 시작했다. <br/> <br/>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셨다. 그중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북한선교위원장 조명호 집사는 내가 방북을 금지당한 것을 무척 안타까워했다. 한·미·일 3개국에서 첨단 정보통신(IT)기업을 운영하며 북한 고위층과 교제를 나누던 그는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북한을 왕래하며 고려호텔 예배의 진상을 소명하기 위해 자원해 수고를 감당했다. <br/> <br/> 나는 2005년 12월 8일 민족화해추진협의회(민화협) 초청으로 개성을 방문했다. 3년 6개월만의 방북이기에 감회가 새로웠다. 한국농업대학 박광호 교수가 개발한 복토직파농법을 실험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였다. 북측에서는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김인철 참사가 대표로 나왔다. 아리랑축전영접위원회 상무위원으로 주일예배 불허를 통보하고 나를 방북금지 시킨 장본인이었다. 그가 멋쩍은 듯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복지재단 회장이 되셨더군요. 지난 일은 잊고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br/> <br/> 2006년 2월 11일 평양을 방문했다. 그 다음날 찾아간 곳은 평남 숙천군 약전리협동농장이다. 농업성 김명철 정책국장과 박명순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원들이 참석했다. 박광호 교수가 복토직파농사에 대해 설명하자, 박 위원장이 말했다. “<span class='quot0'>농법은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는 일기가 좌우하지요.</span>” 내가 웃으며 말했다. “<span class='quot0'>일기는 내가 책임질 테니 농사만 잘 지으세요.</span>” <br/> <br/> 나의 방북 재개를 위해 그토록 애썼던 조명호 집사는 이듬 해 하나님 곁으로 부름을 받았다. <br/> <br/>정리=윤중식 기자 yunj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42.txt

제목: 작가 김훈 “해방 후 70년, ‘갑질의 역사’ 그대로라 비애감 느껴”  
날짜: 20170207  
기자: 손영옥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7213155001  
ID: 01100201.20170207213155001  
카테고리: 문화>전시\_공연  
본문: “<span class='quot0'>이 소설을 쓰면서 가진 자의 ‘갑질’이야말로 한국의 유구한 전통이란 걸 새삼 느꼈습니다.</span>” <br/> <br/> 밀리언셀러 작가 김훈(69)이 다시 전매특허인 장편소설로 돌아왔다. ‘흑산’(2011) 이후 6년 만이다.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작 장편 ‘공터에서’(해냄 출판사)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br/> <br/> 소설은 일제 강점이 시작된 1910년에 태어나 해방과 함께 만주에서 돌아와 이승만·박정희 정권을 거치며 살았고, 가정에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을 방황하다 암으로 죽은 아버지 마동수, 베트남전쟁에 파병됐다가 그 악몽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괌에 정착해 사업을 벌이는 1951년생 장남 마장세, 잡지사 기자로 일하는 1953년생 차남 마차세 등 한국 근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기신기신 살아온 마씨 집안 2대의 이야기다. 일견 작가의 가족사를 떠올리게 하는 자전적 소설이기도 하다. 김훈 작가의 부친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의 소설가 김광주다. <br/> <br/> 작가도 “제 부친은 1910년에 태어났고 저는 국가가 수립된 1948년 태어났다. 둘 다 도망갈 수 없는 시대적 운명의 피해자였다. 위정자들의 갑질에 피해만 당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span class='quot0'>이번 소설이 아버지 김광주를 모델로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있는데, 나의 아버지와 그 시대 많은 아버지를 합성한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 소설 속에는 어떤 영웅도, 시대에 저항하는 혁명가도 나오지 않는다. 현실에서 점점 밀려나는 보통 사람들이다. 지나치게 패배주의적 시각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탓일까. 그는 “희망을 말하다가 실패한 것 같다”며 “하지만 쓴 거보다 쓰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 쓰지 못한 부분을 나무라지 마시고, 쓴 부분에 대해 연민을 가지고 어여삐 봐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제 등장인물은 이념이나 사상이 없는 사람들이다. 생활의 바탕 위에서 이념과 사상이 전개돼야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br/> <br/> 그는 “저는 조정래 황석영 작가처럼 한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소설은 쓰지 못한다. 대신 디테일을 통해 더 큰 것을 드러냄으로써 글쓰기의 난관을 돌파하자고 생각해 미술로 치면 크로키하듯 썼다”고 말했다. <br/> <br/> 광화문 집회에 나간 경험도 이야기했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참가자 모두에서 함께 가자는 얘기를 들었지만 감기를 핑계로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갔다는 그는 “<span class='quot0'>아마도 참가자가 아니라 관찰자로 갔던 것 같다</span>”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이승만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동원돼 태극기를 흔들던 그 자리에서 지금 보수 단체의 탄핵 기각 태극기 집회가 벌어지는 걸 보고 해방 70년 한국사의 엔진이 이렇게 공회전하는 구나 비애감을 느꼈다”고 했다. 제목 ‘공터에서’는 끊임없이 가건물이 지어졌다 철거되는 그런 역사의 공회전을 상징한다. 하지만 끝내는 “위정자의 잘못으로 광장에서 함성이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희망을 말했다. 아버지 세대와 다른 김훈 세대가 보여준 진화일 것이다. <br/> <br/>글=손영옥 선임기자 yosohn@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43.txt

제목: ‘광운대학교,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 플라즈마의과학센터 개소식 가져  
날짜: 2017020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6173544002  
ID: 01100201.20170206173544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광운대학교(총장 천장호)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저온플라즈마(INP) 연구소와 함께 ‘플라즈마의과학 센터(Applied Plasma Medicine Center, APMC)’ 개소식을 지난 6일 오후 3시에 가졌다. <br/> <br/>현재 광운대에서 연구중인 플라즈마바이오과학은 우주의 기본 물질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아토피, 암, 알츠하이머 등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여 차세대 건강 복지에 의학적인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br/> <br/>따라서 이번 플라즈마의과학센터 개설은 난치성피부 질환과 피부 미용에 중점을 둔 연구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에 목표를 두고 있다. <br/> <br/>플라즈마바이오과학 연구센터의 소장인 최은하 교수는 이번 센터 개설로 인해 플라즈마의료기기 개발 및 인력양성, 교육 훈련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의과학 분야의 발전에 있어 큰 기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br/> <br/>최 교수는 지난 10월 국제 플라즈마 의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Plasma Medicine)을 통해 플라즈마의과학 분야에서 최고 연구업적을 쌓은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2016 ICPM 플라즈마 의학상(PMA)’을 수상하였으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선두연구센터 육성사업에서 융합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에 선정되어 지난 10년간 100억 이상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한편, 한독(韓獨) 공동 국제연구소인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는 플라즈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의학, 생명 공학 및 환경 신소재 분야와의 협력연구를 통해 ‘플라즈마바이오과학 및 의과학’이라는 새롭게 확장된 연구목표를 설계하여 지난해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Global Research development Center, GRDC)에 독일 라이프니츠 INP 연구소와 공동으로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의 설립을 제안하여 유치하게 되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44.txt

제목: [쿠키가 만난 명의-김열홍 고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 대장암 환자 치료중엔 잘 먹는 것이 중요  
날짜: 20170206  
기자: 전미옥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6111355001  
ID: 01100201.20170206111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대장암은 국내 발병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암입니다. 대장암의 주요 원인은 운동량 부족, 과식, 술·담배 등입니다. 현대화된 생활습관에 우리나라 환자들이 가진 유전자가 적응하지 못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br/> <br/> 지난해 6월 대한암학회 이사장에 선출된 김열홍 고려대안암병원 종양혈액내과 교수는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내 대장암 발병의 원인을 ‘현대화된 생활습관’으로 진단한다. 김 교수는 자신이 전공의로 재직할 당시 대장암 환자들이 드문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대장암 환자들이 눈이 띄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대장암은 작은 용종부터 시작해 서서히 자라나는 암으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 조기발견한다면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 수술 이후 완치율은 1기 환자의 경우 95%, 2기는 80∼85%, 3기에서는 65%로 높다</span>”며 “<span class='quot0'>나머지 재발·전이 환자들과 4기 이후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은 항암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다만 대장암은 재발률이 높은 편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체 대장암 환자의 약 40%가 재발환자로, 이들의 의료비 부담도 적지 않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장기간 치료받는 재발·전이 환자들은 의료비용이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부담이 비교적 크다</span>”고 말했다. <br/> <br/> 최근 주목되는 항암 표적치료제의 경우 현재 1,2차 치료제 두 가지만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3차 이후에 접어들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들이 많고 몇몇 환자들은 임상실험 참여해 치료 기회를 잡기도 한다</span>”며 “<span class='quot0'>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전신상태가 좋은데도 치료방법이 없어 지켜볼 수 밖에 없을 때는 무척 안타깝다</span>”고 말했다. <br/> <br/>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료비 보장성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br/> <br/>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건강보험급여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약의 효과나 가치, 경제적 부담 정도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는 본인부담 차등적용제를 주장하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의 일생을 기준으로 부담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환자의 일생동안 의료비용을 누적 계산한 것을 기준으로 어느 시기까지는 본인부담 비율을 높게 잡고, 이후에는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대폭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본다</span>”고 제안했다. <br/> <br/> 또한 김 교수는 “현재 1∼2기 암 진단을 받고 한차례 수술 이후 회복되는 환자들의 경우 본인부담금 5%만 부담하면 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다. 반면 재발·전이 환자들은 치료비 부담이 계속해서 증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령이 될수록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병기가 높은 경우가 많다.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해 개인의 일생동안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적용하는 보험급여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 <br/> 이와 함께 김열홍 교수는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들에게 ‘모든 암 치료 과정에서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암 환자들이 치료 중 민간요법과 같이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치료법에 매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증세가 악화되는 일이 적지 않으므로 꼭 담당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span class='quot0'>치료 중에는 체력 유지가 중요하다</span>”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span class='quot0'>대장암의 원인이 비만, 육식, 과식 등으로 지목되다보니 환자들이 치료 중에 육식을 자제한다든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그러나 치료 중에는 체력유지를 위해 골고루 잘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span>”고 덧붙였다. <br/> <br/>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com

언론사: 국민일보-5-945.txt

제목: 생존할수록 부담 커지는 대장암… 모두 관심을  
날짜: 20170206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6203155001  
ID: 01100201.2017020620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는 단연 암이다. 지난해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통계에 따르면 10만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150.8명에 이른다. 이중에서도 대장암에 대한 두려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대장암은 과도한 육식과 운동부족이 주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육식을 주로 하는 서구사회보다 발병률이 높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장암은 남성암중 위암에 이어 2위에 이를 정도로 남성에게서 흔한 병인데 2016년에는 남성 대장암 신규환자가 3만7000여명으로 위암 신규환자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때문에 대장암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예방적 차원에서의 대장내시경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 <br/> <br/> 반면 이미 대장암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이 수립되거나 검토되고 있지 않다. 대장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73.8%로 서구 국가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나 원격 전이 단계에서의 5년 상대 생존율은 남성 18.6%, 여성 17.6%로 그 추이의 차이가 크다. 이에 전이성 대장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 도입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 <br/> <br/> 전이성 대장암 치료에 사용되는 표적치료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중 현재 보험 급여가 되는 것은 단 두가지 약제뿐이다. 투약한 약제가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약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 비급여가 되고, 1·2차 모두 반응하지 않는 환자는 3차 치료에 급여가 되는 약이 없는 실정이다.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세가지 약제를 투약하는 환자의 경우 한달에 약 300만원에 달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 1∼3차까지 치료기간을 이어가면 투약기간은 평균 약 2년(20개월가량)에 이르며, 실제 임상에서 보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환자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많다. <br/> <br/> 대장암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위암과 함께 가장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나 고가의 표적항암제를 써야하기 훨씬 이전부터 수술비, 입원, 검사비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오랜 기간 짊어진 경우가 많다. 급여화가 절실한 전이성 대장암 3차 치료제로는 스티바가(성분명: 레고라페닙)가 있다. 스티바가는 표준 치료에 모두 실패한 전이성대장암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한 유일한 약제다. 허가 3상에서 스티바가는 전체생존율(OS)을 23% 개선시켰고, 무진행생존율(PFS)은 51% 개선시켰다. 또 전이성 암에서는 중요한 약효지표인 질병통제능력(DCR)에서도 효과(스티바가 41% vs. 위약군 15%)를 입증했다. <br/> <br/> 최근에는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가 임상인 CONCUR에서 부족했던 아시아인 대상 임상결과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 스티바가는 ESMO, NCCN등 세계 유수의 항암치료 가이드라인이 권고하는 전이성대장암 3차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2013년 한국에서 시판허가를 받았음에도 3년 동안 급여혜택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위장관 기질종양(GIST)이라는 희귀암에 급여 등재되기는 했으나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제가 필요한 전이성대장암에 대해서는 100대 100 본인부담에 묶여 있었다. <br/> <br/> 한편 한국 암치료보장성 확대 협력단이 최근 한국갤럽과 함께 암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3.8%의 환자가 비급여 항암치료제의 비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46.txt

제목: [토론회] 늘어나는 대장암, 효과적인 치료 방안 없나… 3차 치료 사용할 보험약제부터 마련하자  
날짜: 20170206  
기자: 정리=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6203055001  
ID: 01100201.201702062030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대장암 발병이 위암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암의 진행이 심각한 환자의 경우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부담을 낮추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쿠키뉴스는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들의 치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지난 1월24일 36차 고품격 건강사회 만들기 방송토론회를 개최했다. <br/> <br/>◇주제=늘어나는 대장암, 효과적인 치료방안은 <br/> <br/>◇참석자= 최도자 국회의원,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심병용 성빈센트병원 종양내과 교수, 장윤형 쿠키뉴스 기자 <br/> <br/>◇일시= 2017년 1월24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br/> <br/>◇진행= 원미연 쿠키건강TV 아나운서 <br/> <br/>◇연출= 이지현 쿠키건강TV PD <br/> <br/>◇방송= 2월6일(월) 오후 7시20분 <br/> <br/> <br/>심=대장암환자 들이 겪는 많은 여러 고통 심각하게 현장에서 몸으로 느끼고 있다. 경제적 부담감도 엄청나다. 대장암은 1,2차 급여약제 없던 이전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많은 암이었다. 이제 1·2차 급여되고, 3차 약제만 남은 상황이다. 아직도 큰 부담을 느끼는 많은 환자가 있고, 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수 있는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br/> <br/>장=환우단체들을 만나보면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는데 민간요법이나 치료비 줄이는 방법 등이다. 아파도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한다. <br/> <br/>최=아픈 거 걱정에, 돈 걱정에 힘들다고 하는데 아플 때 아픈 것만 생각하는 세상이 됐으면 한다. 어려움 호소했을 때 귀담아 듣고 방법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r/> <br/>고=보험약제에 있어서는 환자의 약제 접근성,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환자들이 혁신적 가치가 있는 신약에 대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험재정도 적정한 약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표적·면역항암제 급여방안 마련해 추진하겠다. 정리=조민규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47.txt

제목: 국제성모병원, 경인방송 OBS와 손잡고 암을 알자 캠페인  
날짜: 2017020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4114444001  
ID: 01100201.20170204114444001  
카테고리: IT\_과학>보안  
본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경인방송(OBS)와 손잡고 암 극복에 필요한 암 정보를 올바로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의학특강 및 암을 바로 알자 캠페인에 나선다. <br/> <br/>김준식 국제성모병원장은 4일 “<span class='quot0'>범람하고 있는 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암 환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암 관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암 극복에 대한 희망을 공유하기 위해 OBS와 함께 암을 바로 알자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span>”이라고 밝혔다. <br/> <br/>이 병원은 오는 16일 맞춤형 암치유병원도 새로 오픈한다. 국제성모병원은 이 병원을 통해 유전체 분석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한 개인별 맞춤 암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암관리 교육을 통해 암환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토탈케어 개념의 암치료를 구현할 예정이다. <br/> <br/>OBS TV와 함께 펼치는 대국민 의학 특강은, 6일부터 3월 10일까지 5주간에 걸쳐 하루 10분씩 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자는 취지로 진행된다. 또한 국제성모병원 전문 의료진이 강사로 나서 ▲암 성장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 ▲암을 이길 수 있는 식생활 ▲암을 이기는 운동 ▲다빈도 암의 진단과 치료 이후 관리 ▲진화하는 암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강을 할 예정이다. <br/> <br/>방송은 이 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9시 45분부터 10분간 OBS TV를 통해 ‘의학특강 암(癌)행어사’란 제목으로 전파를 타게 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48.txt

제목: "미용 아닌 암·뇌졸중 치료" 차병원 제대혈 무단 시술 사과  
날짜: 20170203  
기자: 천금주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3090244001  
ID: 01100201.20170203090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차병원이 기증 받은 제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br/> <br/>중앙일보는 차병원이 기증자에게 보낸 사과문을 3일 공개했다. 공개한 사과문에는 “최근 소량의 제대혈이 엄격한 연구절차를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br/> <br/>“<span class='quot0'>문제가 된 제대혈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연구용 제대혈이었다</span>”고 선을 그은 차병원은 “<span class='quot0'>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졸중 치료를 위한 탐색연구로 이뤄진 것</span>”이라고 해명했다. <br/> <br/>차병원 측은 또 “<span class='quot1'>다양한 연구과제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에서 연구윤리 의식이 소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한다</span>”며 “<span class='quot1'>기증자 여러분의 순수한 기증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무겁고 엄중한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span>”고 밝혔다. <br/> <br/>그러나 현행법상 시증제대혈을 이용한 시술은 임상시험 연구 대상자로 등록해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 사용된 제대혈은 차병원의 소유주인 차 회장 일가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차 회장 일가가 연구 대상으로 등록된 적이 없었으며 이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br/> <br/>앞서 제대혈 기증자들은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병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 받아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모교수를 불법시술 혐의로 수사 중이다. <br/> <br/>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49.txt

제목: 시각장애인 2명에 빛 선물한 권사님  
날짜: 20170203  
기자: 신상목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3000155007  
ID: 01100201.20170203000155007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암과 싸우다 별세한 성도가 자신의 각막을 기증하면서 시각장애인 2명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됐다. <br/> <br/> 주인공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신자인 고(故) 허정경(52·사진) 권사로 지난달 28일 별세 직후 각막이 2명의 시각장애인에게 전달됐다. 허 권사는 2005년 남편과 함께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이사장 임석구 목사)에 사후 각막과 뇌사 시 장기기증 등을 서약했다. <br/> <br/> 허 권사의 남편인 정진덕 권사는 2일 “아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며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었기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br/> <br/> 허 권사의 각막 기증은 별세 당일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을 통해 진행됐다. 각막 기증은 사망한 지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시각장애인에게 이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신속히 이루어졌다. 기증된 각막은 정밀검사를 거쳐 시각장애인 2명에게 이식됐다. <br/> <br/> 허 권사는 5년 전 자궁경부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유방암이 새로 발견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또 다시 폐로 암이 전이돼 절제 수술을 받는 등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br/> <br/> 허 권사는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어갔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모태신앙인 그는 98년 분당으로 이사하면서 만나교회에 출석했다. 이후 부부가 함께 교사로 봉사했고 허 권사는 초등부 교사로 1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br/> <br/>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는 “<span class='quot0'>장기기증 서약은 활발하지만 허 권사처럼 실제 기증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span>”이라고 말했다. 각막의 경우 국내에는 기증자가 드물어 미국 필리핀 등지에서 수입하고 있다. 생명을나누는사람들은 허 권사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0.txt

제목: “음악 영화 감상 등 인지훈련, 경도치매 개선 효과 좋다”  
날짜: 20170202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202114644002  
ID: 01100201.20170202114644002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노년층에서 치매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으로 여겨진다. 완치나 회복이 불가능하고,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들 모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br/> 커지는 공포감과 두려움만큼이나 치매 환자는 점차 늘고 있는데, 아직 완치법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과 함께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br/> 치매는 인지능력장애로 올 수 있는 질병을 통칭하는 용어다.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기억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여러 인지기능의 장애가 생겨 예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100가지도 넘는다.  <br/> 흔히 전문가들이 치매를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조기 진단을 통해 진행을 억제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다. 특히 건망증과 치매의 중간 단계라 볼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 들어섰다면 보다 적극적인 검사 및 치료를 통해 빨리 진단하고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br/> 실제로 국내 한 의료진이 음악과 영화 감상, 운동하기 등과 같이 비(非)약물요법으로 초기 단계 치매 환자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억제하는데 성공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기웅( <br/>사진 왼쪽), 한지원 교수 연구팀이 지역사회 거주 경도치매 및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을 위해 개발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br/> <br/> 연구팀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기관 무작위 위약 대조군과 비교해보는 임상시험연구를 통해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인지기능, 정신행동증상 및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 학술지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최근호에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br/> 이 연구는 총 64명의 지역사회 거주 경도치매 혹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주 3회, 총 8주간 진행됐다. 절반(32명)에게는 기존 연구의 체계적 고찰 및 메타 분석을 통해 치료 효과가 있다고 판정된 6개의 비약물치료법(인지훈련치료, 인지자극치료, 현실인식훈련, 운동치료, 회상치료, 음악치료)으로 구성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 나머지 32명(대조군)에게는 통상적인 인지활동 프로그램만 시행하는 방법이었다. <br/>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은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인지훈련치료가 각각 30분씩 이루어지고, 30분의 휴식시간 후 회상치료, 인지자극치료, 음악치료 중 한 가지 치료를 60분 교육으로 구성해 이루어졌다.  <br/> 반면, 통상적인 인지활동 모임에 참가한 대조군은 건강 관련 비디오 시청, 비디오 따라 체조하기, 자유로운 대화시간 및 오락 활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br/> [그림] 비약물치료프로그램 및 대조군 프로그램 구성 <br/> 그 결과, 연구팀이 개발한 비약물치료 프로그램은 대조군에 비해 간이정신상태검사(Mini-Mental State Examination)와 알츠하이머병 평가 척도(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Scale-Cognitive Subscale)로 평가한 전반적 인지기능에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으며, 우울 등과 같은 문제행동 도 약해지는 등 환자 스스로 느끼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br/> 간이정신상태검사에서는 통상적인 인지활동을 한 대조군은 오히려 0.2점 점수가 하락함에 비해, 비약물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실험군은 0.9점 상승함으로써 비약물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팀은 비록 8주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간의 수행만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바, 비용효과 측면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br/> 과거 국내에서는 정상 노인이나 경도인지장애 혹은 시설에 입소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위약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은 시행된 바 있었으나,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경도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군 비교 임상시험으로 비약물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는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br/> 한지원 교수는 “<span class='quot0'>이번 연구는 비약물치료법의 인지기능, 정신행동증상, 삶의 질에 대한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비약물적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치매 증상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1.txt

제목: “전문인력 양성·국제 경쟁력 확보에 최선”  
날짜: 2017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31051455001  
ID: 01100201.201701310514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본의 아니게 학회를 독식(獨食)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됐네요. 하하. 하지만 일을 잘 하면 학회장과 이사장 자리를 독차지했다는 소리는 쑥 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회원들도 그 기대감으로 다른 학회 눈치 안 보고 우리 두 콤비를 수장으로 동시 추대했을 겁니다.” <br/> <br/> 아주대의료원 유희석(63·산부인과) 박래웅(48·의료정보학과) 교수팀이 최근 대한의료정보학회 신임 회장과 이사장으로 각각 취임해 화제다. 그동안 의학계에서 특정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과 재정을 책임지는 이사장이 한 대학 교수들로 동시에 추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br/> <br/> 유희석 신임 회장과 박래웅 이사장은 30일, 입을 모아 “<span class='quot0'>열심히 일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의료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업계는 물론 학계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각오</span>”라고 포부를 밝혔다. <br/> <br/>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약학 등 의료분야와 컴퓨터공학 인지과학 산업공학 경영정보학 등 다학제 교수진과 연구진이 의료분야 정보화를 위해 힘쓰는 대한의학회 산하 학술단체다. 회장의 임기는 1년, 이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br/> <br/> 유 회장은 “<span class='quot1'>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면 승자독식체제로 바뀌어 1등만이 살아남게 되고 사람들도 허접한 제품은 안 쓰게 될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1'>4차 산업혁명 정보화시대에 한국이 2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정보를 개방,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span>”고 지적했다. <br/> <br/> 박 이사장도 “IBM사가 개발한 암 진단 및 치료정보 프로그램 ‘왓슨 포 온콜로지’도 빅데이터를 창조적으로 활용한 성공사례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의료정보 데이터를 서로 개방, 공유하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r/> <br/> 대한의료정보학회는 올 봄 아주대병원에서 의료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의료정보의 산업화와 활성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br/> <br/> 특히 박 이사장은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수요를 파악하고 결과 값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 복안이 생각대로 실현될 경우 국내에선 처음으로 복수의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보 공유 생태계가 구축된다. <br/> <br/> 박 이사장은 “<span class='quot0'>최근 의료계 화두인 인공지능(AI)도 데이터가 핵심인데, 우리나라는 표준화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한 게 현실</span>”이라며 “<span class='quot0'>공유 생태계가 구축되면 연구 환경에 혁신적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span>”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52.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내달 22∼23일 호스피스완화 의료교육  
날짜: 2017013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31051255001  
ID: 01100201.20170131051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다음달 22∼23일, 이틀 동안 ‘제12차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br/> <br/> 접수 마감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완화의료병동에서 봉사를 희망하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암이란 무엇인가 △음악요법의 실제 △말기암 환자의 심리간호 △말기환자의 증상관리 △말기환자의 영적 돌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봉사자 경험 나누기 및 체험 등 총 11개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53.txt

제목: [인터뷰] 선경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제품화 돕겠습니다”  
날짜: 20170131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31050355002  
ID: 01100201.201701310503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가져오세요. 신약이나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종합적인 연구 인프라를 제공하고 제품화를 돕겠습니다.” <br/> <br/>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재단) 선경 이사장의 새해 다짐이다. 선 이사장은 30일 “<span class='quot0'>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가 차세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산업을 부양하는 대장간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span>”며 “<span class='quot0'>첨복단지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정책적 배려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 취임 3년차에 들어선 선 이사장을 만나 올 한 해 신규사업 계획과 포부를 들어봤다. <br/> <br/>-오송재단의 역할과 새해 목표는? <br/> <br/> “신약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동시에 고가의 개발 장비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산업화하기까지의 과정은 아주 험난하다. <br/> <br/> 이렇듯 힘든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의 탄생과 부흥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장려할 목적으로 조성한 ‘바이오클러스터’가 첨복단지다.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센터, 실험동물센터 등 4개 시설이 핵심이다. <br/> <br/> 오송재단 역시 미래 국가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축된 바이오클러스터 중 하나다. 목표는 국내 바이오제약사들이 개발한 바이오의약품 및 생명공학기술(BT) 기반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와 산업화를 지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있다. <br/> <br/> 각 기업들과 협력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게 돕는 일도 한다. 죽음의 계곡이란 기초연구 및 개발에서부터 상품화 및 산업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암초처럼 숨어서 발목을 잡고 부가가치를 떨어트리는 장애물을 가리킨다. <br/> <br/>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은 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핵심시설이다. 오송재단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주기 지원 인프라를 갖춘 첨복단지라고 할 수 있다.” <br/> <br/>-벌써부터 신약개발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br/> <br/> “그렇다. 오송재단 지원으로 결실을 맺은 연구개발(R&D)관련 성공사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퇴행성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국내 제3상 임상시험연구가 지난해 4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현재 이 신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품목허가절차를 밟고 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판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 지난해 11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50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도 체결했다. 토종 바이오기업 ㈜제넥신은 오송재단 지원으로 다국적 제약사 MSD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치료 백신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제넥신의 HPV유전자백신 ‘GX-188E’와 MSD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효과적으로 병용해 HPV감염으로 발생한 암을 물리치는 게 목표다. <br/> <br/> 이밖에 간암 치료제 ‘펙사벡’을 개발 중인 신라젠㈜, 퇴행성관절염 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을 개발한 메디포스트, 일회용 내시경을 개발한 ㈜인트로메딕, 획기적인 환자감시 및 제세동 융합 시스템을 개발한 ㈜씨유메디칼 등도 오송재단의 지원으로 임상시험연구를 진행, 글로벌 산업화에 성공한 회사들이다. <br/> <br/> 오송재단 산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또한 지난해 12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국제숙련도시험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br/> <br/>-바이오헬스 산업 역군 양성 계획은? <br/> <br/> “오송재단은 미래 신(新)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수요에 맞춰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헬스케어 창업가뿐만 아니라 의료, 제약, 바이오 등 의료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br/> <br/> 세계에서 통하는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프랑스 그레노블대학, 이화여대경영대학원 등과 공동으로 바이오헬스케어 MBA과정을 개설,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본보기다. 이 과정은 헬스케어산업 분야의 신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경영 전략 및 관리 능력을 함양하는 실무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고, 이수자에겐 프랑스 학위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br/> <br/> 바이오헬스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수급 문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및 현장실무 인력 부족으로 외국의 연구기관에 인력양성교육을 위탁하는 사태가 벌어질 정도다. <br/> <br/> 인구 약 500만 명의 아일랜드도 ‘국립바이오공정교육연구소’(NIBRT)를 세워 세계적인 바이오 인력양성의 메카로 발전시켰다. 인구가 아일랜드보다 10배나 많은 우리나라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앞으로 오송재단이 그 역할을 자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할 각오다.” <br/> <br/>-선진 바이오클러스터 운영 노하우를 수출할 수도 있는가? <br/> <br/> “오송재단은 지난해 유럽 최대의 바이오클러스터인 프랑스 ‘제노폴’과 스위스 메디클러스터, 일본 아베노믹스 의료산업화 전략의 핵심 거점인 가와사키 바이오클러스터 킹스카이프론트 프로젝트, 오사카 의료기기 클러스터,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 말레이시아의 J-바이오텍 등과 전략적 협력계약을 맺었다. 우리나라 바이오기업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아시아 및 유럽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br/> <br/> 특히 올해는 이들 해외 바이오클러스터들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발,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br/> <br/> 오송재단은 지식산업 서비스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최적의 첨복단지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자부한다. 더욱이 정부가 지원하는 톱다운 방식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운영해본 경험은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다. 최근 들어 오송 바이오클러스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배경이다. <br/> <br/> 한국형 첨복단지 모델을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수출할 수만 있다면 국가성장 먹을거리 범위가 더욱 확장될 것이라 믿는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반 마련은 물론 세계 각국과 긴밀한 바이오헬스 연구 및 공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4.txt

제목: ‘설국열차 뒷칸 원로’ 존 허트, 췌장암 투병 중 사망  
날짜: 20170128  
기자: 김철오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8114244001  
ID: 01100201.20170128114244001  
카테고리: 문화>영화  
본문: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영국 배우 존 허트가 사망했다. <br/> <br/> 피플 등 외신은 28일 “허트가 췌장암 투병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허트는 1940년생으로 향년 77세다. <br/> <br/> 허트는 2015년부터 암과 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성공적으로 치료하고 있다”며 낙관했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했다. <br/> <br/> 허트는 드라마 시리즈 ‘마법사 멀린’으로 이름을 알렸다. 영화 ‘해리포터’ ‘헬보이’ ‘브이 포 벤테타’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등 할리우드 히트작에 출연했다. <br/> <br/> 한국 영화 마니아들에겐 봉 감독의 2013년작 ‘설국열차’ 속 뒷칸 승객을 이끄는 원로 길리엄 역으로 기억되는 배우다. <br/> <br/>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5.txt

제목: 혈액검사로 1분 내 전이암 찾아낸다  
날짜: 20170126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6181855001  
ID: 01100201.20170126181855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몇 방울의 피로 1분 내에 몸속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이를 활용하면 조직검사가 아닌 채혈만으로 전이암의 조기 진단은 물론 환자 맞춤형 암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br/> <br/> 울산과학기술원(UNIST) 생명과학부 조윤경 교수팀은 혈관 내를 순환하는 종양세포(CTC)를 선택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br/> <br/> CTC는 암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핏속에서 떠다닌다. 이들이 다른 조직에 붙으면 전이암이 발생한다. 이 세포를 찾아내면 전이암을 미리 발견할 수 있지만, 혈액 1㎖ 속 CTC는 수십 개 미만으로 매우 적어 검출하기 어렵다. 같은 양의 혈액 속에 적혈구는 수십억 개, 백혈구는 수백만 개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br/> <br/> 연구진은 일종의 실험 칩인 ‘FAST 랩온어 디스크(Lab-on-a-disc)’를 만들었다. 이 디스크 위에 혈액을 넣은 뒤 구동장치에 넣고 돌리면 크기가 작은 혈구세포가 필터 아래쪽으로 빠져나가고 CTC만 남는다. 연구진은 “<span class='quot0'>실제 암 환자 142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CTC를 95% 이상 효율로 포획할 수 있었다</span>”고 말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분석화학’ 최신호 표지논문으로 발표됐다.민태원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56.txt

제목: [일산 신경락한의원 조병준 원장의 해독이야기] ⑧ “독소 유입 막아라” 설 연휴 과식 금지  
날짜: 20170125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5210155001  
ID: 01100201.201701252101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인체에 유해한 독소가 유입되는 경로는 음식독을 시작으로 스트레독(울화독), 과로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독은 ‘과식에 의한 독소의 유입’에 가장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br/> <br/> 옛날은 영양 부족으로 병을 앓았지만 요즘은 과식으로 인한 병을 앓고 있다. 풍족한 먹거리 이면에는 수많은 식품첨가물, 방부제, 농약으로 찌든 땅에서 자란 농산물 등 불편한 진실이 존재한다. 그런 먹거리로 인하여 우리 몸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독소가 쌓인다. 설사 독소가 없는 안전한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과식을 한다면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 저절로 독소가 된다. <br/> <br/> ‘보통 우리가 먹는 식사량의 80%만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70%만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다. 먹을 때는 입도 눈도 즐겁지만 몸은 그것을 처리하느라 심한 고생이 시작된다.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몸은 엄청난 노동을 하게 된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헉헉거리며 힘들어 하는 우둔한 사람들을 뷔페식당에서 자주 보게 된다. <br/> <br/> 과식을 하면 먹은 음식물에 비해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못하여 위장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 또한 위산의 분비가 원활하지 못해 역류성식도염과 위궤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br/> <br/> 더불어 위장이 한꺼번에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고 췌장 등 소화기관에서 많은 소화효소들을 분비해야 한다. 위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대장으로 가서 부패한다. 이 때 다량의 활성산소가 나오는데 유해균의 증식을 가져와 설사와 변비, 각종 노폐물들이 혈액으로 유입되는 결과가 생긴다. <br/> <br/> 과식은 대사효소까지 과소비시켜 대사계에도 무리를 주게 되며 이는 핏속의 노폐물의 양이 늘어나 배설에 지장을 주게 된다. 몸이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노폐물, 수분이 축적되면서 혈액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당분, 염분 등이 쌓여 혈액이 더럽게 되고, 피부르산, 젖산, 요산, 암모니아 등의 독이 생긴다.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br/> <br/> 바꿔 말해 과식을 하지 않는다면 혈액을 위로 보내지 않아도 되므로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된다. 혈액은 모든 영양소, 물, 산소, 백혈구, 면역 물질을 거느리고 온몸을 순환하기 때문에 원활한 흐름을 유지해야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br/> <br/> 효소의 측면에서 봐도 소화효소로의 과소비를 줄여 대사효소가 늘어나면 전반적인 대사기능이 더욱 활성화된다. 암, 뇌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은 모두 과식과 포식, 운동부족으로 인한 병이다. <br/> <br/> 일본의 나가노 교수팀은 식사를 제한하지 않는 쥐 50마리, 식사를 80%로 제한한 쥐 50마리, 식사를 60%로 제한한 쥐 50마리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암 진행 상태를 조사했다. 식사를 제한하지 않은 그룹과 80% 제한한 두 그룹은 암세포 주입 후 2∼3주 동안 복부에 평균 11g의 종양이 생기고 4주째는 대부분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식사를 60% 제한한 마지막 그룹의 쥐들은 암세포 주입 후 2∼3주 동안 종양의 크기는 평균 7g이었고 대부분의 쥐가 7주까지 생존했다고 한다. 과식은 독소 축적의 가장 큰 원인이고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 <br/> <br/> 자신의 의지로 절제가 안되는 ‘공복감’ 때문에 과식하는 사람도 있다. 가공식품을 즐겨먹는 사람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와 효소가 부족하기 쉽다. 이 경우, 우리 몸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하여 공복감을 더욱 부추긴다. 그러나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들어 있는 채소와 과일 등의 자연음식을 먹지 않고 계속 가공음식으로 배를 채우니 배가 부른데도 공복감이 가시질 않는다. 그 결과, 체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비만체질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채식 등의 자연식을 함으로써 영양 부족 상태가 해소되고, 공복감이 사라지게 된다. <br/> <br/> 대부분 과식을 하게 되는 설 명절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과연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며 음식을 들자. <br/> <br/><기획특집팀>

언론사: 국민일보-5-957.txt

제목: 폐암 말기 투병 중 허욱 목사 "사명 이루기 위해"  
날짜: 20170124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4234444002  
ID: 01100201.20170124234444002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의 간판 프로그램 '7000미라클 – 땅끝으로(연출 전샘)'는 전북 익산에서 25년간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는 허욱(가나안교회) 목사의 사연을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 방송한다. <br/> <br/>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지체장애 1급인 허 목사는 척추 장애가 있는 아내를 만나 함께 장애인 목회를 해왔다.  <br/> <br/>바로 '가나안 사랑의 집'이다.   <br/> <br/> <br/>교회 건축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고 사채까지 빌리는 등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   <br/> <br/>3개월 전 허 목사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발견이 늦어 온 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 이미 의술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br/> <br/>하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소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허 목사는 말기 암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진통제에 의존해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br/> <br/> <br/>문제는 교회가 진 빚. 이자를 3개월만 내지 못하면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br/> <br/>그려면 가나안 사랑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는 식구들은 모두 원불교 재단의 관리시설로 옮겨질 전망이다.   <br/> <br/>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를 찾아가 사역을 소개하는 '7000미라클 – 땅끝으로'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모든 것을 나누고, 친구가 되어주는 허 목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후원과 중보의 손길을 기다린다. <br/> <br/>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Olleh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br/> <br/>재방송은 31일 오후 10시, 2월 1일 오후 2시 50분에 방송된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8.txt

제목: 인천성모병원, 다음달 22~23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실시  
날짜: 201701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4111544001  
ID: 01100201.201701241115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가톨릭의대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 몬시뇰)은 다음달 22~23일, 이틀 동안 ‘제12차 일반인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br/> <br/>접수 마감은 다음달 13일까지이며, 선착순 100명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완화의료병동에서 봉사를 희망하거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br/> <br/>교육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개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 ▲암이란 무엇인가 ▲음악요법의 실제 ▲말기암 환자의 심리간호 ▲말기환자의 증상관리 ▲말기환자의 영적 돌봄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봉사자 경험 나누기 및 체험 등 총 11개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br/> <br/>교육 이수자에게는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로부터 교육 수료증이 발급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 자격이 부여된다. <br/> <br/>호스피스완화의료 교육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전문교육을 통해 말기암환자의 영적인 지지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될 호스피스완화의료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역할도 맡는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59.txt

제목: 부산대병원도 IBM 인공지능 ‘왓슨 포 온콜로지’ 도입  
날짜: 201701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4110044001  
ID: 01100201.2017012411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부산대병원(병원장 이창훈)은 한국IBM을 통해 암 진단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와 ‘왓슨 포 지노믹스(Watson for Genomics)’를 도입, 25일부터 진료에 본격 활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br/> <br/>부산대병원은 두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유전체 분석 기반의 진료 서비스와 정밀 의료 및 암 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br/> <br/>‘왓슨 포 온콜로지’는 300개 이상의 의학 학술지, 200개 이상의 의학 교과서를 포함해 거의 15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의료 정보를 이미 학습했다. 의사들은 왓슨을 활용해 연구결과와 임상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소견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앞서 가천대길병원이 먼저 도입했다. 설치비는 1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이번에 국내에선 처음으로 선보이는 IBM ‘왓슨 포 지노믹스’는 방대한 의학 문헌 및 의약품 정보와 더불어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들이 개별 환자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을 추천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br/> <br/>‘왓슨 포 지노믹스 기술’은 표적 치료 옵션을 포함하여 암환자 종양의 유전자 프로파일과 암 유발이 가능한 유전적 변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0.txt

제목: 위암 수술 후 재발 위험도 유전자 검사로 알 수 있다  
날짜: 20170124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4101244001  
ID: 01100201.201701241012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은 암센터 이근욱 <br/> 교수와 미국 텍사스대 MD 앤더슨 암병원 이주석 <br/> 교수 연구팀이 유전자검사로 위암 수술 환자의 재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br/> <br/>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Clinical Cancer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위암은 재발 위험이 높아 수술 후에도 정기적 검사와 모니터링이 중요한 질환이다. 보통 재발 위험도는 조기 위암의 경우 5~10%, 3기 이상의 위암에서는 40~7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가암정보센터) <br/> 그러나 이렇게 1~4기로 평가되는 암의 ‘병리학적 병기(Pathologic Stage)’ 를 근거로 한 재발 위험도 평가는 환자 개인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여서 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br/> 연구팀은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위암 수술 환자 267명의 암 유전체를 분석했다. 환자의 예후에 영향이 있는 ‘YAP1’ 유전자의 활성 및 암 재발, 사망 위험 등과 연관성이 있는 유전자 156개도 추출했다. <br/> 이어 각 암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재발위험척도(RRS)라는 새 평가기준을 개발했다. 또 유전자 검사가 쉬우면서도 위암 재발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유전자 6개(IGFBP4,  SFRP4, SPOCK1, SULF1, THBS, GADD45B)를 선별했다. <br/> 이들 6개 유전자는 새로운 위암 수술 환자 317명을 대상으로 효용성을 검증한 결과 민감도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2기 위암 환자 13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6개 유전자가 많이 발견되면(재발위험척도가 높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발 위험이 2.9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br/> 이근욱 교수는 “<span class='quot0'>향후 검사법의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추가 연구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span>”이라고 말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1.txt

제목: 울타리포럼 회원들, 김관상 CTS 사장 간증에 은혜의 바다  
날짜: 20170123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212545001  
ID: 01100201.20170123212545001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기독 언론인 모임인 울타리포럼(회장 성병욱 전 중앙일보 주필)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유나이티드 아트리움에서 ‘제12회 포럼’을 개최했다. <br/> <br/>울타리중창단의 찬양 인도로 시작한 이날 포럼에서 김관상 CTS기독교TV 사장은 ‘미디어선교와 나의 삶’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br/> <br/>김 사장은 “<span class='quot0'>바쁜 삶 가운데 말기 암환자들을 찾아 목욕도 시켜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span>”며 “CTS기독교TV 사장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CTS 초대석’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한다"고 간증했다.   <br/> <br/> <br/>김 사장은 TBC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KBS 기자, YTN 보도국장, 평택대 방송미디어학부 광고홍보학전공 교수, 단국대 교양학부 석좌교수,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등을 지냈다. <br/> <br/>또 경기도 성남시 야탑동 할렐루야교회(김승욱 목사) 장로로 임직 중이다. <br/> <br/> <br/>이어 KBS ‘불후의 명곡’에서 홍경민과 듀엣으로 출연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가수 정영주가 '유 레이즈 미 업(You Raise Me Up, 날 일으켜 주시고)을 불렀다. <br/> <br/>  <br/>울타리포럼 총무 손재경(전 KBS 목포방송국장) 가천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성병욱 전 중앙일보 주필, 주대준 전 카이스트(KAIST) 부총장, 이성희 변호사, 이진규 전 SBS 국장, 김태정 연합경제TV 사장, 이상범 CTS기독교TV 선교국장, 이현철 영화감독, 손재경 전 KBS 목포방송국장, 유혁근 KBS 부장, 아시아투데이 안정환 차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br/> <br/>울타리포럼은 기독교를 보호하고 복음진리를 수호하자는 사명감으로 2015년 4월 5일 30여명의 전·현직 기독 언론인으로 발족했다(문의 010-3708-4141).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2.txt

제목: ㈜오조, 수술 없이 치질 고민 해결 임산부용 제품 출시  
날짜: 20170123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202544001  
ID: 01100201.20170123202544001  
카테고리: 경제>유통  
본문: 보건의료 치질 부문을 선도해온 ㈜오조(대표 조길형)는 새해 들어 치질 때문에 고생하는 임산부들에게 탁월한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br/> <br/>수술 없이 치질 치료가 가능한 제품 '애스프리(Ass Free: 일명 똥꼬시트, 땅꽁시트)기기를 개발한 것.  <br/> <br/>㈜오조 조길형 대표는 "<span class='quot0'>치질은 부끄러움 등으로 초기에 치료하지 않고 감추다 암으로 따지면 말기에 이르러 극심한 통증과 도저히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병원을 찾는 질병</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조 대표는 "<span class='quot1'>치질은 부끄러운 질병이 아니다</span>"라며 "<span class='quot1'>이번에 나온 '애스프리' 제품은 질병의 진행 단계를 막론하고 수술한 환자, 치질이 재발한 환자에게 효과적이며, 치질이 없는 분들에게도 예방 효과가 있다</span>"고 밝혔다.   <br/> <br/>특히 임산부 및 갓 출산을 마친 산모의 경우, 수술도 약물 치료도 어렵기 때문에 애스프리(Ass Free)기기가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br/> <br/> <br/>임산부는 임신기간 동안 철분제복용, 운동의 제한 및 태아가 자라면서 장기를 압박하게 되어 80%이상이 배변의 고통 및 변비를 동반한 치질의 단계에 접어든다.  <br/> <br/>조 대표는 '153텐 법칙'을 준수하라고 권한다.  <br/> <br/>'153텐 법칙'이란 1일 5분씩 3회 애스프리(Ass Free)시트에 10일만 앉으면 당신의 건강은 물론 치질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br/> <br/>조 대표는 제품 출시 동기에 대해 "<span class='quot1'>심야시간 고객상담 전화를 통해 임산부들의 전화를 받고 고통을 공유하며 제품설명을 하다가 임산부 전용 제품을 만들었다</span>"고 밝혔다. <br/> <br/>임산부 전용 제품은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오렌지 계열 칼라를 적용, 임산부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해 주고 인체에 무해한 재질 사용 및 항균기능까지 갖추었다. <br/> <br/>㈜오조는 2014년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이미 중국의 온·오프라인 업체 및 카자흐스탄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br/> <br/>또 미국, 일본, 방글라데시 등 10여개국에 제품을 수출했고,  올해는 국내·외 제품 관련 전시회를 계획 중이다(문의 031-305-5400·ojoinc.com).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3.txt

제목: 피규어가 가져다 준 아이와 행복…불임·불황을 이기다  
날짜: 20170123  
기자: 최영경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155244001  
ID: 01100201.20170123155244001  
카테고리: 문화>방송\_연예  
본문: "<span class='quot0'>피규어가 저희 집에 아이와 행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span>" <br/> 피규어 마니아 김남근씨의 말이다.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날부터 구애를 시작해 결혼 전까지 거의 300여일 중에 2일을 제외하곤 매일 데이트를 했다. 너무도 행복했다. 그러나 결혼 후 1년이 지난 후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아내와 나는 마지막 선물로 손주를 안겨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만 지나갈 뿐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우리 부부는 서서히 다툼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br/> <br/> 그 이후로 4년 여간 13번의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다. 그렇게 간절했었다. 처음에는 언젠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자 마음이 조금씩 불안해졌다.  <br/> <br/>  "우리 부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br/> <br/> <br/> <br/> 아내는 나를 밖에도 못나게 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었지만 불안한 마음에 그저 집에만 있기를 원했다. 그렇게 서로를 구속하며 불평과 불안의 시간을 보냈다. <br/> <br/>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해 보이는 나에게 아내는 피규어를 선물해 주었다. 무언가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피규어 조립을 권했다. 아내가 선물해준 피규어를 조립하며 아이를 생각했다. 피규어 한 개 한 개를 조립하며 아이를 향한 마음을 담았다. 시간이 지나 그렇게 시작한 피규어 조립은 어느덧 수백 개에 이르게 됐고 아버지는 결국 소천하셨다. 우리 부부는 허무함이 밀려오며 새로운 변화를 갖기로 했다. 모든 것을 멈추고 아이를 위한 일에 집중해 보기로 했다.  <br/> <br/> <br/> <br/> 우선 아내가 먼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그리고 얼마 후 나 또한 직장을 그만뒀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을 떠나 여수로 거처를 마련해 옮기기로 하고 살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기존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멈추기로 했다. 그저 새로운 삶을 살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다. 그리고 아이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br/> <br/> 그렇게 결심해 사표를 내고 3개월 만에 갑자기 아이가 생겼다. 정말 기적같은 일이었다. 너무도 기뻤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아기가 생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난 아이를 염원하며 피규어를 조립했던 간절한 기도들이 이루어진 것이라 믿었다. 그 이후 아기가 더 생겨 이제는 두 아이의 아빠가 됐다. 또한 수천 개의 피규어의 아빠가 됐으며 이 일을 계기로 피규어 카페의 사장이라는 직업도 생겼다. <br/> <br/> <br/> <br/> 아이가 생기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우리에게 아이를 가져다 준 피규어 관련 일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가 하는 카페에 숍인숍 형태로 운영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카페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피규어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 본격적으로 모으게 된 피규어는 숫자와 규모가 더 해져 이제는 부산 서면의 명소이자 부산 최대의 피규어 카페가 돼버렸다. 건담, 에반게리온, 드래곤볼, 원피스, 초합금, 아톰, 디즈니, 몬스터주식회사, 아이언맨, 배트맨, 요괴워치, 바람의 검심 등 수 천개이다. 그리고 아직도 조립하지 못한 피규어도 수천 개에 다다른다. 조립완성과 서비스 차원으로 손님들에게 무료 조립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그렇게 손님들의 손에 만들어진 피규어도 이미 수백 개가 됐다. 인수할 당시 적자였던 카페가 피규어 카페로 전환 후 6개월 만에 매출도 두 배 이상이 올랐다. 피규어 전문 카페라는 차별성이 장점이 돼 불황도 이겨나게 해주고 있다. <br/> <br/> 언젠가는 제주도에 피규어 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우리 부부의 꿈이다. 나와 손님들의 염원을 담은 수많은 피규어를 전시하며 행복을 기원하고 싶다. 그렇게 희망이 필요한 많은 분들과 피규어 마니아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피규어가 됐으면 좋겠다. 피규어를 통해 꿈이 이루어지고 행복이 조립되어지길 소망한다. <br/> <br/>▶탤런트 정애리 권사 통큰 기부, “매월 1000만원 후원” <br/>▶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br/>▶가정폭력에 무너진 꿈…“한 손으로도 충분합니다” <br/>▶한동대 교수 임용된 이지선씨 “<span class='quot1'>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span>” <br/>▶2.5㎝로 태어나 초등학생 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녀’ <br/>▶처음 본 여성에게 간 ‘반쪽’ 이식해주고 결혼까지 성공한 남성 <br/>▶비와이 “20배로 늘어난 수익, 주님과 9대 1로 나눈다” <br/>▶“당신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50만이 좋아요 누른 사진 <br/> <br/>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4.txt

제목: CTS, 동성애 파고 맞선 염안섭 원장 초청 특강  
날짜: 20170123  
기자: 유영대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150144001  
ID: 01100201.201701231501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기독교방송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는 23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CTS컨벤션홀에서 염안섭 수동연세요양병원장을 초청, ‘동성애의 파고에 맞선 하나님의 의병’ 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br/> <br/>염 원장은 강연에서 “<span class='quot0'>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암환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 수동연세요양병원을 개원했다</span>”며 “<span class='quot0'>개원 후 형편이 어려운 암환자들을 하루 2만원의 입원비만 받고 진료를 하던 중 2009년부터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다</span>”고 털어놨다. <br/> <br/>염 원장은 “<span class='quot0'>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 즉 학습되는 것</span>”이라고 설명했다.  <br/> <br/>특히 동성애자들은 어플을 통해 서로 연락하고 만나며 동성간 성행위를 한다. 우리나라에 60만명의 남성 동성애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br/> <br/>또 "60만명이 축제를 하는 이익집단은 동성애자들밖에 없다”면서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가 아니다. 그들은 법의 보호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br/> <br/>염 원장은“동성애는 성소수자라는 인식을 언론이 주입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성소수자 성향은 20가지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br/> <br/>이어 “남자 청소년들이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돈을 벌기 위해 동성애자들과 만나고 있다”면서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br/> <br/>특별히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와 에이즈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에이즈  환자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r/> <br/>염 원장은 “동성애자들은 성중독”이라고도 주장했다.  <br/> <br/>그는 “1000명 이상과 성관계 하는 동성애자도 있다"며 “에이즈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도 성관계를 한다. 그들이 처음 만난 지 두 시간 만에 성관계를 한다"며 동성애가 성중독임을 설명했다. <br/> <br/>그는 특히 한국의 남성 동성애자가 얼마나 비건강적인 환경에 노출됐는가를  소개하고, 자신이 치료한 에이즈 환자의 100%가 동성애자라고 지적했다. <br/> <br/>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에이즈 환자가 1만 명, 관리를 못하는 에이즈 환자가 3만 명이라고 밝힌 염 원장은 “에이즈 검사부터 우리 세금으로 낸다.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조원을 돌파했고, 1년에 에이즈 환자의 약값만 67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br/> <br/>염 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했다.  <br/>  <br/>그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론자, 이단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차별금지법으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도덕한 성행위인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물론 시한부 종말론 집단, 이슬람에 대한 비판도 금지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br/> <br/>그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한다는 일부 비난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의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 동성애를 막는데 앞장서자”고 권면했다.   <br/> <br/>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한민국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br/> <br/>한편, CTS기독교TV는 동성애의 실체와 심각성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 '동성애, STOP!'을 전개하고 있다.  <br/> <br/>동성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CTS 특별대담'(5부작), 'CTS 뉴스플러스 - 동성애 특별기획', '동성애 STOP 토크콘서트' '동성애에 관한 불편한 진실'(2부작)을 방송했다.   <br/> <br/>CTS는 각 지역 케이블과 SkyLife 183번, IPTV(KT Ollehtv 236번, SK BTV 301번, LG U+ 180번), 해외위성, CTS APP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br/> <br/>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5.txt

제목: “진단 후 한 달 내 정신건강 지지 필요한 유방암 환자들 많다”  
날짜: 20170123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113044001  
ID: 01100201.20170123113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특히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한 달이 안 된 환자가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의학 질환에 취약하여 이들에 대한 정신의학적 돌봄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br/> <br/>아주대병원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br/>사진)교수와 허재성 임상강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자료를 이용, 국내 유방암 환자의 정신건강의학 질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br/> <br/>2010년부터 2014년까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8만7843명 중 정신건강의학 질환을 가진 환자는 8430명(10%)이었다.  <br/> <br/>이들 중에는 우울장애를 겪은 환자가 3256명(3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불안장애 2739명(32%), 신체형․해리장애 1182명(14%),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 1124명(13%), 정신활성 물질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29명(2%) 등의 순서였다. <br/> <br/>정신건강질환 진단 시기는 전체 5년간의 추적관찰 기간 중 유방암을 진단받은 1년 전후가 대부분(65%)이었다. 특히, 유방암 진단 후 한 달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br/> <br/>특히 정신질환 중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적응장애는 유방암 진단 직후 진단의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그리고 연령에 따라 질환의 양상이 달랐는데 10세~39세의 젊은층은 우울장애, 70세~99세의 노년층은 불안장애의 비율이 높았다. <br/> <br/>이는 유방암 환자에서 연령, 질환의 종류, 유방암 진단 시기에 따라 정신건강의학적 진단과 치료가 개인별 맞춤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br/> <br/>특히 질병의 빈도가 높아지는 유방암 진단 직후에 유방암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신속히 협의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br/> <br/>또 연령에 따른 질병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젊은층은 우울장애, 노년층은 불안장애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단과 치료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br/> <br/>전미선 교수는 “<span class='quot0'>유방암 환자나 보호자도 유방암 진단 후에는 암 치료에 집중하기 마련이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유방암 연구와 치료(Breast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1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6.txt

제목: 대형생보사, ‘소액암’ 늘여 잇속 챙기기 골몰  
날짜: 20170123  
기자: 노미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3192255003  
ID: 01100201.20170123192255003  
카테고리: 경제>산업\_기업  
본문: 일부 대형 생보사가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암 종류를 세분화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암보험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br/> <br/>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사들은 암의 형태를 일반암, 고액암, 소액암 등으로 세분화한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br/> <br/> 보험금 지급 기준은 일반암의 경우 1000∼1500만원이다. 췌장암, 척수암과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액암의 경우 일반암보다 2배이상의 많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반면 소액암은 평균적으로 가입금액의 10∼24% 정도만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다. <br/> <br/> 소액암은 갑상선암을 비롯해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말하며,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갑상선암의 환자는 2014년 기준 3만806명으로 전체 암 환자(22만7188명) 가운데 가장 많았다. <br/> <br/>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소액암을 늘여 암보험의 보장성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0'>5년 전부터 소액암에 추가되는 암 종류가 늘어나고 있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보장성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의 손해율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span>”고 비판했다. <br/> <br/> 2000년대 중반 삼성·대한(현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수지가 맞지 않아 암보험 상품 판매를 일제히 중단한 바 있다. 암 진단비가 수천만원에 달해 보험사 손해율에 악영향을 미쳐서다. 암 발병률(37.3%)·암 보험 가입률(91.0%)이 높은 현상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br/> <br/> 교보생명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식생활 변화로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데다 의료기술 발달로 암 조기 진단까지 늘자 보험금 지급에 부담이 커진 보험사가 많았다</span>”고 설명했다. <br/> <br/> 이런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span class='quot2'>현재 암 보험이 과거 상품과 다른 점은 소액암부분</span>”이라며 “<span class='quot2'>생보사들이 암보험을 판매해 손해가 많이 발생하자 고육지책으로, 약관을 입맛대로 바꿔 장사하고 있다</span>”고 지적했다. 노미정 기자 noet85@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5-967.txt

제목: [강덕영 칼럼]참 이상한 교인  
날짜: 2017012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2163744001  
ID: 01100201.20170122163744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약대 교수님들과 신년 축하 모임을 가졌다. 이날의 화제는 대부분 건강과 사업에 관한 것들이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으며 학창시절 각자의 무용담이 한창 꽃을 피우던 중, 한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했다. 참으로 희귀한 내용이었다. <br/> <br/> <br/>약대 동창인 다른 교수가 암에 걸렸다고 한다. 대장암 3기라 당연히 오래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예상했다고 한다. 남아 있는 기간이 2~3년이라고 판단한 교수는 신앙생활에 매달렸다. <br/> <br/>그리고 동창인 친구에게 자신의 병을 알려주고 자신의 교회에 출석할 것을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친구는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간청을 받아들여 4년 동안 같은 교회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했다. 그리고 친구의 병을 고치기 위해 기도했다. <br/> <br/>성경을 거의 통달했다며 자랑한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성경 내용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성경 내용은 믿어지지 않고 믿음도 생기지 않지만 성경 지식은 박식하다며 자랑한다. 자신과 함께 성경공부를 한 집사 한 분은 본인 덕분에 목사가 되었다고 너스레를 떤다. 그러나 한사코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br/> <br/>그리고 친구의 병이 완치되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고 한다. 참으로 기적 같은 사실이다. 대장암 3기는 완치되기 힘든 중병이다. 완치된 교수도 이날 모임에 같이 참석했는데, 열 올려 이야기하는 동창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맙다는 눈길을 보낸다. <br/> <br/>두 사람 모두 한국에서 알아주는 석학이고 천재들이다. 나는 항상 그 친구를 부를 때 천재라는 호칭으로 부르곤 했다. 머리도 좋고 학식도 좋은데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니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br/> <br/>결국 이 친구는 4년째 되는 해에 교회 출석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4년이 지나고 친구의 병도 완치됐으니 “내가 모든 약속을 지켰다”고 했다. “<span class='quot0'>친구의 사랑으로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다시 불교로 돌아갔느냐</span>”고 물으니 그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br/> <br/>나는 이런 이상한 교인은 참으로 처음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결국은 천국을 못기고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그 친구가 ‘농담 치고는 좀 고약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br/> <br/>그리고 얼마 후, 희한하게도 이 친구 역시 아주 희귀한 병에 걸렸다. 아무 약도 듣지 않는 병이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그레졌다. 왜 얼굴이 문페이스가 됐냐고 묻자 스테로이드 때문이란다.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했다. <br/> <br/>그런데 이야기를 이어갈수록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 자유로움과 당당함이 엿보였다. 병과 싸우는 것에 예사롭지 않게 자신감이 있었다. 자신감을 갖고 희귀병과 싸우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친구를 위해 4년간 신앙생활을 한 것이 그의 힘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br/> <br/>신년 축하 모임 다음 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지내온 이야기를 해준 것이 모두 사실이냐고 되물었다. 물론 사실이며 그 친구도 그 일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br/> <br/>또한 자신도 친구를 몹시 아낀다고 말한다. “요즘은 교회에 안 나가느냐”고 묻자, “<span class='quot0'>사실 요즘도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친구의 교회는 아니고, 설교가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게 되어 그 교회로 나가고 있다</span>”며 실토한다. 이번에는 친구가 아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생각이 들었다. <br/> <br/>비록 많은 대중 앞에서 “나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언은 못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믿음이 서서히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br/> <br/>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세태가 서운할 뿐이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이것을 자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진짜 지성인다운 행동이 아닐까? <br/> <br/>하나님께 은혜 입은 모든 자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과 도움을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용기 있는 지성인들이 많이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될 것이라 확신한다.   <br/> <br/><한국유나이트문화재단 이사장, 갈렙바이블아카데미 이사장>

언론사: 국민일보-5-968.txt

제목: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둘러보기 VR앱 출시  
날짜: 20170120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0095044001  
ID: 01100201.20170120095044001  
카테고리: IT\_과학>모바일  
본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병원장 남석진)은 20일 원내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VR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br/> <br/>국내 병원이 VR앱을 제작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 스마트폰 앱장터에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br/> <br/>삼성서울병원 암병원 VR앱은 자체 개발한 가상현실 체험 앱으로, VR 기기와 연계하여 병원 내 주요 시설들을 실제 둘러보는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br/> <br/>주요 화면은 환자가 병원을 내원했을 때 주로 찾는 동선을 기반으로 짜였으며, 병원 전경 및 주요시설 등도 360도 영상 콘텐츠로 구성됐다. <br/> <br/>특히 기존에 웹과 모바일을 통해 보던 의료진 소개뿐만 아니라 암 정보, 암환자 교육 영상 등도 VR환경에 최적화하여 앱에 탑재돼 눈길을 끌었다. <br/> <br/>남석진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장은 “<span class='quot0'>VR앱은 병원을 처음 방문하는 환자와 내원객들이 낯선 병원 환경에 손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환자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에 나서겠다</span>”고 전했다. <br/> <br/>한편,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VR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오큘러스 스토어(삼성기어V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VR 영상을 보려면 가상현실 출력도구인 삼성 기어 VR과 구글 카드보드 등과 같은 HMD(Head Mounted Display) 장비가 필요하다. 이들 장비가 없더라도 일반모드 보기가 지원되는 만큼 일반 휴대폰에서도 앱을 통해 충분히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곳곳을 둘러볼 수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69.txt

제목: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성료  
날짜: 2017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0093944001  
ID: 01100201.201701200939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한양대학교병원(병원장 이광현)은 19일 한양의대 계단 강의동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br/> <br/>한양대병원은 이달 초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개소, 본격 운영 중이다. <br/> <br/>개소 기념 심포지엄은 ‘선진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주제로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이강현 응급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김현 응급의학과 교수가 ‘권역센터 운영 경험에서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 서울아산병원 김원영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중환자실 운영 경험에서 바라보는 현재와 미래’란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 <br/> <br/>두 번째 세션은 서울아산병원 임경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울대병원 곽영호 교수가 ‘지역사회 응급의료체계에서의 역할과 미래’,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이 ‘재난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각각 최근 연구결과를 발표한 순서로 진행됐다. <br/> <br/>이광현 한양대병원장은 “<span class='quot0'>본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 선정되는 등 지역 내 중증 및 응급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이와 함께 뇌졸중, 심근경색, 암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는 등 중증 응급질환 치료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앞으로 최적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각오</span>”라고 말했다. <br/> <br/>지난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양대학교병원은 확장 리모델링을 통해 1년여간의 철저한 준비기간을 통해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생실, 격리병상, 응급전용 중환자실, 응급전용 입원실 등으로 구성된 지상 5층의 건물을 증축했다. <br/> <br/>인력 면에서도 기존 응급전문 의료진 외에 1급 응급구조사, 응급코디네이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등이 가세하여 응급의학전문의를 도와 24시간 중환자실 수준의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서비스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해놓고 있다.

언론사: 국민일보-5-970.txt

제목: 피부노화 주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피부디톡스, ‘항산화 수소토닝’  
날짜: 2017012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20090044001  
ID: 01100201.20170120090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작년 한 해 각종 매스컴에서 건강기능수로 주목을 받은 수소수는 활성산소 중 노화, 치매, 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인 독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지며 생성기, 정수기, 화장품 등 각종 수소수 관련 제품들이 줄줄이 출시되었다. <br/> <br/>세계 3대 기적의 샘물이라 불리는 프랑스 루르드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의료용 광천수로 판매되는 독일의 노르데나우 샘물에도 활성수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소수는 항산화제로 대표되는 비타민C보다 176배, 코엔자임 Q10보다 865배 높은 항산화력을 지녔다고 알려져 있다. <br/> <br/>활성산소(OH-)는 호흡을 통해 들어간 산소가 산화되면서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이때 파괴되었다가 재생된 세포의 능력이 원래 기능보다 떨어지면서 노화가 시작된다. 때문에 항산화 목적으로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 먹는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노페물을 남겨 새로운 세포 독성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제한된 섭취량을 지킬 것을 권고한다. <br/> <br/>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를 지닌 수소수를 최근에는 피부에 활용하는 시술이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br/> <br/>음용하거나 바르는 것이 아닌 1600ppb에 달하는 고농도의 수소(H+)를 피부 안으로 직접 투입시켜 활성산소를 배출시켜주는 하이드로 임팩트라는 장비가 등장하면서 수소수를 피부치료에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br/> <br/>‘항산화 수소토닝’은 피부에 침투시킨 수소가 피부 속 유해한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체내 수분을 만들고, 이로 인해 피부 보습력을 높여주어 피부탄력 및 피부질환 개선효과를 얻게 되는 항산화 디톡스 프로그램을 말한다. <br/> <br/>나이가 들면 피부탄력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눈가와 입가, 목까지 주름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노화로 인해 늘어진 피부는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br/> <br/>‘항산화 수소토닝’은 이처럼 노화가 시작되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부의 근본을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는 시술로, 수소 기체가 활성산소를 줄여 콜라겐 분해 효소를 감소시키고, 콜라겐 양을 늘려 피부탄력을 개선시켜준다. <br/> <br/>‘수소토닝’은 피부 안의 불필요한 활성산소(하이드록시라디칼)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노화와 각종 피부 질환을 개선시켜 맑고 건강한 피부로 만들어 준다. 때문에 피부 멜라닌 억제, 콜라겐 생성촉진, 아토피 피부염, 염증성 여드름치료, 두피 케어 등 폭 넓은 피부질환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손상된 피부세포를 건강하게 환원시켜 주기 때문에 다른 레이저 시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유지기간 연장을 도와주어 레이저 시술 전 권장되기도 한다. <br/> <br/>압구정es클리닉 백학순 원장은 “항산화 수소토닝은 피부 트러블의 원인에만 집중하는 치료가 아닌 피부의 근본을 자연스럽게 치유해 주는 시술로 이미 노화가 시작되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권장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시술이라도 반드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시술방법을 결정해야 만족도 높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1.txt

제목: 건국대병원, 국내 최초 액상병리검사실 개소기념 행사 성료  
날짜: 20170119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9111944001  
ID: 01100201.201701191119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 <br/>사진]건국대병원 의료진이 액상병리검사실 개소식 후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왼쪽부터 박미영 간호부장, 최영준 행정처장, 한혜승 병리과장, 이계영 폐암센터장, 양정현 의료원장, 유광하 진료부원장, 김형곤 연구부원장. 건국대병원 제공 <br/> <br/>건국대병원은 지난 16일 국내 처음으로 액상병리검사실(Liquid Biopsy Lab)을 열고 테이프 커팅 등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br/> <br/>액상병리검사는 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 방법으로 얻은 생검 조직이 아닌 혈액과 같은 체액에서 DNA를 분리해 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br/> <br/>차세대 첨단의학의 한 분야로 현재 표적항암제가 가장 발달된 폐암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국대병원도 폐암 검사를 시작으로 다른 암 진단에 있어 액상병리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r/> <br/>건국대병원은 지난 2013년 ‘유럽 분자유전학 질 관리 네트워크(EMQN : The European Molecular Genetics Quality Network)'로부터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 평가를 만점으로 통과, 국내 처음으로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2.txt

제목: 이상문학상 수상 작가 정미경씨 별세  
날짜: 20170119  
기자: 박지훈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9003655001  
ID: 01100201.20170119003655001  
카테고리: 문화>학술\_문화재  
본문: 2006년 소설 ‘밤이여, 나뉘어라’로 이상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정미경(57·사진)씨가 18일 별세했다. 고인은 그동안 암 투병 중이었으며 최근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60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난 그는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8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에 당선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유족으로는 남편 김병종 서울대 동양화가 교수, 아들 지훈(서원대 겸임교수) 지용(조각가)씨가 있다. 빈소는 경기도 안양 한림대 성심병원, 발인은 20일 오전 8시(031-386-2345). <br/> <br/>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3.txt

제목: 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현 교수, 국내 양극성 스펙트럼장애 유병률 규명  
날짜: 20170118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8225344001  
ID: 01100201.20170118225344001  
카테고리: 사회>장애인  
본문: 흔히 ‘조울증’이라 불리는 양극성 장애는 기분이 지나치게 들뜨거나 심하게 변하고 활동량, 의욕 등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조증과 그 반대 상태인 우울증의 양극이 반복되는 정신장애를 말한다. <br/> <br/> 미국정신건강의학회의 진단기준인 ‘DSM-5’에 따라 제1형(조증+우울증)과 2형(경조증+우울증)으로 분류한다. <br/> <br/>인하대병원 김지현 교수(제1저자)와 경북대병원 장성만 교수(교신저자) 등 국내 7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공동 연구팀은 미국 등 서구권에서 통상 2~3%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 유병률이 유독 한국에서는 0.2~0.3%로 극히 낮게 보고되어 온 결과에 주목했다. <br/> <br/> <br/>연구진은 기존의 양극성 장애 진단기준이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으로 보고, 기분장애설문지(Mood Disorder Questionnaire, MDQ)라는 도구를 이용해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의 유병률을 측정했다. <br/> <br/>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란 기존의 제1형 및 2형 양극성장애 뿐 아니라 가벼운 수준의 양극성 기분조절 장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br/> <br/> 이 연구는 2011년 전국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시행돼 30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br/> <br/>연구 결과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 가능한 사람이 한국 전체 인구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br/> <br/> 이는 서구권 국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br/> <br/>또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 중 78.3%는 기존의 진단기준을 따르면 우울장애(35.4%)나 불안장애(35.1%), 알코올 및 니코틴 등의 물질사용장애(51.9%)로 진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br/> <br/>인하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0'>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양극성 기분장애라 할지라도 예후와 기능저하, 자살 등의 위험성은 제1형이나 2형에 못지 않게 심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에서 배제돼 증상이 심해지거나 다른 정신 장애로 진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span>”라고 설명했다. <br/> <br/>이는 현재의 임상 현장 및 국가 정신보건정책에서 양극성 스펙트럼 장애 문제가 과소평가돼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br/> <br/>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이전에는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았던 가벼운 증상이나 위험 인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거나 최소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한 상태로 보는 것이 최근 의학계의 추세</span>”라고 설명했다. <br/> <br/> 실제로 학계에서는 최근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직전 단계도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다. <br/> <br/>김지현 교수는 “<span class='quot1'>유명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암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뒤 유방암이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절제술을 시행했다</span>”며 “<span class='quot1'>기분장애 등 정신장애에 있어서도 기존 진단기준보다 넓은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span>”고 밝혔다. <br/> <br/>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정동장애학회(ISAD) 공식학회지 정동장애학술지(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016년 10월호에 게재됐다. <br/> <br/>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4.txt

제목: 김경숙 前 이대 학장 구속… 이대 수사 관련 3번째  
날짜: 20170118  
기자: 황인호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8003155001  
ID: 01100201.201701180031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8일 구속 수감됐다. <br/> <br/>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pan class='quot0'>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span>”며 김 전 학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류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에 이은 특검의 이대 수사 관련 세 번째 구속이다. <br/> <br/> 김 전 학장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특혜를 누리는 데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r/> <br/>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암 투병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를 요청한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br/> <br/>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5.txt

제목: 암환자들 치료법 선택·결정에 가족 참여 바란다  
날짜: 2017011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7095544001  
ID: 01100201.20170117095544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암환자와 가족, 암전문의 10명 중 9명은 암 치료 계획 결정에 가족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참여가 치료법 결정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부분 동의했다. <br/> <br/>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 <br/>사진) 교수팀은 충북의대 예방의학과, 국립암센터 연구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국내 암환자·가족 725쌍과 이들을 진료하는 암전문의 134명을 대상으로 암 치료법 선택 및 결정에 가족이 참여해야 하는지를 조사했다. <br/> <br/>그 결과 암환자의 94.8%, 가족의 97.4%, 암전문의의 98.5%가 가족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br/> <br/>특히 암환자와 가족 90% 이상은 가족의 참여가 치료결정, 의사소통, 심리적지지를 돕는다고 했다. 암전문의도 치료결정(76.1%), 의사소통(82.8%), 심리적지지(91.8%) 등 긍정적 효과에 대체로 동의했다. <br/> <br/>반면 조사대상 암 환자의 21.5%와 가족의 23.7%, 암전문의 중 34.3%는 가족의 참여가 오히려 치료결정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답했다. 또 상당수의 환자(68.6%)와 가족(60.7%)은 가족의 참여가 환자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암전문의 중 56.8%는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br/> <br/>신동욱 교수는 “암환자 가족은 환자의 치료결정 과정에서 의료진에게는 정보를, 환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주는 등의 큰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런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보여주며, 가족의 좋은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br/> <br/>연구결과는 암과 정신 치료 분야 국제 학술지 ‘사이코 온콜로지(psycho-oncology)’ 최근호에 게재됐다. <br/> <br/>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6.txt

제목: [명의&인의를 찾아서-(97)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 유륜 쪽 최소절개수술… 여성성 최대한 보존·재건  
날짜: 20170117  
기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7050255002  
ID: 01100201.201701170502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아름다운 완치.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센터장 정승필·유방내분비외과 교수)가 365일 매일같이 꿈꾸는 세상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은 아기집 자궁과 함께 대표적인 여성성의 상징으로 꼽힌다. 유방암 진단 후 유방 전(全)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우울감과 상실감,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다. <br/> <br/>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가 유방질환 치료 시 겨드랑이나 유방 밑 주름, 유륜(乳輪) 쪽으로 접근해 흉터가 안 보이는 최소절개수술을 시행하고 유방의 본래 모양도 지켜주려 힘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br/> <br/> 다학제 통합진료 환경 구축 <br/> <br/> 고려대안암병원의 유방건강 지키기 인프라는 크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이 센터는 하드웨어부분에서 다학제 통합진료를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에게도 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치료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다. <br/> <br/> 유방 촬영술, 유방 초음파촬영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등 정밀검사 결과를 근거로 피부를 3∼5㎝만 절개하는 유방 보존수술과 로봇을 이용한 유방 재건수술을 시행함으로써 치료 후에도 유방 원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br/> <br/> 투병 증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코디네이터들은 또한 환자들이 기존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고 체중을 조절하는데 이로운 운동요법을 꾸준히 실천하도록 돕는다. <br/> <br/>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는 또 유방암 환자 서포트팀을 운영하며 암 환자들이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br/> <br/> <br/> <br/> 로봇으로 원형 최대한 보존·재건 <br/> <br/> 여성들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지기 십상이다. 여성성을 대변하고 모성을 상징하는 유방을 잃게 되거나 유방 모양이 변형될까봐 두려워서다. 그로 인한 수치심과 우울감, 상실감, 좌절감 등으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br/> <br/> 고려대안암병원 유방센터는 ‘유방암 종양성형 수술법’이라는 최신 치료법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유방암 종양성형 수술법이란 암 제거와 동시에 잔여 유방조직을 활용해 본래의 유방 모양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방법이다. <br/> <br/> 특히 유방내분비외과 배정원, 정승필 유방내분비외과 교수팀은 유방 절제 수술시 유방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륜(乳輪) 주위 또는 유방 밑 주름 쪽으로 파고들어 수술흉터가 눈에 안 띄도록 해줘 각광받고 있다. 배 교수는 직전, 정 교수는 현 유방센터장이기도 하다. <br/> <br/> 암의 범위가 넓거나 여러 군데에 분포해 부득이 유방 전체를 잘라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때는 항암치료를 먼저 시행해 암의 크기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방법으로 유방 모양을 최대한 살려주려 애쓴다. <br/> <br/> 도저히 보존 방법이 없을 때에는 암 절제수술 직후 바로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팀에 의뢰해 유방재건수술을 시행해 아름다운 가슴을 복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윤 교수는 로봇 팔을 이용한 무(無)흉터 유방재건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수 평가를 받는 유방성형 전문가다. <br/> <br/> <br/> <br/> 유방암, 정기진단으로 조기발견 <br/> <br/> 어떤 질병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비만해지지 않도록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골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유방에 멍울이 잡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자가검진 및 정기검진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방암은 진단 시 0기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100%에 가까우나 4기암의 경우 30%미만에 그친다. 예방은 물론 장기 생존 가능성이 높은 초기에 발견하려면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을 때 월 1회씩 주기적으로 자가검진을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조기발견 및 진단이 곧 생존율 향상을 담보하는 보증서와 같기 때문이다. <br/> <br/> 유방암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난 지 4∼6일째에 거울 앞에 서서 유방의 전체적인 윤곽, 좌우대칭여부, 유두 및 피부 함몰 여부 등을 살피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양손을 올려 유방의 피부를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유두 등 피부 함몰 여부를 재확인한다. 또 왼손을 어깨 위로 올린 뒤 오른쪽 가운데 세 손가락의 끝을 모아 유방 바깥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원형을 그리며 유두를 향해 천천히 들어오면서 만져보고 유두를 짜며 분비물이 나오는지 관찰한다. 겨드랑이 쪽에도 멍울이 잡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br/> <br/> 정승필 센터장은 16일 “<span class='quot0'>암이라는 질병 자체도 건강에 큰 적이지만, 과도한 염려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건강을 해치는 원인</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뜻밖의 병으로 유방을 잃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발병초기에 이상을 발견, 조기에 적절한 치료로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span>”고 강조했다. <br/> <br/>정승필 유방센터장은 <br/> <br/>‘유방암 파수꾼’. 유방암 환자들이 정승필 유방센터장에게 붙여준 별명이다. 유방암 예방 및 퇴치,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땀 흘려온 그의 노고에 대한 보상인 듯 받아들여진다. <br/> <br/> 정 센터장은 2015년 3월부터 유방암 환자 단체인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온·오프라인 상담실을 통해 유방암 환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또 한국유방암학회 정보위원회 간사로서 홈페이지 일반인 코너를 책임지며 인터넷에 범람하는 잘못된 유방암 정보를 바로잡고 암예방 정보를 올바로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br/> <br/> 정 센터장은 이 외에도 대한외과학회 편집위원, 고려대안암병원 연구진흥위원 및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을 역임하며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해마다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며 아시아지역 여성의 유방건강을 무료로 돌봐주는 재능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 <br/> <br/> ‘저널 오브 브레스트 캔서’(JBC) 등 국내외 SCI급 학술지에 연구논문도 50여 편이나 발표했다.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의생명공학과 김재관 박사팀과 공동으로 수술 전 선행 항암치료 효과를 조기에 판별하는 진단장치를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까지 끝낸 이 장치가 산업화되면 양전자단층촬영검사(PET)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항암치료 중 암 살상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br/> <br/>글=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 사진=구성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77.txt

제목: 암 환자 자살시도 일반인의 3.3배  
날짜: 20170117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7183155001  
ID: 01100201.2017011718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박기호 교수팀은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 중 19세 이상 1만9599명을 분석한 결과,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3.3배, 협심증 3.9배, 골관절염 2.1배, 폐결핵 12.5배, 신부전 4.9배 높게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br/> <br/> 오랜 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 만성질환은 삶을 지속하려는 의지 자체를 흔들 수 있으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그 심각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게 연구팀 설명이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78.txt

제목: [원자력병원 암전문의가 전하는 ‘건강톡’] 폐암 걱정된다면 올해는 반드시 금연하세요  
날짜: 20170116  
기자: 이영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93455001  
ID: 01100201.201701161934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새해를 맞이해 다양한 건강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그 중 ‘금연’은 흡연자들이 매년 꼭 하는 다짐이다. 흡연은 평균 수명을 줄이고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폐암의 발생률은 남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2위, 여성은 5위이다. 그러나 암 사망률은 폐암이 남녀 모두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br/> <br/>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br/> <br/> “폐암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량과 흡연기간이 길어질수록 폐암 발생률도 증가하므로 금연은 폐암 예방에 필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률이 20배 이상 높지만, 폐암 환자의 15%는 비흡연자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석면이나 미세먼지 등에 자주 노출되는 경우, 운동부족, 혈당이 높은 경우, 지나친 비만이나 저체중도 폐암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br/> <br/> -폐암은 별다른 증상이 있나요? <br/> <br/> “폐암 환자의 대다수가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병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 증상으로 호흡곤란, 기침, 객혈,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가슴통증, 숨 쉴 때 쌕쌕거림, 피로, 식욕감소, 쉰목소리, 두통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병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br/> <br/> -폐암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br/> <br/> “단순흉부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으로 폐암이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합니다. 조직검사는 가래검사, 기관지내시경, 그리고 가느다란 침을 찔러 조직을 흡입해 병리조직검사를 하는 경피적폐생검술 등이 있습니다. 폐암은 다른 장기로 쉽게 전이되므로 뇌자기공명영상, 전신뼈검사, 양전자단층촬영,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함께 시행합니다.” <br/> <br/> -폐암은 어떤 치료를 하나요? <br/> <br/> “폐암은 크게 비소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분류합니다. 비소세포폐암은 1기∼3기 초에는 폐암세포와 림프절을 같이 제거합니다. 수술 전 항암과 방사선 동시 요법으로 암세포를 줄이고 수술하기도 합니다. 수술할 수 없는 3기에도 항암ㆍ방사선 동시 요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소세포폐암은 암세포 증식이 빠르고 발견했을 때 여러 곳에 전이된 경우가 많아 수술보다 항암ㆍ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br/> <br/> -폐암 수술 후 완치율은 얼마나 되나요? <br/> <br/> “최근 국가암정보센터의 폐암 5년 생존율은 25.1%로 보고 됩니다. 폐암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수술적 절제로 완치가 가능한 1, 2기 환자가 전체 환자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80% 환자가 3기 이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병원의 자체 조사로도 폐암 1기 수술 후 완치율은 90%에 가깝지만, 2기 의 경우 55%, 3기 전기의 경우 30%로 감소합니다.” <br/> <br/> -폐암은 어떻게 예방 하나요? <br/> <br/>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일찍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 40대 이후에 폐암의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간접흡연이 폐암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폐암 위험도에 따라 컴퓨터단층촬영을 2∼5년 주기로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을 통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시행하므로, 해당자는 적극 수검을 권장합니다.” <br/> <br/>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br/> <br/>\*도움말=원자력병원 폐암센터 김철현(호흡기내과) 과장·이해원(흉부외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5-979.txt

제목: [항암제 이야기-폐암 치료제 ‘잴코리’] 1차 치료 급여 확대… 고가 부담 해소  
날짜: 20170116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93355001  
ID: 01100201.201701161933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좋은 치료제가 있어도 비용이 부담돼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일은 없을 것이다. 폐암 환자에게 큰 희망을 주었지만, 값비싼 약값으로 인해 ‘절망’을 동시에 안겨주었던 약이 있다. 대표적인 약이 화이자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다. 이 의약품은 정부에서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이 약을 먹는 데 드는 한달 비용만 무려 1000여만원이나 들었다. 한 알당 약값은 16만원이 든다. 1년이면 약 1억2000만원이다. 이같은 비용을 부담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는 환자는 드물다. <br/> <br/> 잴코리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적응증이 있는 약물이다. 이 약의 대상 환자수는 약 300여명으로 집계된다. 당시 잴코리 출시 직후 화이자는 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잴코리를 ‘진료상 필수약제’로서 급여 신청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당시 “<span class='quot0'>잴코리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인 페메트렉시드 혹은 도세탁셀이 쓰이고 있으므로 잴코리가 진료상 필수약제에 해당하지 않는다</span>”는 평가를 내놓았다. 다시 말해, 이 약이 기존 약제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보험급여로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화이자는 잴코리의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 심평원에 꾸준히 제출해 왔지만, 급여가 이뤄지지 않았다. <br/> <br/> 그런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다. 잴코리가 이달부터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이하 ALK)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1차 이상의 치료시 급여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심평원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공고에 따른 것이다. <br/> <br/> 잴코리는 지난 2011년 12월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허가 받은 후 2015년 5월부터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 이상에서 급여가 적용됐다. <br/> <br/> 송찬우 한국화이자제약 항암제 사업부 전무는 “<span class='quot1'>이번 잴코리의 1차 보험 급여 확대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들에게 임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span>”며 “<span class='quot1'>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주력하겠다</span>”고 말했다. 환우들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폐암 환우인 박지현(가명)씨는 “그동안 치료효과가 좋은 잴코리에 대해 1차 급여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 마음고생을 했다. 값비싼 약을 복용하는 데 경제적 부담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약값 부담을 덜어주어 기쁘다”고 밝혔다. <br/> <br/> 한편,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트(NCCN)는 치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잴코리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현재 잴코리는 1차 치료에서 급여 가능한 유일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다. <br/> <br/>장윤형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80.txt

제목: [암 정보 게시판] 표적·면역항암제 건강보험급여 추진 外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93255001  
ID: 01100201.201701161932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표적·면역항암제 건강보험급여 추진 <br/> <br/> 정부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치료, 간초음파, 표적면역항암제 등 고액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생애주기별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난임 가정의 성공적인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신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도 현실화되고,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도 적용된다. 고가 검사인 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br/> <br/>연세암병원, 수술로봇 이용 유방 전체 절제·동시 재건술 시행 <br/> <br/> 연세암병원 유방암센터가 최근 다빈치 수술로봇을 이용한 유방 전체 절제술 및 동시 재건을 시행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에게 지난해 11월23일 유방외과 박형석 교수팀이 제거 수술을, 성형외과 이동원 교수가 재건 수술을 실시했다. 의료진이 시행한 로봇 수술법은 겨드랑이 부위에 6㎝ 정도의 수술 절개 부위 하나 만으로 유두와 유륜을 보존하는 유방 전체 절제술 및 겨드랑이 감시 림프절 절제술이었다. 동시에 의료진은 유방 재건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 흉터가 작고, 흉터의 위치가 겨드랑이 부위여서 잘 보이지 않는다. <br/> <br/>혈액암 등 인한 장애 국민연급 지급 앞당겨 <br/> <br/>혈액암, 고형암으로 인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지급시기가 앞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월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으나, 위의 4가지 장애의 경우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br/> <br/> 이에 따라 혈액암, 고형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언론사: 국민일보-5-981.txt

제목: “거짓말을 진짜처럼…” 뻔뻔한 김경숙  
날짜: 20170116  
기자: 나성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74055001  
ID: 01100201.201701161740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span class='quot0'>우리가 파악한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거짓말을 너무 단호하고 명확하게 하고 있다.</span>” <br/> <br/>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14일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업무방해·위증 혐의)을 청구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br/> <br/>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학사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12∼13일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이 수사팀이 제시한 각종 증거에도 모르쇠로 일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유방암 투병 중인 김 전 학장에 대해 영장 청구 강수를 둔 이유다. <br/> <br/> 남궁곤(56·구속) 전 이대 입학처장 등은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은 특검 조사에서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15일 “김 전 학장은 위증 부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을 워낙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구속된 류철균 이대 교수는 “<span class='quot1'>김 전 학장이 암 투병 사실까지 밝히며 정씨를 잘 봐달라고 해 거절하기 힘들었다</span>”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전 학장은 지난달 15일 청문회에서 “<span class='quot2'>정유라라는 이름조차 생소하다</span>”고 했다. <br/> <br/> 김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류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특검팀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br/> <br/>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정점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번 주 잇달아 소환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4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시 주체 등을 따져 물었다. <br/> <br/>▶설현, AOA 민낯 순위 꼴찌 기록…"민낯이 까매서.." [꿀잼포토] <br/>▶'성추행 몰카' 찍힌 칠레외교관에 대한 교민 반응 [꿀잼 영상] <br/>▶"아들 정액으로 실험" 드들강 사건 푼 노교수의 열정 <br/>▶그것이 알고싶다 김기춘, 50년 조작사 조명… "그는 머리였다" <br/>▶특검, '정유라 입학 특혜' 김경숙 전 이대 학장 구속영장 <br/>▶에비앙 먼저 집어든 반기문 영상, 논란인가 아닌가 <br/>▶'방명록도 보고 써야하나' 반기문 현충원 쪽지 영상 <br/>▶'설현 수입 1/n 배분, 사실 아니다' 해명한 초아(영상) <br/>▶최순실과 토론한 이정희?…대선후보 TV토론회 영상 재조명 <br/>▶'고영태는 스스로 잠적했다'는 손혜원 의원 페북 글 <br/> <br/>글=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82.txt

제목: 환자 특성 맞는 치료제 탐구, 세계적 추세 ‘동반진단’ 의학계 새 장 연다  
날짜: 20170116  
기자: 장윤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73155001  
ID: 01100201.20170116173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아무리 좋은 의약품이라고 해도 모든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 의약품이 환자에게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이유는 환자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을 갖고 있어 의사에 처방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하더라도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 보고에 따르면 약 200만 명의 환자에서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 중 0.5%는 약물 부작용에 의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이에 따라 의학계는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을 사전에 인지해 개별 환자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최근 이러한 맞춤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의료 기술이 바로 ‘동반진단’이다. <br/> <br/> ◇동반진단, 약물 효과 및 부작용 사전 예측=환자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치료제 도입을 위해 ‘동반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반진단은 특정 약물에 대한 환자의 치료 반응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진단기법이다. 특정 치료제의 효과, 부작용과 관련된 항원 또는 단백질 등을 미리 확인해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환자를 식별하기 위한 검사법이다. 동반진단은 효과 여부와 부작용이 큰 항암치료 등에서 치료제를 직접 투여·복용하기 전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약을 선택하거나, 부작용 위험을 사전에 줄일 수 있다. <br/> <br/> 동반진단으로 의료비 부담 역시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제적 부담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실제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2014년 세계암보고서(World Cancer Report 2014)에 따르면 암 치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1조1600억 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동반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치료제 처방을 줄이게 되면 경제적 비용 역시 함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r/> <br/> ◇동반진단은 세계적 추세, “동반진단 활용한 치료제 처방 일반화 될 것”=동반진단 검사는 이미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이미 3∼4년 전부터 체외동반진단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일찍이 동반진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지속해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97년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과 허셉틴의 진단검사기기를 우선심사(Fast-Track)로 지정해 4.5개월만에 동시 승인했다. 그 이후 미국 FDA는 총 33개의 체외동반진단기기를 승인 (2016년 10월 기준)했다. <br/> <br/> 현재 전 세계적으로 300개 이상의 표적 의약품이 임상 연구 중이다. 최근에는 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반진단기기를 함께 개발하고 있어 멀지 않은 미래에 동반진단을 활용한 치료제 처방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국 외에도 유럽, 일본 등에서 동반진단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br/> <br/> ◇국내 동반진단 시장 첫 발걸음 떼… 정책적 기반 마련 중요=우리나라는 이제 막 동반진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도입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10월 ‘체외동반진단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본격적으로 동반진단기기 개발 독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 후 한 면역항암제가 동반진단기기와 의약품이 국내 최초로 동시 허가를 받아 의료진과 업계 관계자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정책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내 동반진단 검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약품과 동반진단기기를 통합 검토해서 동시 허가하는 신속승인(Fast Track) 제도 ▲동반진단 관련 의약품의 보험급여 우선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r/> <br/> 동반진단 의약품의 경우, 사전에 정확한 환자 선별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결정 시 동반진단 유무에 따라 의약품 보험 급여의 우선 적용 및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하다. 동반진단기기와 함께 허가를 받은 약제의 경우 환자들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동반진단 관련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고려해 실제 환자들이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급여 등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환자 맞춤 치료 시대를 연 ‘동반진단’,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세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br/> <br/>장윤형 기자 newsroom@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5-983.txt

제목: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④] 진통제 복용해도 중독과는 무관  
날짜: 20170116  
기자: 정리=송병기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73055001  
ID: 01100201.201701161730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국가암정보센터와 함께하는 ‘암환자 생활백서-통증관리’ 주제의 4회 연재를 통해 암환자들의 통증, 호흡기계·소화기계 증상, 피로 관리 방법을 소개한다. <br/> <br/> 암환자가 통증으로 인해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통증으로 인해 일어나거나 걸을 수 없을 때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을 때 ▲통증으로 인해 눈물이 나며 힘들 때 ▲통증으로 인해 식욕이 감소할 때 ▲통증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싫을 때 ▲진통제를 복용해도 통증이 조절 안될 때 등이다. <br/> <br/> ◇통증이 있을 때만 약을 복용한다?=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통증은 심할 때보다 약할 때 조절하기가 쉬우며, 처방 된 진통제를 규칙적으로 제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br/> <br/> ◇진통제에 습관성이 생기거나 중독이 될 수 있다?=암환자의 통증 조절을 위해 사용되는 진통제는 습관성이나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른 치료 방법으로 통증이 줄어들면 약을 줄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약의 복용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br/> <br/> ◇마약성 진통제는 미리 사용하면 나중에 쓸 약이 없다?=마약성 진통제는 천정 효과가 없어서 통증이 심해지더라도 용량을 늘리면 효과가 지속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br/> <br/> ◇오랫동안 약을 사용하면 약효가 줄어들어 용량을 늘려야 한다?=진통제를 오래 사용하는 경우 진통제에 몸이 익숙해져서 효과가 적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내성이라고 한다. 이때는 용량을 늘리거나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추가할 수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용량을 늘려야 하는 경우는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암이 점차 악화되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br/> <br/> ◇통증을 너무 자주 호소하면 의사나 간호사가 날 귀찮게 생각할 것이다?=과거와는 달리 의료진은 통증 조절을 암환자의 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 통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질 경우 진통제를 투여했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의사나 간호사에게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도록 한다. <br/> <br/> 정리=송병기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84.txt

제목: [질환 통계-심장암] 발생 빈도 낮지만 매년 수십명 치료…발병원인도 못밝혀내  
날짜: 20170116  
기자: 조민규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73055002  
ID: 01100201.201701161730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span class='quot0'>심장은 뜨겁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span>”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심장에는 암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하지만 심장에서도 드물지만 암이 발생할 수 있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장암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10년 66명(남성 28명, 여성 38명) △2011년 70명(남성 31명, 여성 39명) △2012년 54명(남성 28명, 여성 26명) △2013년 61명(남성 31명, 여성 30명) △2014년 82명(남성 41명, 여성 41명) △2015년 74명(남성 31명, 여성 43명) 등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연령별 환자수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br/> <br/> 심장은 주먹 크기의 근육으로 된 기관으로 몸에서 펌프 역할을 담당해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는데 심장의 왼쪽 부분은 산소와 영양분을 실은 신선한 혈액을 뿜어내는 역할을 하며, 오른쪽 부분은 전신을 순환하면서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싣고 심장으로 돌아온 혈액을 폐로 순환시켜 다시 산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br/> <br/> 심장암은 심장에서 기원한 원발성 심장암과 다른 장기에서 전이된 전이성 심장암으로 나뉜다. 국립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심장암의 대부분은 전이성인데 원발성 종양보다 그 빈도가 몇 배나 높으며, 모든 종양의 1∼20%에서 발생된다. 그 중 악성 흑색종에서 심장 전이의 빈도가 가장 높고 백혈병과 임파종에서도 심장 전이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성 심장암의 원발 부위는 주로 유방과 폐이고 혈류, 임파선, 직접적인 침습으로 심장에 전이돼 작고 단단한 결절을 형성한다. 또 심낭을 가장 빈번하게 침습하며 심근, 드물게는 심내막, 심장판막을 침습하기도 한다. <br/> <br/> 원발성 심장 종양의 75%는 양성 종양으로 이 중 가장 흔한 것은 점액종(발생률: 좌심방 75%, 우심방 15∼20%)이며 양성 심장 종양의 약 50%를 차지한다. 30∼60대 사이에 흔히 발병하는데, 가족력이 있는 가족성 점액종은 평균 발병 시기가 20대로 보다 젊은 연령, 다발성, 비특이적 위치에 발병하는 특징이다. <br/> <br/> 양성 종양은 대개 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 반면 악성 종양은 원발성 심장 종양의 약 15%를 차지하며, 대부분 육종이다. 30대에서 50대에 가장 흔하게 진단되며, 우측 심장에 흔하다. 비교적 빠르게 증식해 진단 당시 심장 내 침습, 혈류 방해, 전이 등의 진행 소견이 이미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며 예후가 나쁜 암이다. 대부분의 양성 심장 종양은 수술절제가 최선의 치료 방법이다. 원발성 심장암 중 가장 흔한 육종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후가 불량하기는 하나,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경우는 불완전 제거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 <br/> 심장암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아서 아직까지 명확한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증상이 없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검사 도중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점액종의 경우 가족력, 여성 등이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다. <br/> <br/>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언론사: 국민일보-5-985.txt

제목: [특별기고-안지현] 뼈·근육 지켜야 노년에 건강하다  
날짜: 20170116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6172755002  
ID: 01100201.20170116172755002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80세 전후로 늘어났다.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평균수명을 못 채우거나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침대에서만 지내는 사람도 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수위를 달린다. 수명이 길어져 누구도 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래에 유전자 치료로 암의 발생위험을 낮추는 날이 오겠지만 현재는 여러 암의 원인인 흡연이나 과음을 자제하고, B형과 C형 간염 바이러스 백신, 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간암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며, 건강검진으로 암을 조기 진단해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다. <br/> <br/> 80년간 사용하는 혈관을 깨끗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높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는 혈관을 손상시켜 죽상동맥경화증을 일으킨다. 뇌나 심장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처럼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 이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갖고 있다면 처방약 복용만 충실히 해도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br/> <br/>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는 2022년까지 국가건강증진프로그램으로 ‘건강 일본 21’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운동기증후군(locomotive syndrome)이 있다. 운동기증후군은 노화로 인해 혼자 걷기 어렵고 넘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일본 가고시마 현의 70∼74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은 노인이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81.7%), 지지대 없이 일어설 수 없으며(81.1%), 난간이나 벽을 짚어야 계단을 올라갈 수 있고(81.3%), 걸음이 느리며(71.1%), 외출을 꺼린다고(50%) 하였다. 만성 질환이 차차 늘어나는 40대 후반부터 앉았다 일어나거나 걷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50대 이후에 더욱 증가한다. <br/> <br/> 노인이 되면 근육량이 적은 근감소증이 되기 쉽다. 근육량이 줄면 근력이 떨어지고 당뇨병도 생기기 쉽다. 무릎 골관절염이 있으면 통증으로 인해 걷는 자세도 불안정하다. 몸의 유연성과 반응 속도가 떨어져 뼈가 약한 골다공증까지 있으면 넘어질 경우 뼈가 부러지기 십상이다. 평소 앉았다 일어나거나 걸을 때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병원에 입원해 퇴원하기까지 기간도 더 오래 걸린다. 관절 수술법과 기구가 발달을 거듭했지만 젊을 때 건강한 관절을 따라갈 수는 없다. <br/> <br/> 결국 운동기증후군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지나치게 음식을 가리거나 적게 먹는 노인이 많은데 근육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등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도 높은 운동은 부상 위험이 크고 관절통증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복잡한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리 근력을 키우는 운동 가운데 스쿼트가 좋다. 다만 젊은 사람들과 달리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손으로 책상이나 탁자를 붙잡고 의자에서 엉덩이를 살짝 떼고 일어선다. <br/> <br/> 심호흡과 함께 무릎 관절을 굽혔다 펴는 동작을 한 번에 5∼6회 반복한다. 이런 식으로 하루 세 번 시행하도록 한다. 스쿼트 동안 숨은 멈추지 말고 무릎은 90도 이상 구부리지 않는다. 균형감각을 키우기 위해 일어선 자세에서 한 손으로 탁자를 짚고 한 발은 살짝 든 상태로 1분간 버틴다. 이때 넘어지지 않도록 눈은 감지 않는다. 다시 발을 바꾸어 1분간 버틴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번 시행한다. 이제 뼈와 근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br/> <br/>안지현 <대한노인의학회 학술이사·KMI한국의학연구소 내과 과장>

언론사: 국민일보-5-986.txt

제목: [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33. 이재용 영장 청구하나… 일부 진술 어긋나  
날짜: 20170113  
기자: 박정태 선임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3173144002  
ID: 01100201.20170113173144002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전날 오전 9시30분쯤 소환된 이 부회장은 22시간가량 고강도의 밤샘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7시50분쯤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회사로 출근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르면 내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공식 수사 24일째(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br/> <br/> <br/> <br/># 이재용 사법처리 수위는=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오후 2시30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와 관련해 취재진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br/> <br/>Q. 영장 여부는 언제 결정하나. <br/>A. 그의 신병처리 여부는 오늘은 결정되기 힘들 것 같다. 늦어도 내일이나 모레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br/> <br/>Q. 혐의 일부 인정했나. <br/>A. 현재로서는 언급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br/> <br/>Q. 청문회에서 밝힌 것과 동일한 입장을 내놨나. <br/>A. 진술내용은 기존 언론보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 <br/> <br/>Q. 청문회 거짓말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 <br/>A. 특검에서 위증으로 판단한 부분도 같이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br/> <br/>Q.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의 위증이 기소 이외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되는가. <br/>A.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그랬다면 영장 청구 사유의 일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r/> <br/>Q. 22시간 조사했는데 혐의를 부인해서인가. 아니면 중간에 쉬어서인가. <br/>A. 조사할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불일치해서 수사가 오래 진행됐다. <br/> <br/>Q. 몇 개 팀에서 조사했나. <br/>A. 한 팀에서 조사한 걸로 안다. <br/> <br/>Q. 삼성은 기본적으로 강요에 의한 피의자라고 일관되게 말하면서도 시점이나 지원관계 드러날 때마다 말을 자꾸 바꾼다. 말바꾸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나. <br/>A. 지금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 공개는 곤란하다. 그 부분에 대한 추궁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br/> <br/>Q. 최지성 장충기(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차장) 재소환 계획 있나. 삼성 추가 압수수색 계획은? <br/>A. 재소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압수수색 여부는 대답하기 곤란하다. <br/> <br/>Q. 피의자 진술이 단계마다 변하는 게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사유가 되나. <br/>A. 원론적으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면 당연히 영장 청구 사유가 될 것이다. <br/> <br/>Q. 영장 청구에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나. <br/>A. 특검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다. 그런 부분은 언급할 내용이 아니다. <br/> <br/>Q. 뇌물 공여로 기울어지고 있나. <br/>A. 적용 혐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다만 현재 뇌물 공여 및 위증 두 개의 혐의를 검토 중이다. <br/> <br/>Q.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의 진술과 이재용 진술 어긋나는 부분 있나. <br/>A. 일부 어긋나는 부분 있는 것으로 안다. <br/> <br/>Q. 뇌물 공여라고 언급했는데 적용되는 게 직접 뇌물죄냐, 제3자 뇌물죄냐? <br/>A. 그 부분도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시점에 말씀드리겠다. <br/> <br/>Q. 내일이나 모레 신병처리 결정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br/>A. 이르면 내일도 가능하다. <br/> <br/> <br/> <br/>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이 대기 중인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을 때에는 포토라인에 선 뒤 “<span class='quot0'>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span>”고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br/> <br/>조사는 양재식 특검보의 지휘 아래 특수통인 한동훈 부장검사와 김영철 검사가 맡았습니다. 이 부회장 조사는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진행됐고 출석해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조사 시작 전 박영수 특검과 면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끼니는 6000원짜리 도시락(점심)과 짜장면(저녁)으로 때웠다고 합니다. <br/> <br/>쟁점은 2015년 8월 최순실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하고 35억원을 송금한 것,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명마 구입 대금으로 43억원을 제공한 것,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것,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등이 뇌물이냐 아니냐입니다.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일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 측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게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입니다. <br/> <br/>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최종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결정합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과 함께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삼성전자의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등 그룹 수뇌부의 신병 처리도 결정합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한 박 사장은 12일 오후 2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13일 새벽 3시30분쯤 귀가했습니다. 승마협회 총무이사인 김문수 삼성전자 부장도 함께 소환됐습니다. 삼성 수사가 완료되면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 수사도 진행될 것입니다. <br/> <br/> <br/> <br/># 정유라 이대 특혜 핵심 재조사=이화여대 학사 농단의 핵심인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3일 오후 재소환됐습니다. 정유라씨에게 입학 특례를 제공하고 관련 교수들에게 정씨의 학사 편의를 봐줄 것을 요구한 혐의입니다. 김 전 학장은 전날인 12일 오전 10시쯤 소환돼 조사를 받고 밤 11시30분쯤 귀가조치된 바 있습니다. 그는 귀갓길에 입학 특혜를 지시했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위증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오리발입니다. <br/> <br/>김 전 학장은 암 투병 중입니다. 12일 소환 당일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 신병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일관하면 봐줄 수가 없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전 학장은 지난 9일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span class='quot1'>본인은 2016년 6월 20일에 유방암 2기를 진단받아 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항암치료 중 극심한 고통과 통증을 수반하는 항암 화학요법 부작용을 겪고 있다</span>”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전 학장 신병 처리가 끝나면 최경희 전 총장이 소환될 것입니다. <br/> <br/>한편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와 관련해 다음 주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특검에 공식 통보했다고 합니다. 정씨 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br/> <br/> <br/> <br/># 윗선으로 올라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특검팀은 구속수감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3일 오후 2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 3명은 12일 새벽 2시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됐죠.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여 정도가 낮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br/> <br/>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작성 실무와 전달을 맡았던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의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제 ‘윗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환 일정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규철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span class='quot2'>소환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주 정도면 일정이 나올 수 있을 것</span>”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87.txt

제목: [단독] 일반 병실서도 호스피스 서비스… ‘존엄한 죽음’ 돕는다  
날짜: 20170113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3050155001  
ID: 01100201.20170113050155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오는 7월부터 암 등 말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일반 병실에서도 통증 완화, 영적 상담 등 임종 돌봄 서비스를 하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br/> <br/> 기존 병동형과 가정형 호스피스에 한 가지 유형을 더 추가해 호스피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존엄한 죽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br/> <br/>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span class='quot0'>7월에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진료 등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span>”이라며 “<span class='quot0'>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적절한 서비스 모델, 건보 수가, 표준지침 개발을 진행 중</span>”이라고 12일 밝혔다. <br/> <br/>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종교인 등 영적 상담자 포함)가 한 팀을 이뤄 호스피스 병동이 아닌 일반 병동에 입원 중인 말기 환자를 직접 찾아가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개한 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과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구체적 시기가 제시된 건 처음이다. <br/> <br/> 더구나 오는 8월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에는 암 외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와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3개 질환이 호스피스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자문형 호스피스’가 도입되면 이들 환자나 주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담팀이 환자가 입원한 곳을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br/> <br/> 2015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15.0%에 불과하다. 자문형 등 다양한 호스피스가 활성화된 대만의 59%(2014년 기준)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현재 국내에는 병동형 호스피스기관 77곳(1293병상)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 3월 가정형 호스피스(21곳), 9월 요양병원(12곳)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대상 질병 확대 등으로 밀려드는 호스피스 수요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br/> <b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span class='quot1'>자문형 호스피스에 기존 병동형이나 가정형 모델과 건보 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엔 변수가 많다</span>”면서 “<span class='quot1'>특히 비(非)암 질환은 말기 기준이나 말기 증상이 암과는 많이 달라 그에 따른 돌봄 서비스 형태와 수가 등에 차이를 둘 수밖에 없다</span>”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에 서비스 모델과 수가를 정하고 신청을 받아 시설·인력 기준에 맞는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r/> <br/>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이 ‘자문형 완화의료팀’을 별도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br/> <br/>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88.txt

제목: 초췌한 김경숙 前 이대 학장 특검 출석  
날짜: 20170113  
기자: 정현수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3211155001  
ID: 01100201.2017011321115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12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학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br/> <br/>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타난 김 전 학장은 안경을 벗고 화장을 지운 채 머리에 모자를 쓴 모습이었다. 암 투병 중인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초췌해 보였다. 뒤늦게 그를 알아본 기자들이 질문하려 밀착하자 “건드리지 말라”고 하며 들어갔다. 특검은 그를 상대로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를 지시하게 된 경위와 최순실씨와의 관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br/> <br/> 김 전 학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span class='quot0'>정유라가 누구인지, 정윤회의 딸인지 알지도 못했고,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관심도 없고 몰랐다</span>”고 했다.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 최경희 전 총장도 정씨 부정입학 사실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br/> <br/> 특검은 최 전 총장과 최씨가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 등 부정입학과 학점특혜에 깊이 개입한 정황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된 이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전 교수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모두 김 전 학장의 지시였다고 지목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학장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추가 고발된 상태다. <br/> <br/>글=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서영희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89.txt

제목: [서서 보는 뉴스] 반기문 귀국… 대선 레이스 시작  
날짜: 20170112  
기자: 고승욱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2174345001  
ID: 01100201.20170112174345001  
카테고리: 사회>사회일반  
본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귀국했습니다. 귀국메시지는 ‘화합과 통합’입니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이 시작했습니다. <br/>▶潘, “화합” 외치며 대선판 입성 <br/> <br/> <br/> <br/> <br/>피의자 신분으로 8년 10개월 만에 특검에 불려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포토라인에 서서 “<span class='quot0'>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려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span>”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br/>▶이재용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8년 10개월 만에 ‘피의자’로 불려나와 <br/> <br/> <br/> <br/>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학장이 12일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병색이 완연합니다. 김 전 학장은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진실을 말하고 치료에 전념하기 바랍니다. <br/>▶한달전 청문회와 너무 다른 김경숙 <br/> <br/> <br/> <br/>경찰이 인사청탁 의혹을 자체 감찰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신통치 않습니다. 언론에 나온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빨리 외부에 맡기는 게 낫다는 비난이 이어집니다. <br/> <br/>▶"아직 노트 내용 모른다"…경찰 5일째 인사 청탁 의혹 노트 확보 못해 <br/> <br/>고승욱 기자 swko@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0.txt

제목: 한달전 청문회와 너무 다른 김경숙(사진)  
날짜: 20170112  
기자: 신은정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2133045001  
ID: 01100201.20170112133045001  
카테고리: 사회>사건\_사고  
본문: 김경숙(62) 전 이대 체육대학장이 12일 특검팀 소환 당시, 전과 다르게 병색이 완연한 모습을 보였다.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인공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특혜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br/> <br/> <br/> <br/>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2일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br/> <br/>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이날 오전 강남 대치동의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벙거지를 쓰고 나왔다. 눈썹이 거의 없었고, 입술색도 흐릿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초췌한 모습이었다. <br/> <br/> <br/> <br/> <br/> <br/> <br/>지난달 15일 국회 '최순실 청문회'에서 보였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br/> <br/> <br/> <br/> <br/>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이날 여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span class='quot0'>검찰(특검)에 가서 얘기하겠다</span>"고 답했다. <br/> <br/> <br/>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정유라가 2014년 9∼10월 부정한 방법으로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이듬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br/> <br/>특검팀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이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r/> <br/>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암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r/> <br/>정유라 학사비리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는 최근 "(정유라 재학)당시 암투병 중이던 김 전 학장이 '머리카락이 빠져 가발을 써야하는 상황이고, 얼굴이 붓는다.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r/> <br/>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1.txt

제목: 해변·호수 따라 걸으며 겨울 낭만과 추억을…  
날짜: 20170112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2204255001  
ID: 01100201.20170112204255001  
카테고리: 문화>요리\_여행  
본문: 겨울여행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다다. 주변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일출과 일몰의 아름다운 풍경에 취하고 한적한 바닷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매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다양한 바다의 별미를 맛볼 수 있어서다. <br/> <br/> 겨울바다 여행코스로 많은 이들이 강원도 강릉을 찾는다. 대관령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웅장한 자태와 낭만적인 겨울바다를 간직한 동해의 시원한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의 힐링코스는 물론,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도보여행자들의 트레킹 코스로도 눈길을 끌고 있다. <br/> <br/> 강릉 바우길 5코스인 ‘바다호숫길’은 이러한 정취를 안겨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길은 이름 그대로 바다와 호수를 항상 곁에 둔다. 바다를 따라 혹은 바다를 바라보며 걸을 수도, 호수를 따라가며 느긋하게 산책할 수도, 향기로운 커피향에 취할 수도 있는 길이다. <br/> <br/> 출발지에서 경포호까지 해변길, 경포호 주변길, 경포호에서 도착지까지 해변길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바다와 경포호 가운데 일부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경포호 주변길은 가족끼리 연인끼리 4인승 또는 6인승 자전거를 빌려 탈 수도 있다. <br/> <br/> 출발은 사천항에서 남으로, 남항진에서 북으로 어느 방향을 선택해도 좋다. 사천해변공원에서 길을 나선다. 백두대간에서 이곳 바다 쪽으로 뻗어 내리는 지맥과 하천이 교산(蛟山)과 사천이다. 교산의 구릉과 사천의 시내가 나란히 바다로 들어가며 만나는 백사장에 기이하게 생긴 바위가 놓여 있다. ‘교문암(蛟門岩)’이다. 크지는 않지만 가운데 아래위로 갈라져 있어 어린애 엉덩짝처럼 생겼다. 여기에 전설이 있다. 바위 속에 웅크려 있던 늙은 이무기가 바위를 깨뜨리고 바다로 나가면서 두 동강이 나 문(門)처럼 생긴 바위라 해서 이름지어졌다. <br/> <br/> 이곳에 홍길동전을 쓴 풍운아 허균의 일화가 서려 있다. 어려서부터 누나 허난설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를 자처했고 허균 역시 교산에 엎드려 있다 용으로 승천할 이무기라고 여긴 몽상가·풍운아 남매였다. 허균은 용이 돼야 하는 이무기의 운명을 타고났다고 스스로 믿어 호를 ‘교산’이라 짓는다. 금이 간 바위는 절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반쪽으로 갈라질 징조라고 한다. 그 옆 바위에 새겨진 ‘영락대’는 옛날 강릉지방 영락계(契)를 하던 강릉 선비들이 이곳에 자주 모여 풍류를 즐기면서 바위에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br/> <br/> 이곳에서 남쪽으로 사천을 건너면 야트막한 언덕 아래 쌍한정(雙閒亭)이 서 있다. 조선 중기의 학자 삼가정(三可亭) 박수량과 당숙인 박공달이 세운 정자다. 박수량은 1504년(연산군 10년)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모친상을 당한 뒤로는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 연산군 때 단상제(短喪制·상례 기간을 단축시킨 제도)가 엄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자 선왕(先王)의 제도를 어길 수 없다해 3년 동안 최복(衰服)을 입고 여막에 살았다. 뒤에 현량(賢良)으로 천거돼 용궁현감(龍宮縣監) 등을 지내고 1519년(중종 14년) 기묘사화로 파직돼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와 이곳에서 시와 술과 담론으로 여생을 보냈다. 천성이 순수하며 후하고 소박했으며 지조가 구차하지 않고 효행이 있었다. 쌍한정 옆에 박수량의 효비각이 있는데 효비각 안에는 효자비와 효자각기가 있다. <br/> <br/> 이어지는 해송(海松)숲은 바다호숫길의 진정한 주인이다. 걷기 좋게 폭신한 흙길 주위로 빽빽하게 하늘 높이 쭉쭉 솟은 소나무숲이 풋풋한 솔 향내와 푸른 바다 내음을 그대로 전해준다. 바닷바람을 막으려 심기 시작한 소나무답게 다들 육지 쪽으로 은근슬쩍 기운 모습도 특이하다. 멀리 바다에 시선을 던지면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시원해진다. <br/> <br/> 코스 한가운데에 악센트를 주듯 경포호가 있다. 경포호 주위 볼거리가 쏠쏠하다. 호숫가의 홍장(紅粧)암은 경포팔경의 ‘홍장야우(紅粧夜雨)’에 해당되는 바위다. 고려 말 강원도 안렴사로 강릉에 머물러 있었던 박신(朴信)이 강릉 출신 기생 홍장과 함께 배를 타고 사랑을 나눈 이야기가 전해진다. 홍장암에는 수령 30∼40년 된 벚꽃나무가 있으며, 바위에는 ‘이가원(李家園)’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br/> <br/> 경포호를 둘러싸고 금란정, 방해정, 해운정 등 12개의 정자가 들어섰다. 그중 대표적인 정자가 경포대이다. 정면 5칸 측면 5칸의 팔작지붕 구조다. 1326년(고려 충숙왕 13년) 강원도 존무사(存撫使) 박숙정(朴淑貞)에 의해 신라 사선(四仙)이 놀던 방해정 뒷산 인월사(印月寺) 터에 창건됐으며, 그 뒤 1508년(중종 3년) 강릉부사 한급(韓汲)이 지금의 자리에 옮겨지었다고 전해진다. <br/> <br/> 1626년(인조 4년) 강릉부사 이명준(李命俊)에 의해 크게 중수됐는데, 인조 때 우의정이었던 장유(張維)가 지은 중수기(重修記)에는 태조와 세조도 이 경포대에 올라 사면의 경치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임진왜란으로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었다고 쓰여 있다. <br/> <br/> 현재의 경포대 건물은 1745년(영조 21년) 부사 조하망(曺夏望)이 세운 것으로서, 낡은 건물은 헐어내고 홍수로 인해 사천면 진리 앞바다에 떠내려온 아름드리 나무로 새로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873년(고종 10년) 강릉부사 이직현(李稷鉉)이 중건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br/> <br/> 현판은 헌종 때 한성부 판윤을 지낸 이익회(李翊會)가 쓴 것이다. 유한지(兪漢芝)가 쓴 전자체(篆字體)의 현판과 ‘第一江山(제일강산)’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는데, ‘第一江山’이라는 편액은 ‘第一’과 ‘江山’의 필체가 다른 점이 특이하다. 경포대에 올라 호수를 내려다보면 마음이 잔잔해진다. 멀리 보이는 월파정이 호수 한 가운데 예쁘게 떠있다. 경포호 그림이나 사진에 꼭 등장하는 새바위(조암) 위에 서 있는 누각이다. <br/> <br/> 강릉은 커피로도 유명하다. ‘커피의 장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이 100여개나 된다. 서울에서 이름난 바리스타들이 강릉으로 이주하면서 생겨난 지역문화다. 바다호숫길 종점 남항진해변 직전 안목해변에 커피거리가 조성돼 있다. 푸른 바다 풍경을 앞에 두고 짙은 향의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온 몸의 피로가 자연스럽게 풀리고 바우길의 운치가 절로 돋는다. <br/> <br/>여행메모 <br/> <br/>17개 코스, 280㎞ 바우길 한국 3대 걷기길… 자연산 홍합·부추·버섯 등 넣은 섭국 별미 <br/> <br/>강릉 바우길은 제주 올레,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한국의 3대 트레킹 코스로 자리 잡았다. 현재 17개 코스, 총연장 280㎞의 트레킹 코스로 만들어져 있다. 강원도와 강원도 사람을 친근하게 부르는 ‘감자바우’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강원도의 산천답게 인간친화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이름이다. 또 바우(Bau)는 그리스 신화의 모태와도 같은 바빌론 신화에 손으로 한 번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죽을 병을 낫게 하는 건강의 여신이다. <br/> <br/> 대관령 동쪽에 비슷한 지역 안에 있지만 코스마다 모습이 달라 서로 비슷한 길이 없다. 첫 구간으로 대관령 휴게소에서 출발하는 ‘선자령 풍차길’처럼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백두대간의 등줄기를 밟기도 하고 ‘대관령 옛길’처럼 조상들의 발길을 따라 역사와 문화유적을 살피며 산맥에서 바다로 나아가기도 한다. <br/> <br/> 강릉은 바다를 끼고 있어 해산물 요리가 풍부하다. 특히 사천해변에 물회단지가 조성돼 있다. 시원한 물회도 맛나지만 이곳의 섭국도 별미다. ‘섭’은 자연산 홍합을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 자연산 홍합에 밀가루로 옷을 입히고 미나리, 부추, 버섯 등의 야채를 넣고 매콤하게 끓인 탕이 섭국이다. 양식이 불가능해 직접 채취해야 한다. 맛뿐만 아니라 피로회복을 돕는 타우린과 노화 유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A와 C도 풍부하다. <br/> <br/>강릉=글·사진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92.txt

제목: [단독] 중국서 리콜차 또 리콜… 덜컹대는 현대차  
날짜: 20170111  
기자: 허경구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1153355001  
ID: 01100201.20170111153355001  
카테고리: 국제>중국  
본문: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올 뉴 투싼’ 약 10만대에 대해 리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도 1월 중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차량은 지난해 10월 다른 결함으로 한 차례 리콜됐던 차종이어서 품질지상주의를 외쳐온 현대차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된다. <br/> <br/>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 법제일보(法制日報) 등 중국 매체들은 현대차가 신형 투싼 9만6094대를 리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회수 대상 차량은 2015년 9월 5일부터 지난해 5월 11일 생산된 올 뉴 투싼 전량이다. <br/> <br/> 현대차 중국법인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에 리콜 준비 계획을 제출했으며 오는 2월 13일부터 리콜을 실시할 방침이다. <br/> <br/> 원인은 리어 트레일링 암의 강도 부족이다. 리어 트레일링 암은 바퀴 쪽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다. 질검총국은 “<span class='quot0'>고속 후진 상황이나 후방 추돌 등의 충격으로 부품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장시간 계속 사용하면 균열이 발생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span>”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트레일링 암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부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pan>”며 “<span class='quot1'>이 부품은 부식 등의 문제가 아니고는 평생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장치</span>”라고 말했다. <br/> <br/> 해당 차량은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span class='quot2'>지난해 12월 27∼28일쯤 국토교통부에 리콜 계획을 알렸다</span>”며 “<span class='quot2'>중국보다 이른 1월 중순쯤 해당 차량 리콜을 실시할 예정</span>”이라고 밝혔다. <br/> <br/> 문제는 ‘올 뉴 투싼’이 지난해 10월 리콜됐던 차량과 생산 기간이 일치하는 동일 차종이라는 점이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듀얼클러치 변속기를 제어하는 장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 내에서 전량 리콜을 실시했고, 국내에서도 내수 물량 617대를 리콜한 바 있다. 3개월 만에 같은 차종을 각기 다른 결함으로 두 차례 리콜하는 셈이어서 품질 문제에 우려가 제기된다. <br/> <br/> 현대차의 중국 내 리콜은 끊이지 않았다. 2006년 10월 엘란트라·쏘나타 9만8559대를 점화장치 결함으로 리콜한 적이 있다. 2012년 6월에는 저속 주행 중에도 에어백이 작동된다는 제보가 있자 아반테HD 중국형 모델인 ‘위에둥’ 9만7452대를 회수했었다. 2015년 10월에는 브레이크 결함으로 중국형 세단인 밍투 3만6484대를 리콜하기도 했다. <br/> <br/> 현대차는 중국 시장 공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 현대차 중국 창저우 공장에 이어 올해 충칭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충칭 공장이 가동되면 연간 총 270만대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br/> <br/>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span class='quot1'>자동차 수출의 주 무대인 중국 내에서 호실적을 거둔 차량의 리콜이 자주 이뤄지는 것은 회사 신뢰도와 브랜드 위상이 떨어지는 암울한 전조가 될 수 있다</span>”고 말했다.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3.txt

제목: 찬바람 ‘쌩쌩’ 손발은 ‘꽁꽁’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은?  
날짜: 2017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1151044001  
ID: 01100201.201701111510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찬바람 부는 겨울, 부쩍 더 차가워진 손발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른바 ‘수족냉증’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온도에서도 지나칠 정도로 손발이 시리고 차가워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상태를 말한다. <br/> <br/>손, 발뿐 아니라 때로 무릎, 하복부, 허리 등 다른 신체 부위에서 냉기를 느끼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손발 저림이나 손발 마비까지 초래한다. 의학적으로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지만 혈액순환 문제나 호르몬 변화, 만성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br/> <br/>수족냉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손과 발,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꽉 조이는 의류를 피하고 장갑, 귀마개, 목도리 등을 가능한 착용하며, 세수나 설거지를 할 때는 찬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유산소운동을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br/> <br/>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도 수족냉증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으로는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어류나 홍삼, 생강, 마늘, 흑마늘 등이 있다. <br/> <br/>특히 마늘은 ‘따뜻한 성질’을 지닌 대표적인 음식으로 마늘에 들어있는 스코르디닌 성분이 내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도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아 구운 마늘이나 흑마늘로 먹는 것도 좋다. <br/> <br/>통마늘을 수십일간 숙성시킨 흑마늘은 숙성 과정에서 생마늘에 없는 항산화물질인 S-아릴시스테인이 생성돼 마늘 효능이 더 업그레이드된 식품이다. 또한 마늘처럼 맵거나 아린 맛이 아닌 새콤달콤한 맛이 나 먹기도 좋다. 이러한 흑마늘을 보다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시중에는 흑마늘환, 발효흑마늘, 흑마늘즙 등 다양한 흑마늘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br/> <br/>그중 흑마늘즙은 복용하기가 수월해 구매율이 높은 제품인데, 흑마늘즙을 선택할 때는 제조방식에 따라 성분 함량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br/> <br/>흑마늘즙은 일반적으로 흑마늘을 물에 달여 진액을 추출하는 물 추출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물에 녹아 나오지 않는 불용성 영양성분을 섭취하기가 어렵다. <br/> <br/>이를 보완한 방식은 통흑마늘을 껍질까지 진액에 갈아 넣는 ‘전체식’ 방식이다.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신성희 교수팀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마늘의 껍질은 알맹이보다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을 4배 이상 더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전체식 즙으로 마시면 생으로 먹을 수 없는 껍질의 영양과 불용성 영양성분까지 흡수가 가능해 흑마늘 진액의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br/> <br/>또한 흑마늘즙에는 맛과 향, 점도를 내는 액상과당, 카라멜시럽 등 합성첨가물이 포함되곤 한다. 자주 사용되는 합성첨가물 가운데 과당성분은 온라인 건강잡지 <영양과 당뇨(Nutrition & Diabetes, 2016)>를 통해 관절염 발병률을 3배 더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제품 선택 시 첨가물 유무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br/> <br/>수족냉증은 손발이 차가울 뿐 심각한 불편을 일으키지 않아 방치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수족냉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혈액순환 문제로 동상이나 뇌졸중, 치매, 암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겨울철 유독 더 심해지는 수족냉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 교정과 함께 수족냉증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항상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4.txt

제목: 광운대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 최은하 교수, 플라즈마 과학 전문가로 자리매김  
날짜: 2017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1142044001  
ID: 01100201.20170111142044001  
카테고리: IT\_과학>과학  
본문: 작년 10월 한국에서는 플라즈마 과학분야의 평생업적기반 최고과학자상인 ‘2016 ICPM 플라즈마 의학상(PMA)’을 수상한 과학자를 배출했다. 바로 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 연구센터의 센터장이자 전자바이오물리학과 최은하 교수다. <br/> <br/>최 교수가 연구하는 플라즈마바이오 과학은 생명의 원천이자 우주의 기본 물질인 플라즈마를 이용해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아토피, 암,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차세대 건강 복지에 의학적 적용이 가능한 분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br/> <br/>현재 그가 이끄는 플라즈마바이오과학 연구센터는 현재 국내 10개 대학의 참여로 50여명의 교수진을 포함한 112명의 센터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br/> <br/>본 센터는 올 2월에는 독일의 라이프니츠 연구소와 협업하여 여드름, 아토피, 흑색종, 피부암, 발진과 같은 피부 질환 및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메커니즘 연구와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을 목표로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의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br/> <br/>이를 통해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에 효과적인 의료기기 개발에 착수를 거쳐 국내 6개의 대학병원(서울대, 고려대, 경희대, 가톨릭대, 조선대)과 협력하여 임상시험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br/> <br/>그렇다면 플라즈마가 어떻게 현대 의학의 난제인 난치성 질환을 해결한다는 것일까? 라즈마는 기체에 에너지를 가하면 발생하는데 이는 물리학의 기본 물질이며 의학에서는 피의 성분인 혈장을 뜻하는 성분을 부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만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즈마는 정상세포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비정상세포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살균, 지혈 같은 효능이 특징이다. <br/> <br/>그가 현재 연구중인 플라즈마비침습법은 각종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해 연구되고 있으며, 플라즈마를 피부나 조직에 조사해 각종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과 플라즈마 처리가 플라즈마칵테일을 일정량 섭취하여 암세포와 같은 난치성 질환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나뉘어진다. <br/> <br/>최근에는 플라즈마가 의학계에서도 귀추를 주목받는 물질로 급부상하면서 저온 플라즈마 피부미용기기, 플라즈마 이온발생 공기청정기, 치아미백용 의료기기가 출시되었거나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br/> <br/>이러한 제품들은 플라즈마가 차세대 의학 기술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자 다양한 소스 개발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br/> <br/>하지만 현재 한국은 플라즈마 의학의 선두그룹에 속해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력 부족 문제가 연구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고작 200명에 달하는 학자들이 플라즈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면,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무려 5배나 되는 1000명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유의 섬세함과 독창성을 가진 여성과학자도 꼭 필요한 상황이다. <br/> <br/>한편, 최은하 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 플라즈마 메디신클리닉 센터의 개설을 언급했다. 그는 “의료기기 개발 단계를 적극적으로 거쳐 실질적으로 플라즈마 의료기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클리닉센터 개설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br/> <br/>전초 단계인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가 개설되면 수 년 안으로 플라즈마메디신클리닉 센터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br/> <br/>이 센터를 통해 아토피, 피부암, 흑색종, 무좀 같은 피부질환이나 치매,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기기를 통한 실질적인 훈련과 인력 양성을 거친다면, 기업체를 통한 의료기기의 상품화와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br/> <br/>한편, 최 교수가 속해있는 광운대 플라즈마바이오과학 연구센터는 오는 2월 6일 라이프니츠 연구소와의 플라즈마의과학센터(APMC) 개소를 통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6월에는 제8회 ‘ICPM 국제플라즈마의과학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r/> <br/>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5.txt

제목: “무당집·유교 터전에 예배당 짓는 기적”  
날짜: 20170111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1210855002  
ID: 01100201.20170111210855002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궁산(弓山) 자락, 금호강 기슭에 자리 잡은 푸른초장교회(임종구 목사)는 ‘물가에 심은 나무’(렘 17:8, 시 1:3)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창립 21년 만에 등록교인 1000여명(출석 600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했다. 연혁만 보면 아직도 신생교회다. <br/> <br/><br/>시작은 미약했다. 담임목사 부부를 빼면 교인은 달랑 2명이었다. 그러나 2006년 창립 10주년엔 경북 안동에 제자교회를 세우는 기염을 토했다. 2년 뒤엔 어엿한 단독건물 예배당을 갖는 꿈도 이뤘다. 20주년 기념교회로 지난해부터 짓고 있는 제주 가시리교회와 네팔 렐레교회는 올 부활절 전에 헌당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종교개혁 500주년 새해 첫 주말인 지난 7일 푸른초장교회 목양실에서 임종구(48) 목사를 만나 교회의 성장 스토리와 미래 비전을 들었다. <br/> <br/> 신대원 2학년 때 신혼방에서 개척 <br/> <br/> 임 목사는 1996년 총신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대구 남구 대명동의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2명과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후 한 아파트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 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때 주인의 부도로 길거리로 내몰렸다. 오전은 어린이집에서, 오후에는 주암산 기도원에서 주일성수 하며 예배 공간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br/> <br/> 응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성서지역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단지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다. 고 옥한흠(사랑의교회 창립자) 목사로부터 배운 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사활을 걸었다. <br/> <br/> 결과는 놀라왔다. 창립 10년 만에 150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호사다마였다. 2002년 여름휴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북 안동에서 잠시 머무른 적이 있었다. 그 때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안동에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br/> <br/> "<span class='quot0'>안동 제자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쁨 이상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span>" <br/> <br/> '비우면 채워주신다'고 한 말씀처럼, 안동 제자교회를 짓고 나니 대구 본교회 근처 마을 뒤 궁산의 무당집과 제실, 당산나무가 있는 땅 661㎡(200여평)가 급매물로 나온 것이다. <br/> <br/> 다시 안 올 기회였다. 교회가 땅을 사겠다고 나서자 암에 걸린 무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땅을 교회에 넘겼다. 문제는 터줏대감격인 이락서당(伊洛書堂)이었다. 나중에 교회를 신축하려면 서당의 부지 일부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9개 문중이 공동으로 소유한 터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br/> <br/> 10년 전 약속 '민들레센터' 계획 <br/> <br/> 교회뿐만 아니라, 마을 도서관도 함께 건립하겠다는 임 목사의 제안이 통했을까. "<span class='quot0'>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예배당은 절대 안 된다</span>"던 이들이 1322㎡(400여평)를 내놓았다. 2008년 마침내 교회개척 12년 만에 5층 규모 예배당을 신축했다. 2층은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br/> <br/> 푸른초장교회의 정유년 새해 목표는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겸한 '민들레센터(가칭)'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락서당 땅 일부를 사들이면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교회는 매년 봄 외국인근로자와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br/> <br/> 2017년 푸른초장교회 교회표어는 '신자, 가족, 시민으로'(엡 2:9)다. 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공동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했다. <br/> <br/> 2015년 총신대 신대원에서 '칼뱅과 제네바 목사회'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 목사는 인터뷰 말미에 한국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선 장 칼뱅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br/> <br/> "낙동강은 금호강을 만나 거대한 물줄기로 변합니다. 푸른초장교회는 두 강 이름을 따서 만든 이락서당과 함께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br/> <br/>대구=글·사진 윤중식 기자 <br/> <br/>yunjs@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996.txt

제목: “무당집·유교 터전에 예배당 기적” 대구 푸른초장교회  
날짜: 20170110  
기자: 대구=글·사진 윤중식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0172544001  
ID: 01100201.20170110172544001  
카테고리: 문화>종교  
본문: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궁산(弓山) 자락, 금호강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푸른초장교회(임종구 목사)는 말 그대로 ‘물가에 심은 나무’(렘 17:8, 시 1:3)처럼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부축하며 쑥쑥 자라고 있는 역동적인 교회다. 창립 21년 만에 등록교인 1000여명(출석 600명)의 중형교회로 성장했다. 연혁만 보면 아직도 신생교회다. 하지만 사역 규모면에선 여느 지방의 대형교회 못잖다. <br/> <br/> <br/> <br/>그러나 시작은 미약했다. 1996년 개척당시 교인은 4명이었다. 2006년 창립 10주년엔 자체 예배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에 제자교회를 세우는 ‘기행’을 보여 시선을 모았다. 2년 뒤엔 단독예배당까지 건립하는 ‘기적’을 경험했다. <br/> <br/>지난해엔 제주도와 네팔에 20주년기념교회를 건립했다. 제주 가시리교회와 네팔렐레교회는 올 부활절 전에 헌당예배를 드릴 계획이다. 전 교인들이 동참하는 국제구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성도들과 함께 국제구호개발옹호NGO 월드비전이 펼치고 있는 ‘밀알의 기적’ 프로그램(후원아동 결연사업)에 대거 동참했다. <br/> <br/>신대원 2학년 때 신혼방에서 개척 <br/>임 목사는 1996년 총신대신대원 2학년 때 대구 남구 대명동의 신혼방에서 고등학생 2명과 교회를 창립했다. 이후 지인의 도움으로 한 아파트 상가 일부를 무상으로 임대해 예배를 드렸다. 개척 3년 만에 성도 10명이 출석하는 초미니 교회가 됐다. <br/> <br/> <br/> <br/>하지만 외환위기(IMF) 때 상가 주인의 부도로 길거리 교회 신세가 됐다. 주일 오전엔 인근 어린이집에서 임시예배를 드렸다. 오후에는 주암산기도원에서 오후 예배를 드렸다. 예배당도 없는 설움 속에서도 성도들은 1년이 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기도했다. 응답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성서지역에 들어서는 고급 아파트 단지에 상가건문을 분양 받아 자체 예배당을 갖게 된 푸른초장교회는 고 옥한흠(사랑의교회 창립자) 목사로부터 훈련받은 프로그램을 실천했다. 열정적인 예배와 지역주민들을 섬기는 목회철학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 창립 10년 만에 150배 이상 성장했다. <br/>그러나 호사다마였을까. 2002년 여름휴가 중 교통사고를 당해 경북 안동에서 잠시 머무는 적이 있었다. 그 때 이 지역의 복음화률이 2.5%에 불과하다는 소리를 듣고 임 목사는 다짐했다. 해외선교도 중요하지만 이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교인들 생각도 같았다. 교회를 소유 개념이 아닌,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여겼다. <br/> <br/>임 목사는 당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소유하지 말고 장막의 터를 넓혀야 합니다. 단독예배당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건축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가교회로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에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br/> <br/>안동에 부지를 매입하고 예배당을 짓고, 입당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교인들은 푸른초장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기쁨 이상의 감격을 경험했다. <br/> <br/> <br/> <br/>바로 ‘비우면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었다. 안동제자교회를 짓고 나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댁구 본교회의 마을 뒷산(궁산) 무당집과 당산나무가 있는 땅 661㎡(200여평)가 급매물로 나온 것이었다. 마을의 수호나무였던 백송이 죽고 무당이 암에 걸린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백송대신 일본 소나무 리기다를 심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백송도 아니고 일본 소나무를 심자 마을사람들도 하나 둘씩 마음이 떠나기 시작할 때였다. <br/> <br/>임 목사는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 교회가 땅을 사겠다고 나서자 무당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땅을 교회에 넘기는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br/> <br/> 10주년기념교회 짓고 나니 독자건물 예배당 선물 <br/>문제는 이락서당(伊洛書堂)이었다. 교회를 신축하려면 이 서당의 땅 일부를 매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9개 문중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터라 대지를 쉽사리 살 수 없었다. 1년 정도 각 문중의 대표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br/> <br/>처음엔 서당 땅 한 자락이라도 교회에 내줄 수 없다고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이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다. 다음세대들을 위해 주민들이 함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도서관도 함께 건립하겠다는 임 목사의 제안에 마음을 열었다. ‘예배당은 절대 안 된다’고 하던 이들이 무려 1322㎡(400여평)를 내놓았다. <br/> <br/>마침내 교회개척 12년 만에 5층 규모 예배당을 신축했다. 2층(600㎡)은 처음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곳엔 장서 3만5000권을 비치했다. 미국에서 모아 온 10만권 중 영어서적 3만여 권도 꽂았다. 나머지 7만권은 아직 컨테이너 안에서 잠자고 있다. <br/> <br/>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매년 봄 외국인근로자와 북한이탈 주민 등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노인정 봉사팀, 금호강청소팀, 거리청소팀, 궁산자연보호팀, 환경미소원위로팀 등 10여개 팀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편다. <br/> <br/>교회 5층에 자리 잡은 ‘헤븐’은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푸른초장교회의 또 다른 명물이다. 금호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강정고령보가 내려다보이는 시원한 전망이 일품이다. <br/> <br/> 10년 전 약속 ‘민들레문화센터’ 건립계획 <br/>푸른초장교회의 정유년 새해 목표는 민들레센터(가칭)를 건립하는 것이다. 이락서당 땅 일부를 사들이면서 약속한 ‘도서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다. 현재 대구 달서구에 건축허가신청을 내놓은 상태다. <br/> <br/>2017년 교회 표어는 ‘신자, 가족, 시민이 되자’로 정했다. 교회 안에서 신자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공동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교인들과 함께 단단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br/> <br/>임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전 교인이 함께 공부하는 ‘면학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에 대해 강의했다. 올해는 성도들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벨직(네덜란드)신앙고백서를 읽을 계획이다. <br/> <br/>조선시대 서당 겸 서원이었던 이락서당은 달성지역 9개 문중의 33가구 선비들이 쌀 한 가마씩을 추렴해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수는 금호강(이수)와 낙동강이 합수지역이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br/> <br/>금호강 하류, 강창 앞에 있는 푸른초장교회 6층 목양실에서 금호강 서쪽 강정고령보를 바라보면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는 독특한 건물이 하나 서 있다.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디 아크(The ARC)’라는 전시공간이다. <br/> <br/>지난 4일 오후 임 목사는 푸른초장교회 인근의 볼거리를 설명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여기서 보면 노아의 정말 노아의 방주를 보는 것 같아요. 강과 물, 자연을 모티브로 한 디 아크는 4대강문화관이라고도 불리는데 디 아크는 건축물이자 예술작품으로서 독특한 외관 못지않게 눈이 즐거워지는 색다른 전시 공간이지요. 낙동강은 금호강을 만나 더욱 더 거대한 물줄기가 됩니다. 푸른초장교회는 이락서원을 만나 전통과 현대의 절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세상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 하고자 합니다.” <br/> <br/>2015년 총신대신대원에서 ‘칼뱅과 제네바 목사회’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16세기 장 칼뱅의 종교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말로만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서서 실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온갖 부패와 부조리가 판치는 세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빛과 소금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br/> <br/>임 목사와 작별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는 길, 강창교 옆 푸른초장교회 현판을 바라보면서 1980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불려지던 민중가요 한 소절을 떠올렸다. “<span class='quot0'>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이 흔들리지 않게</span>”(안치환의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br/> <br/>대구=글·사진 윤중식 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97.txt

제목: ‘자양강장제’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라  
날짜: 2017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0050255002  
ID: 01100201.20170110050255002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현대인의 병은 대부분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드는 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사증후군과 심·뇌혈관질환, 암 등에 걸리는 이유가 모두 잘못된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어서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사진) 교수가 권하는 2017년 건강 바루기 생활습관 5계명을 소개한다. <br/> <br/> 조비룡 교수는 9일, “<span class='quot0'>감염성 질환과 대사증후군에 의한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 챙기기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span>”며 “<span class='quot0'>새해 건강관리에서도 확실히 실천 가능한 것 위주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span>”고 조언했다. <br/> <br/> ①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밥이 보약이라면 아침밥은 자양강장제라고 할 수 있다. 아침밥을 먹으면 오전 중에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두뇌와 내장의 활동을 촉진시켜 몸이 활기를 띠게 된다. 아울러 하루 세끼 식사는 양껏 먹기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을 정도로 절식(節食)을 하는 것이 좋다. 폭식과 과식은 혈당치를 급격하게 올려 지방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지방과 단백질 음식은 1일 식단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음식을 충분히 씹어서 삼키는 것도 중요하다. <br/> <br/> ② 채소를 충분히 섭취한다= 먹고 자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가 배설이다. 쾌변을 바란다면 물과 식이섬유를 많이, 자주 먹는 식습관이 필요하다. 현미·보리 등의 곡류나 과일,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 장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을 마실 때는 조금씩 자주, 하루 1.5ℓ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 <br/> <br/> ③ 담배와 라이터를 버린다= 흡연의 해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흡연자는 힘들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해 담배를 끊도록 한다. 전체 암의 30∼40%는 담배로 인해 발생한다.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일수록 담배연기 속 발암물질이 몸에 축적돼 폐암, 구강암, 인두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과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br/> <br/> ④ 걷기운동을 생활화한다= 일상생활 중 몸을 많이 움직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엘리베이터가 비어있어도 몇 층 정도는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한두 정거장 거리쯤은 걸어서 가는 생활습관을 실천한다. 하루 1만보 이상 걷기 운동은 만병통치약이나 다름없는 효과가 있다. <br/> <br/> ⑤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은 언제나 뭔가를 잡고, 나르고, 만들면서 쉴 새 없이 각종 유해 세균과 접촉하는 부위다. 의사들은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기 등 감염질환의 약 60%는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귀가 후, 화장실에 다녀온 후, 애완동물을 만진 뒤,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한 다음엔 꼭 비누거품을 일으켜 손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도록 하자.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98.txt

제목: 몸과 마음의 디톡스로 암환자들에 완치 희망 선사  
날짜: 20170110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10204855001  
ID: 01100201.201701102048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서울 신길로 노박의원 노태성 원장(62·신촌성결교회)은 ‘암박사’로 불린다. 암유전자 연구로 의학박사 학위를 땄지만, 자연의학을 포함한 통합의학 치료법으로 환자들에게 암 완치의 희망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br/> <br/> “암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학이 워낙 다양하게 발달돼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뤄지면 얼마든지 완치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br/> <br/> 노 박사는 환자가 병을 이기겠다는 자신감과 신앙도 큰 몫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서 ‘노박사의 따뜻한 암치료’(생명나무)는 그가 30여년 동안 치료에 나섰던 임상 경험이다. <br/> <br/> 노박의원은 늘 환자로 붐빈다. 재중(在中)동포와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이 지역에서 암전문병원으로 소문이 난 것은 암환자에 맞춘 세심한 배려 때문이기도 하다. <br/> <br/> 특히 수술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 외에도, 영양면역요법과 운동면역요법·정신(영)면역요법 등을 사용하는 치료법은 환자들에게 무리를 주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br/> <br/> “4년 전 한 30대 후반 주부가 유방암 3기말에서 4기초인 상태로 내원했는데, 현대의학적 치료를 잘 마쳤지만 림프부종 등 여러 후유장애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고주파 온열치료, 항암면역주사, 물리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결국 상태가 호전되고 암전이도 없이 자녀를 2명이나 더 낳고 정상인처럼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치료법을 통해 암치료에 도움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br/> <br/> 노 박사는 각 환자의 특성에 맞게 맞춤 치료법을 찾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베일러(Baylor) 의과대학에서 잠시 공부할 때 그곳에 자연치료의사(ND)들이 따로 있고, 치유의학이 아주 체계화돼 있는 것을 경험한 뒤 귀국 후 양방과 함께 자연치료도 병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br/> <br/> “자연치료의 핵심은 혈액순환을 좋게 함으로써 체온을 올려 면역력을 강화하고 백혈구와 적혈구를 증강하며 체질을 변화시켜 환자 스스로 암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자연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보완적 측면에서 자연치료를 통해 고통이 감소되고 생명이 연장된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br/> <br/> 노 박사는 “<span class='quot0'>질병은 육체적인 문제와 더불어 정신과 감정, 영혼을 포함한 전체적인 문제라는 게 자연의학의 중심적 개념</span>”이라며 “<span class='quot0'>마음과 영혼의 상태가 암 등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스트레스와 절망감 등을 회복시켜 줄 때 인체의 천연방어력이 가동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span>”고 밝혔다. <br/> <br/> 노 박사는 늘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면 이를 연구하는 자세로 검토 후 도입, 내방환자들에 소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7층짜리 병원 건물은 입원실 일부가 마치 가정집처럼 꾸며져 환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다양한 치료 의료기기를 보유해 환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br/> <br/> 노박의원이 암치료에 사용하는 치료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주파온열 치료법’이다. <br/> <br/> 고주파온열치료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열에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38.5∼42도의 온도를 가해 자연적으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치료법이다. 특별한 통증 없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집중 치료할 수 있고 항암약물 및 방사선 치료와 병행할 경우 통증을 크게 완화시켜 준다. 노박의원이 보유한 온열치료기는 아주 고가이지만 많은 환자들에게 사용돼 효과를 보고 있다. <br/> <br/> 면역치료는 영양요법에 기초를 두고 면역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미슬토요법, 비타민요법, 미네랄 요법 등을 환자 특성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경과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율신경검사, 뇌파분석 등으로 심신 상태를 파악해 개인특성에 맞는 치료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br/> <br/> 아울러 항암면역세포치료제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배양, 이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치료법을 실시하고 있다. <br/> <br/> 노 박사는 환자를 진료할 때 ‘몸과 마음의 디톡스’(detox·정화, 해독)를 치료의 기본 틀로 삼고 있다. 이 치료 원리는 성경에서 착안됐다. “<span class='quot1'>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span>”(마태복음10장 1절)는 말씀에서 치료의 원리를 찾은 것이다. <br/> <br/> “<span class='quot1'>환자들의 안타까운 입장을 생각하며 저비용에 가장 좋은 치료법을 찾아 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의술은 인술’이라는 명제를 항상 실천하려고 합니다.</span>” <br/> <br/> 기독병원로서의 사명을 늘 되짚어 보며 기도한다는 노 원장은 앞으로 더 많은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쁨을 선사하고 또 복음도 함께 전하길 희망하고 있다. <br/> <br/><글=기획특집팀, 사진=강민석 선임기자>

언론사: 국민일보-5-999.txt

제목: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에 건보료' 점진적 줄인다+피부양자 단계 축소  
날짜: 20170109  
기자: 민태원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9104244001  
ID: 01100201.20170109104244001  
카테고리: 사회>의료\_건강  
본문: 정부가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에 매겨지던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무임 승차’ 논란이 큰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안을 오는 23일 국회와 공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다. <br/> <br/>보건복지부는 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및 민생 안정’ 분야 주제의 2017년 업무추진 계획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br/> <br/>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span class='quot0'>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개선하겠다</span>”고 밝혔다. 그는 “<span class='quot0'>직장인과 지역 가입자 모두 공평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된다</span>”면서 “<span class='quot0'>보험료 변동 대상자와 변동 폭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 나가려 한다</span>”고 했다. 정 장관은 “<span class='quot0'>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논의를 거쳐 각 정당이 내놓은 개편안들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span>”고 말했다. <br/> <br/>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읍면동 복지 허브화’ 대상을 올해 2100개로 확대키로 했다. 사례 관리비도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증액된다. <br/> 7월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장기 결석이나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학대 등 위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낼 방침이다. <br/>‘존엄한 죽음’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과 가정 등으로 넓히고, 8월부터는 대상 질환도 암 외 에이즈, 만성간경변,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확대된다. <br/> <br/>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지속 강화와 함께 뇌성마비(7만명)와 난치성 뇌전증(2만명) 등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장 강화가 추진된다. <b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결핵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학생, 만40세, 입대장병 등 188만명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br/> <br/> 2월엔 저출산 극복을 위한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하고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span class='quot1'>위원회 내에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주도할 것</span>”이라고 말했다. <br/> <br/>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비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10월부터 적용된다. 고위험임산부에게 50만원 이하인 비급여 입원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br/> <br/>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1000.txt

제목: ‘뇌사’로 장기기증 하고 하늘나라 간 군의관 아들을 위한 기도  
날짜: 20170109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9205655001  
ID: 01100201.20170109205655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들은 명덕외고와 연세대 의대를 나온 수재였다. 2016년 4월부터 경기도 포천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다. 어디 내놔도 손색없던 스물아홉 살 아들이 지난달 14일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출혈로 쓰러졌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20일 넘게 뇌파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새해를 맞은 아들은 이 땅에 딱 3일만 머물렀다. 그리고 새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br/> <br/> 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득희(60) 서울 수정성결교회 장로와 임소연(56) 권사를 만났다. 눈물이 마른 듯 했다. 영정 사진 속엔 정복차림의 아들 이용민 중위가 있었다. <br/> <br/> 장기기증은 아들을 배 아파 낳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 임 권사는 “용민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는데, 살아서 환자를 못 살린다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2016년만 넘길 수 있다면 온전히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했다”고 오열했다. <br/> <br/> 176㎝ 키에 70㎏의 건장한 체구였던 이 중위. 그의 장기는 지난 3∼4일 심장 간 췌장 신장 등이 긴급히 필요한 이들에게 이식됐다. 특히 이 중위의 간은 6개월 된 아기 등 2명의 위독한 환자에게 전달됐다. 추후 이식할 수 있는 대퇴골 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환자들이 도움 받을 것으로 보인다. <br/> <br/> 이 장로는 15시간에 걸친 아들의 장기적출 수술을 뜬눈으로 기다렸다. 가장 부러웠던 것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암 환자였다고. 그는 “장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온전히 맡겨 드리겠다고 했지만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뜰 수 있는 암 환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며 목 놓아 울었다. 부부의 소망은 아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다. <br/> <br/>성남=글·사진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언론사: 국민일보-5-1001.txt

제목: 군의관 아들 장기기증 후 하늘나라로… 아버지가 부르는 천국소망 노래  
날짜: 20170108  
기자: 백상현 기자  
링크: https://www.bigkinds.or.kr/news/detailView.do?docId=01100201.20170108121744001  
ID: 01100201.20170108121744001  
카테고리: 문화>생활  
본문: 아들은 명덕외고와 연세대 의대를 나온 수재였다. 2016년 4월부턴 경기도 포천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했다. 어디 내놔도 손색없던 스물아홉 살 아들이 지난달 14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20일 넘게 뇌파가 나오지 않았다. 2017년 새해를 맞은 아들은 이 땅에 딱 3일만 머물렀다. 그리고 새 생명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br/> <br/>6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득희(60) 서울 수정성결교회 장로와 임소연(56) 권사를 만났다. 눈물이 마른 듯 했다. 영정 사진 속엔 정복차림의 아들 이용민 중위가 있었다. <br/> <br/>임 권사는 “지난 20일간 중환자실에서 매일 30분씩 아들을 면회할 때마다 ‘아들, 엄마가 왔다. 오늘도 잘 견뎌주렴’하고 인사했다”면서 “육신의 부모로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용민이가 서른 살은 꼭 채우고 갔으면 하는 것이었다”고 흐느꼈다. <br/> <br/>장기기증은 아들을 배 아파 낳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 임 권사는 “용민이가 사람을 살리는 의사였는데, 뇌사에 빠진 아들이 살아서 환자를 못 살린다면 자신의 몸을 불살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면서 “2016년만 넘길 수 있다면 온전히 아이를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했다”고 오열했다. <br/> <br/>176㎝ 키에 70㎏의 건장한 체구였던 이 중위. 그의 장기는 지난 3~4일 심장 간 췌장 신장 등이 긴급히 필요한 이들에게 이식됐다. 특히 이 중위의 간은 6개월 된 아기 등 2명의 위독한 환자에게 전달됐다. 추후 이식할 수 있는 대퇴골 등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의 환자들이 도움 받을 것으로 보인다. <br/> <br/>이 장로는 15시간에 걸친 아들의 장기적출 수술을 뜬눈으로 기다렸다. 가장 부러웠던 것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암 환자였다고. 그는 “장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온전히 맡겨 드리겠다고 했지만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뜰 수 있는 암 환자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며 “입관 예배 때 홀쭉해진 아들의 몸을 처음 봤는데 마음이 찢어졌다”며 목 놓아 울었다. <br/> <br/> <br/>아버지는 아들의 수술을 마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남겼다. “용민아!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큰일을 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편히 쉬거라. 아빠가.” 부부의 소망은 아들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다. 성남=글·사진 <br/> <br/>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